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911-10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021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

2022. 6. 3.

연구용역책임자 :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문

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에서 용역 의뢰한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6. 3.

연구용역책임자 김동준 이사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 참여연구진

---

## 연구책임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 평가위원

김준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평가단장)

김동준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이사

양진명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순병민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서정아 숭실대학교 의생명시스템학부 교수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황윤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 연구보조

노민택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현수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류원영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강나을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





<b>I .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b> .....	1
1.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3
2.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	4
3. 경영실적 평가방법 .....	8
<b>II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b> .....	11
1. 종합 평가결과 .....	13
2. 평가범주별 결과 .....	17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	31
<b>III .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b> .....	63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65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107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147
4. 한식진흥원 .....	189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239
6. 축산환경관리원 .....	285
<b>IV .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b> .....	327
1. 정책제언 .....	329





---

## I .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개요

---



# I.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개요

## 1.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 경위

### (1) 연구 배경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경영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기타공공기관도 경영 개선과 부채관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주무 부처 주관으로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해왔다.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2015년부터 소속 기타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 2021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2년 축산환경관리원이 추가된 이후 2022년 현재 8년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2) 평가 의의

-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포괄적 관리·감독권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 (3) 연구용역 수행 기간 및 일정

- 경영평가단은 2022년 3~6월에 평가대상 기타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의 2021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다.

- 공공기관이 작성·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사전 서면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경영실적을 점검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평가대상 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경영실적평가 주요 일정 >

■ 2022년 3월 16일	계약체결
■ 2022년 3월 16일 ~ 3월 29일	경영평가단 운영 일정협의 및 착수보고
■ 2022년 4월 05일	피평가기관 대상 평가설명회
■ 2022년 4월 02일 ~ 4월 06일	기관별 경영실적보고서 평가위원 배부
■ 2022년 4월 06일 ~ 4월 12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확인사항 도출
■ 2022년 4월 26일 ~ 4월 29일	현장평가
■ 2022년 5월 02일 ~ 5월 13일	평가결과의 종합 및 검토
■ 2022년 5월 16일 ~ 5월 17일	평가결과 초안 도출
■ 2022년 5월 18일 ~ 5월 24일	기관별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2022년 5월 26일 ~ 5월 27일	평가위원별 이의신청 조정 여부 검토
■ 2022년 5월 30일 ~ 5월 31일	이의신청 사항 조정결과 회신 및 결과 확정 총괄위원회 운영
■ 2022년 6월 3일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제출

## 2.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 (1) 경영평가단 구성

- 총 14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경영관리 부문(3인) 및 주요사업 부문(12인/기관별 2인, 공통 1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평가위원은 (前)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교수, 박사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였으며, 평가단은 사전모임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고 이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지표(계량·비계량)는 담당 평가위원 3인이 6개 기관을 공통으로 평가하고, 주요사업지표(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이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주요사업지표(비계량)는 각 기관의 세부분야 관련 전문 평가위원 2인과 경영

관리지표를 담당한 위원 중 경영관리 전문 평가위원 1인이 평가하였다.

- 2022년 현장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 및 전화 통화를 활용하여 원격평가로 진행되었다.
- 현장평가에서는 실적보고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내용을 지표별 담당자 전화 통화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 평가의견서는 각 피평가기관에 회람시켜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평가위원 경력 및 역할 분담>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	평가 단장	김준식	공공정책 성과평가 연구원	연구 위원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 - 고양시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위원(2019) -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 경영평가위원 (2010~2019) - 국방부 운영심의회 위원(2016~2019)	- (경영관리, 6개 기관 공통)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구현 계량·비계량 지표 평가 및 집필
2	연구 책임 (평가 위원)	김동준	공공정책 성과평가 연구원	이사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20~2021)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2019~2021) -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본위원 (2018~2020) -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영평가위원(2020) -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2018~2022)	- (경영관리, 6개 기관 공통) 사회적 가치구현,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3	평가 위원	양진명	공공정책 성과평가 연구원	연구 위원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 - 국방부 자체평가위원(2015~2021)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조직평가위원장 (2019) -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 (2017, 2019, 2021)	- (경영관리, 6개 기관 공통) 조직·인사·재무관리 계량·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 (주요사업, 6개 기관 공통)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4	평가 위원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 -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 -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위원 -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 - 농림축산검역본부 AI백신협의회 위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	-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업 계량 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5	평가 위원	최농훈	건국대학교 수의예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 (2014~2018)</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 (2020~2022)</li> <li>-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사심의위원회 위원 (2020~20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위생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6	평가 위원	이상휘	경희대학교 국제통상 금융투자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li> <li>- 한국재무관리학회 상임이사(2015~2019)</li> <li>- 한국기업경영학회 상임이사(2015~2019)</li> <li>-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2009~2010, 2013~20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7	평가 위원	순병민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2020~현재)</li> <li>- 한국산업경제학회 상임이사(2021~현재)</li> <li>- 충남 탄소중립위원회 위원(2021~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자금 관리, 농업재해보험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8	평가 위원	서정아	송실대학교 의생명 시스템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li> <li>-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 (2015~2016)</li> <li>- 농림축산식품부 5급 과학 기술박사특채 사무관(2007~2013)</li> <li>-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 연구소 전임연구교수(2006~200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9	평가 위원	김국형	서울대학교 농생명 공학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li> <li>- 환경부 LMO 위해성 심사위원(2014~현재)</li> <li>-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문위원(2013~현재)</li> <li>- (사)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20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GM 예찰 방제,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10	평가 위원	강일준	한림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li> <li>-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2021.01 ~ 현재)</li> <li>-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이사(2021)</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2020~2022)</li> <li>-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 (2020.07 ~ 현재)</li> <li>-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 (2010~2011, 2013, 2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li>- (주요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신인프라 구축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주요경력	역할
11	평가 위원	황윤재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연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9~2021)</li> <l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부 연구위원 (2006~현재)</li> <li>-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분과위원(2020~현재)</li> <li>- 한국식생활교육학회 이사 (2018~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한식진흥원) 전문인력양성 실적, 한식 해외확산 실적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12	평가 위원	김준모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21)</li> <li>-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 기상청 자체평가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성장지원 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13	평가 위원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現)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심의위원</li> <li>- (現)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축산분야)</li> <li>- (現)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전문위원(위원장)</li> <li>- (前)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기후변화 평가 자문위원</li> <li>- (前) 농림축산식품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평가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관리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14	평가 위원	이주량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공지능농업연구회 감사(2021~현재)</li> <li>- 농업경제학회 이사(2017~현재)</li> <li>-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2013~현재)</li> <li>-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2016~현재)</li> <li>-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2017~현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축산환경관리원)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계량지표,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 사업 계량지표,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비계량지표 평가 및 집필</li> </ul>

### 3. 경영실적 평가방법

-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및 최근 몇 년간 경영 개선 추세와 비교하여 2021년도 경영 개선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범주는 경영관리(45점)와 주요사업(55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혁신과 소통 등 5개 하위 평가요소로 구분하였다. 경영전략 및 리더십 하위요소는 전략기획(비계량), 경영개선(비계량), 리더십(비계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가치구현 하위요소는 일자리 창출(계량 및 비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및 비계량), 안전 및 환경(비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윤리경영(비계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직·인사·재무관리 하위요소는 조직·인사 일반(비계량), 재무예산 운영·성과(계량 및 비계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보수 및 복리후생 하위요소는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총인건비 관리(계량), 노사관계(비계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소통 하위요소는 혁신노력 및 성과(비계량), 국민소통(계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는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등의 종합평가 및 기관별 주요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주요사업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를,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계량평가를 실시하였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는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1),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3)), 조직·인사·재무관리(재무예산 운영·성과(1)), 보수 및 복리후생(총인건비 관리(2)), 혁신과 소통(국민소통(2)), 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관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목표부여평가, 목표부여(편차)평가, 목표 대 실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전략기획(2), 경영개선(1), 리더십(1)),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2), 안전 및 환경(5),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2), 윤리경영(5)), 조직·인사·재무관리(조직·인사 일반(2), 재무예산 운영·성과(1)), 보수 및 복리후생(보수 및 복리후생(4), 노사관계(2)), 혁신과 소통(혁신 노력 및 성과(2))로 구성되었으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의 경우 6개 기관의 개별 사업단위별로 추진계획·활동·성과·환류 과정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는데, 계량지표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항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 가점지표는 혁신성장(1),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3)로 구성되었으며, 혁신성장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기관 운영만으로는 창출되기 어려운 탁월한 성과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 관리 (45)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b>4</b>	<b>4</b>	<b>-</b>
	(1) 전략기획	2	2	-
	(2) 경영개선	1	1	-
	(3) 리더십	1	1	-
	<b>2. 사회적 가치구현</b>	<b>25</b>	<b>19</b>	<b>6</b>
	(1) 일자리 창출	7	5	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3) 안전 및 환경	5	5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5) 윤리경영	5	5	-
	<b>3. 재무예산관리</b>	<b>4</b>	<b>3</b>	<b>1</b>
	(1) 재무예산 운영·성과	2	2	-
	(2)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제고)	2	1	1
	<b>4. 보수 및 복리후생</b>	<b>8</b>	<b>6</b>	<b>2</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4	-
	(2) 충인건비 관리	2	-	2
	(3) 노사관계	2	2	-
	<b>5. 혁신과 소통</b>	<b>4</b>	<b>2</b>	<b>2</b>
	(1) 혁신노력 및 성과	2	2	-
	(2) 국민소통	2	-	2
	<b>소 계</b>	<b>45</b>	<b>34</b>	<b>11</b>
주요 사업 (55)	주요사업 계량지표	28	-	28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5	-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12	-
	<b>소 계</b>	<b>55</b>	<b>27</b>	<b>28</b>
<b>합 계</b>		<b>100</b>	<b>61</b>	<b>39</b>
가점	<b>혁신성장</b>	<b>1</b>	<b>1</b>	<b>-</b>
	<b>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b>	<b>3</b>	<b>3</b>	<b>-</b>

○ 기관의 종합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등급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종합평가결과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가점 포함)의 합이 90점 이상 1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S,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A,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B,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C,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D,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등급 E를 각각 부여하였다.

#### <평가결과 종합점수 기준 및 수준 정의>

등급	수준 정의
탁월 (S)	모든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우수 (A)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양호 (B)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양호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보통 (C)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미흡 (D)	일부 경영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
아주미흡 (E)	대부분의 경영 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시도가 필요한 수준

○ 평가지표 세부 내용은 6개 평가대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기관별 주요사업 세부지표 내용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021.10.)」에 의거한다.

---

## Ⅱ.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 II.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1. 종합 평가결과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평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작성된 “농림축산식품부 (2021.10) 「2021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준거하여 경영관리 범주(45점)와 주요사업 범주(55점)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각 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각각 가중치 39:61로 평가하였다. 계량지표는 산식에 실적치를 적용하고 가중치에 따라 평가점수를 계산하였으며, 비계량지표는 C등급(보통)을 기준으로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 점수를 부여하여 ‘A+’에서 ‘E0’까지 총 9단계로 평가하였다.
- 2021년도 기타공공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기관 간의 경영성차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평가하였다.
- 기관별 총점 결과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82.19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80.86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9.56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8.80점) > 한식진흥원(74.84점) > 축산환경관리원(74.33점)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범주의 득점 결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35.85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35.62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33.53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2.59점) > 한식진흥원(32.19점) > 축산환경관리원(26.53점)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의 득점 결과, 축산환경관리원(47.30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45.87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45.54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44.74점) > 국제식물검역인증원(44.07점) > 한식진흥원(41.85점)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평가 등급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B등급으로 나타났다.

## &lt;2021년도 기타공공기관 지표별 평가 총괄&gt;

(단위 :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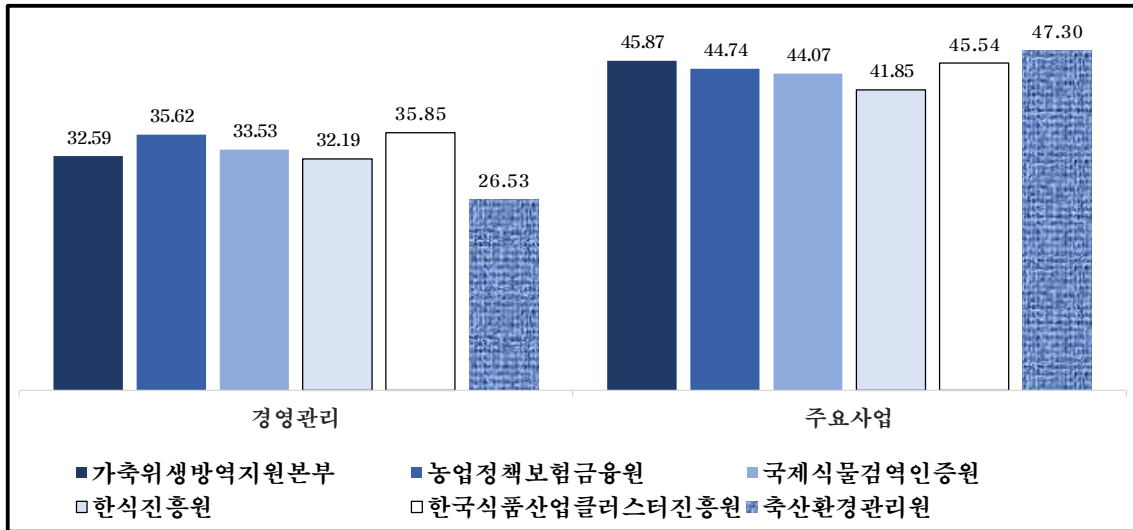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축산환경 관리원	
경영관리	경영전략 및 리더십	4	2.60 (65.00)	3.10 (77.50)	3.20 (80.00)	2.70 (67.50)	3.10 (77.50)	2.50 (62.50)
	사회적 가치구현	25	18.14 (72.56)	20.89 (83.56)	18.82 (75.28)	18.34 (73.36)	20.21 (80.84)	14.40 (57.60)
	조직·인사 ·재무관리	4	3.30 (82.50)	3.03 (75.75)	3.01 (75.25)	2.78 (69.50)	3.38 (84.50)	2.90 (72.50)
	보수 및 복리후생	8	5.60 (70.00)	6.00 (75.00)	5.60 (70.00)	5.60 (70.00)	6.20 (77.50)	4.80 (60.00)
	혁신과 소통	4	2.95 (73.75)	2.60 (65.00)	2.90 (72.50)	2.77 (69.25)	2.96 (74.00)	1.93 (48.25)
<b>경영관리 득점</b>	<b>45</b>	<b>32.59</b>	<b>35.62</b>	<b>33.53</b>	<b>32.19</b>	<b>35.85</b>	<b>26.53</b>	
주요사업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28	27.43 (97.96)	28.00 (100.00)	27.21 (97.18)	27.59 (98.54)	28.00 (100.00)	28.00 (100.00)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2.74 (84.93)	9.54 (63.60)	11.16 (74.40)	8.56 (57.07)	12.14 (80.93)	12.10 (80.67)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5.70 (47.50)	7.20 (60.00)	5.70 (47.50)	5.70 (47.50)	5.40 (45.00)	7.20 (60.00)
<b>주요사업 득점</b>	<b>55</b>	<b>45.87</b>	<b>44.74</b>	<b>44.07</b>	<b>41.85</b>	<b>45.54</b>	<b>47.30</b>	
혁신성장 가점	1	0.20	0.20	0.00	0.20	0.20	0.20	
코로나19 대응 가점	3	0.90	0.30	1.20	0.60	0.60	0.30	
<b>총점</b>	<b>100</b>	<b>79.56</b>	<b>80.86</b>	<b>78.80</b>	<b>74.84</b>	<b>82.19</b>	<b>74.33</b>	
등급		B	A	B	B	A	B	
순위		3	2	4	5	1	6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경영관리(45점 만점) 범주와 주요사업(55점 만점) 범주의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35.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축산환경관리원이 26.5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축산환경관리원이 47.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이 41.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평가범주별 종합 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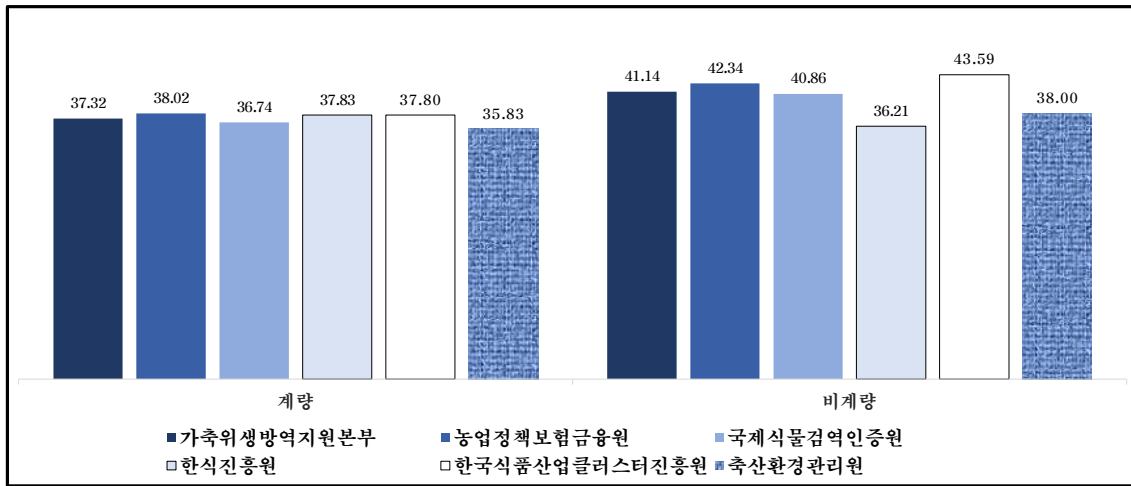
(단위 : 점)



○ 계량지표(39점 만점) 평가와 비계량지표(61점 만점) 평가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계량지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38.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식진흥원 37.83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7.8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7.32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6.74점, 축산환경관리원 35.83점 순으로 나타났다. 비계량지표에서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4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2.34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1.14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0.86점, 축산환경관리원 38.00점, 한식진흥원 36.21점 순으로 나타났다.

## &lt;2021년도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결과&gt;

(단위 : 점)





## 2. 평가범주별 결과

- 경영관리 범주 지표 중 일부는 전년도 지표와 배점, 세부평가내용, 득점 산출 방법 등이 상이하여 과거 평가결과와 비교 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 배점 변경 : 전략기획(비계량), 일자리 창출(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비계량 및 계량), 윤리경영(비계량), 재무예산 운영·성과(계량), 혁신노력 및 성과(비계량)
  - 세부평가내용 변경 : 리더십(비계량), 일자리 창출(계량),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계량)
  - 득점 산출 방법 변경 : 안전 및 환경(계량 및 비계량)
-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목표치 및 산출방법에 따라 기관별 유불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계량지표가 기관의 주요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성과대표성에 다소 제한이 있거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 성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지표의 경우 검사단계에서 이상 건수가 발생하는 비율은 검사 대상의 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AGM예찰 활동을 지표의 경우 임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트랩 설치 수 및 트랩 조사 수의 경우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시점을 앞당기거나 조사주기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자칫 실적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초래할 수 있다.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및 병해충금지품 발견 건수의 경우 재식용식물 수입 건수 및 수입품목의 청결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과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 지표의 경우, 공기준수율 및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의 경우 성과대표성 및 책임 및 권한 적합성 측면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의 대표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① 경영관리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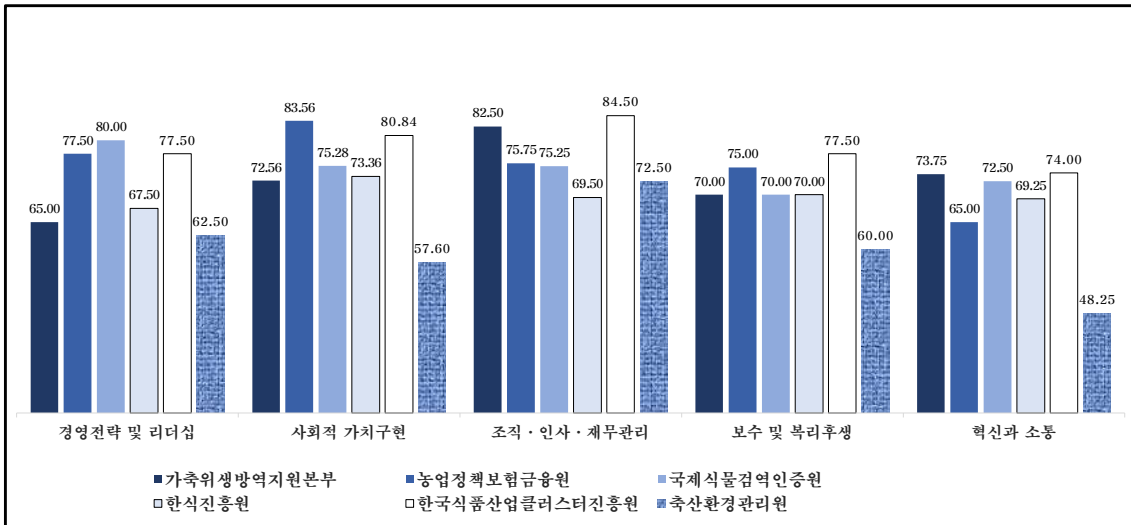
### (1) 종합 득점 결과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45점 만점)을 살펴보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5.85점(79.6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5.62점(79.16%)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3.53점(74.51%)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2.59점(72.42%) > 한식진흥원 32.19점(71.53%) > 축산환경관리원 26.53(58.96%)점 순으로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중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계량지표에서 9.80점, 비계량지표에서 26.05점, 합계 35.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에서 10.02점, 비계량지표에서 25.60점, 합계 35.62점을 획득하였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9.53점, 비계량지표 24.00점, 합계 33.53점을 획득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계량지표 9.89점, 비계량지표 22.70점, 합계 32.59점을 획득하였고,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 10.24점, 비계량지표 21.95점, 합계 32.19점을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은 계량지표 7.83점, 비계량지표 18.70점, 합계 26.53점을 획득하였다.
- 경영관리 범주 평가지표 중 경영전략 및 리더십의 총점(4점 만점)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3.20점(80.00%)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3.10점(77.50%), 한식진흥원 2.70점(67.5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60점(65.00%), 축산환경관리원 2.50점(62.5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사회적 가치구현의 총점(25점 만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20.89점(83.56%)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1점(80.8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8.82점(75.28%), 한식진흥원 18.34점(73.3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14점(72.56%), 축산환경관리원이 14.40점(57.6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의 총점(4점 만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3.38점(84.50%)으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30점(82.5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03점(75.7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01점(75.25%), 축산환경관리원 2.90점(72.50%), 한식진흥원 2.78점(69.5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보수 및 복리후생의 총점(8점 만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6.20점(77.50%)으로 가장 높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00점(75.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5.60점(70.00%), 축산환경관리원 4.80점(60.0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혁신과 소통 총점(4점 만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2.96점(74.00%)으로 가장 높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95점(73.7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90점(72.50%), 한식진흥원 2.77점(69.25%),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60점(65.00%), 축산환경관리원 1.93점(48.25%)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2021년도 경영관리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

(단위 : %)



-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한식진흥원(93.09%) > 농업정책보험금융원(91.09%)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89.91%)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89.09%) > 국제식물검역인증원(86.64%) > 축산환경관리원(71.18%)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11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여 취득 총점의 백분율을 비교 수행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 받은 축산환경관리원을 제외한 5개 기관 모두 2020년 대비 경영관리 계량지표 백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상승한 기관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72.58%→89.09%)으로 나타났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6.33%→89.91%), 국제식물검역인증원(75.75%→86.64%), 한식진흥원(84.50%→93.09%), 농업정책보험금융원(82.83%→91.09%) 순으로 계량지표 백분율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lt;2021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계량평가 종합점수&gt;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축산환경 관리원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2	1.99 (99.5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1	0.80 (80.00)	1.00 (100.00)	0.63 (63.00)	1.00 (100.00)	0.63 (63.00)	0.00 (0.00)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3	2.65 (88.33)	2.89 (96.33)	2.59 (86.33)	2.89 (96.33)	2.83 (94.33)	2.00 (66.67)
재무예산 관리	재무예산 운영·성과	1	1.00 (100.00)	0.93 (93.00)	0.91 (91.00)	0.88 (88.00)	0.98 (98.00)	1.00 (100.00)
보수 및 복리후생	총인건비 관리	2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2.00 (100.00)
국민소통 및 혁신	국민소통	2	1.45 (72.50)	1.20 (60.00)	1.40 (70.00)	1.47 (73.50)	1.36 (68.00)	0.83 (41.50)
<b>총점</b>		<b>11</b>	<b>9.89</b> <b>(89.91)</b>	<b>10.02</b> <b>(91.09)</b>	<b>9.53</b> <b>(86.64)</b>	<b>10.24</b> <b>(93.09)</b>	<b>9.80</b> <b>(89.09)</b>	<b>7.83</b> <b>(71.18)</b>
순위			3	2	5	1	4	6

\* 한식진흥원과 축산환경관리원의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세부지표로 인하여 0.5점 만점으로 계산 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지표 해당 가중치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76.62%) > 농업정책보험금융원(75.29%) > 국제식물검역인증원(70.59%)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6.76%) > 한식진흥원(64.56%) > 축산환경관리원(55.00%) 순으로 나타났다.

○ 경영관리 비계량지표 가중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34점으로 설정된 상황이므로 취득 총점에 의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여 취득 총점의 백분율을 비교 수행하였다. 대체적으로 백분율은 2020년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7.01%→66.76%)로 나타났으며, 상승한 기관은 한식진흥원(52.12%→64.5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69.15%→76.62%), 농업정책보험금융원(69.72%→75.29%), 국제식물검역인증원(67.23%→70.59%)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기관별 경영관리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국제식물검역 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축산환경 관리원
경영전략과 리더십	전략기획	2	1.40 (70.00)	1.60 (80.00)	1.80 (90.00)	1.40 (70.00)	1.40 (70.00)	1.20 (60.00)
	경영개선	1	0.60 (60.00)	0.80 (80.00)	0.70 (70.00)	0.80 (80.00)	0.90 (90.00)	0.60 (60.00)
	리더십	1	0.60 (60.00)	0.70 (70.00)	0.70 (70.00)	0.50 (50.00)	0.80 (80.00)	0.70 (70.00)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5	3.00 (60.00)	4.50 (90.00)	3.50 (70.00)	3.00 (60.00)	4.50 (90.00)	2.50 (50.00)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1.40 (70.00)	1.60 (80.00)	1.60 (80.00)	1.40 (70.00)	1.60 (80.00)	0.80 (40.00)
	안전 및 환경	5	4.10 205.00	4.00 200.00	4.10 205.00	3.65 182.50	4.05 202.50	3.60 180.00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1.20 (60.00)	1.40 (70.00)	1.40 (70.00)	1.40 (70.00)	1.60 (80.00)	1.00 (50.00)
	윤리경영	5	3.00 (60.00)	3.50 (70.00)	3.00 (60.00)	3.00 (60.00)	3.00 (60.00)	2.50 (50.00)
재무예산 관리	조직·인사 일반	2	1.40 (70.00)	1.20 (60.00)	1.60 (80.00)	1.40 (70.00)	1.60 (80.00)	1.20 (60.00)
	재무예산 운영·성과	1	0.90 (90.00)	0.90 (90.00)	0.50 (50.00)	0.50 (50.00)	0.80 (80.00)	0.70 (70.00)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4	2.40 (60.00)	2.80 (70.00)	2.60 (65.00)	2.40 (60.00)	2.80 (70.00)	2.00 (50.00)
	노사관계	2	1.20 (60.00)	1.20 (60.00)	1.00 (50.00)	1.20 (60.00)	1.40 (70.00)	0.80 (40.00)
혁신과 소통	혁신 노력 및 성과	2	1.50 (75.00)	1.40 (70.00)	1.50 (75.00)	1.30 (65.00)	1.60 (80.00)	1.10 (55.00)
<b>총점</b>		<b>33</b>	<b>22.70 (66.76)</b>	<b>25.60 (75.29)</b>	<b>24.00 (70.59)</b>	<b>21.95 (64.56)</b>	<b>26.05 (76.62)</b>	<b>18.70 (55.00)</b>
순위			4	2	3	5	1	6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2) 지표별 평가결과

- 경영전략과 리더십(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지표에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해당 기관들은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가치체계를 진단하고 기관의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회적 가치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지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사회형평적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안전 및 환경을 제외한 모든 지표(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에서 미흡한 실적을 보였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지표는 6개 기관 모두 사업비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2020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다(64.00%→88.88%).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에서는 계량지표인 총인건비 관리의 경우, 모든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기준 0.90% 이하를 준수하여 만점(2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비계량지표인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이 미흡한 실적을 보였으며, 노사관계에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이 미흡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혁신과 소통 지표의 비계량지표인 혁신 노력 및 성과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은 다소 미흡한 실적을 보였으나, 축산환경관리원을 제외한 5개 기관은 세부항목 전체에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 ① 경영전략과 리더십(4점 만점)

## ○ 전략기획(3점)

- 전략기획 비계량지표의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A(1.8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B+(1.6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B(1.40점), 축산환경관리원 C(1.2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모두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내외 의견 수렴을 통한 가치체계 진단 및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 부분에서는 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핵심가치의 내재화 및 실질적인 구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가치체계 인식수준 진단결과 분석 및 핵심가치 요소의 적절성·충분성 검토에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영개선(1점)

- 경영개선 비계량지표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A(0.9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각각 B+(0.8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B(0.7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각각 C(0.6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성장사업 도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관의 임무, 조직, 기능조정과 연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석 기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에는 분야별 문제점과 경영개선방향 간 상호 연계성을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기관 임무 분야별·기능별·요소별 문제점 식별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리더십(1점)

- 리더십 비계량지표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B+(0.8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각각 B(0.7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C(0.60점), 한식진흥원 D+(0.5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모두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노력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기관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기관의 현안과제별 추진 과제 및 실행방안 정립 등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으나,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의 경우 가치체계 및 핵심가치 공유·내재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사회적 가치구현(25점 만점)

### ○ 일자리 창출(7점)

- 일자리 창출 비계량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A(4.5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B(3.5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각각 C(3.00점), 축산환경관리원 D+(2.5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일자리 창출 계량지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각각 2.0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99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 계획(17.10.25.)」 上 연도별 계획(누적) 대비 실적을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문건에는 '20년까지의 전환계획만이 제시되어 있어 해당 항목의 경우 전 기관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은 모두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실적(정원 대비 3%)을 달성하였으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청년인턴제 운영, 정현원차 관리, 불합리한 차별 요소의 배제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3점)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비계량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B+(1.6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각각 B(1.40점), 축산환경관리원 D(0.80점)의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계량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각각 1.0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80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0.63점, 축산환경관리원 0.0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한식진흥원 및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세부지표(장애인 의무고용 실적)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실적을 0.5점 만점으로 계산 후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지속가능성 측면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의 경우 고졸적합업무 발굴 및 고졸,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 ○ 안전 및 환경(5점)

- 안전 및 환경의 환경보전 비계량지표 중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항목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각각 B+(0.40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B(0.35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C(0.30점)로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 제품 구매실적의 경우 모든 기관이 만점(0.5점)을 획득하였다.
- 안전 및 환경의 재난 및 안전관리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B+(3.20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각각 B(2.8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안전관리 개선노력의 구체성 제고,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비계량지표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B+(1.6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각각 B(1.4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C(1.20점), 축산환경관리원 D+(1.0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계량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각각 2.89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83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65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59점, 축산환경관리원 2.0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모든 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법정 기준치 또는 권장 비율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기관 업무 특성과 연계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윤리경영(5점)

- 윤리경영 비계량지표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B(3.5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C(3.00점), 축산환경관리원 D+(2.5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6개 기관 모두 다양한 자체 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리경영체계 구축 개념 및 추진 방향 설정의 체계성 부분에서는 기관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인권교육, 갑질·고충상담 등 윤리경영을 위한 활동이 타 기관에 비하여 미비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 ③ 조직·인사·재무관리(4점 만점)

## ○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2점)

- 조직·인사 일반 비계량지표의 경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B+(1.6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B(1.4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C(1.20점)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업무매뉴얼 고도화 노력, 조직 최적화를 위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재무예산 운영·성과(2점)

- 재무예산 운영·성과 비계량지표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A(0.9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B+(0.80점), 축산환경관리원 B(0.70점), 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D+(0.5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또한 사업비 집행률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지표의 경우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액/사업비 예산현액)을 평가하는 지표로, 축산환경관리원의 사업비 집행률이 100.00%로 가장 높아 1.00점을 취득하였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99.58%로 1.0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97.64%로 0.98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0.71%로 0.93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88.88%로 0.91점, 한식진흥원은 84.60%로 0.88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모두 사업비 집행률이 80%를 상회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비교적 연간 계획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사고이월, 불용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8점 만점)

## ○ 보수 및 복리후생(4점)

- 보수 및 복리후생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편람에 따라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2.00점,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2.00점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표에 대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각각 2.80점(C/B+, B+/C),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60점(C/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2.40점(D+/B, D+/B), 축산환경관리원 2.00점(D+/D+)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성원의 니즈 파악, 공감대 형성, 노사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다만,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을 위해 내부 자체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관련 모델이 기관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전반적으로 모든 기관이 정부지침에 따라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다만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기관의 비금전적 복리후생 제공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총인건비 관리(2점)

- 총인건비 관리 계량지표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0.9% 이하)를 평가하는 지표로, 6개 기관 모두 2.00점 만점의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19%, 한식진흥원 0.6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0.71%, 축산환경관리원 0.7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7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모든 기관이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 0.90%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관이 기재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노사관계(3점)

- 노사관계 계량지표의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B(1.40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C(1.20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D+(1.00점), 축산환경관리원 D(0.8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법령 기준에 준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분기 내 운영을 위한 시점 준수가 요구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등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⑤ 혁신과 소통(4점 만점)

##### ○ 혁신 노력 및 성과(2점)

- 혁신 노력 및 성과 비계량지표의 경우 평가편람에 따라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1.00점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표에 대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60점(B+/B+),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각각 1.50점(B/B+, B/B+),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40점(B/B), 한식진흥원 1.30점(C/B), 축산환경관리원 1.10점(D+/C)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모두 나름대로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다만, 환경변화, 인력 구성 변화, 예상 변경 등의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연초 또는 전년도 말에 수립한 혁신추진계획을 100%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혁신추진계획과 더불어 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이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였으며,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소극행정 관련 감사가 접수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제정 및 직원교육, 사례 전파 실시 등이 요구되며 적극행정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 규정의 해석 등)하여 직원에 전파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이다.

### ○ 국민소통(2점)

- 국민소통 계량지표의 고객만족도 지표(1점 만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와 전년대비 향상도를 “농림축산식품부 (2021.10.) 「2021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0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0.96점, 한식진흥원 0.87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0.85점, 축산환경관리원 0.83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0.8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국민소통 계량지표의 경영정보공시 지표(1점 만점)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기재된 기관별 공시 종합 별점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의 배점 기준에 따라 가중치 1점에 적용하였다. 기관별 경영정보 공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별점 5.0점), 한식진흥원(별점 4.6점) 각각 0.60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별점 6.1점), 한식진흥원(별점 8.0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별점 9.0점) 각각 0.40점, 축산환경관리원(별점 23.0점) 0점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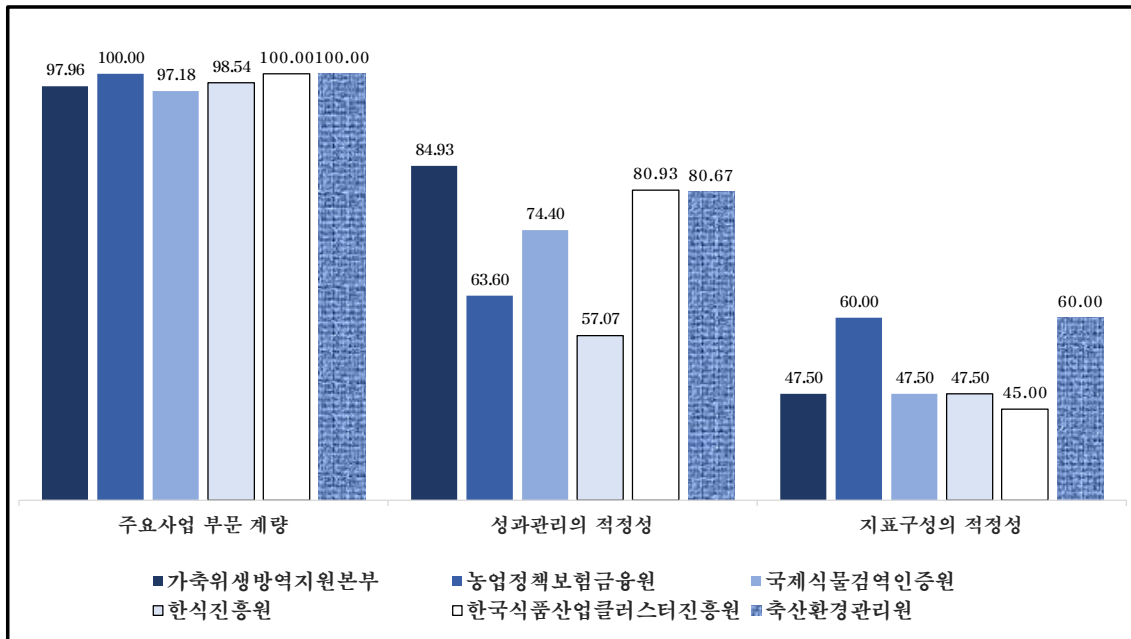
## ② 주요사업 범주

### (1) 종합 득점 결과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총 득점(55점 만점)을 살펴보면, 축산환경관리원 47.30점(86.00%)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45.87점(83.40%)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5.54점(82.80%)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4.74점(81.35%)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4.07점(80.14%) > 한식진흥원 41.85점(76.09%)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6개 기관 중 축산환경관리원이 계량지표 28.00점, 비계량지표 19.30점, 합계 47.3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계량지표 27.43점, 비계량지표 18.44점, 합계 45.87점을 획득하였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계량지표 28.00점, 비계량지표 17.54점, 합계 45.54점을 획득하였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계량지표 28.00점, 비계량지표 16.74점, 합계 44.74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계량지표 27.21점, 비계량지표 16.86점, 합계 44.07점을 획득하였고, 마지막으로 한식진흥원은 계량지표 27.59점, 비계량지표 14.26점으로 합계 41.85점을 획득하였다.
- 주요사업 범주 평가지표 중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총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이 28점(100.00%)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 27.59점(98.54%)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7.43점(97.96%),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7.21점(97.18%)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비계량지표)의 총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2.74점(84.93%)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2.14점(80.93%), 축산환경관리원 12.10점(80.6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1.16점(74.4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54점(63.60%), 한식진흥원 8.56점(57.07%)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의 총점은 축산환경관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7.20점(60.00%)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각각 5.70점(47.5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5.40점(45.00%) 순으로 높은 평가 득점을 획득하였다.

## &lt;2021년도 주요사업 범주 기관별 득점 분포&gt;

(단위 : %)



○ 기관별 주요사업 계량평가 종합평가 순위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100.00%) > 한식진흥원(98.54%)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7.96%) > 국제식물검역인증원(97.18%) 순으로 나타났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은 전체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100% 달성하여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 취득 총점을 비교 수행하였다. 대체적으로 점수는 2020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승한 기관은 한식진흥원(57.14%→98.5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97.96%→100.00%), 국제식물검역인증원(97.07%→97.18%)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9.39%→97.96%)로 나타났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주요사업 계량지표 취득 총점에서 변동이 없었다(100.00%→100.00%).



<2021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부문(계량지표) 점수 종합>

(단위 : 점, %)

구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평가지표	득점
1	시료채취 (4대 질병) 달성률	8.00 (100.00)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8.00 (100.00)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14.79 (98.62)	한식 콘텐츠 활용도	4.00 (100.00)	분양기업 유치 성과	8.00 (100.00)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	7.00 (100.00)
2	시료채취(AD) 달성률	4.00 (100.00)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2.00 (100.00)	안전사고 예방률	5.00 (100.00)	해외 한식당 지원 노력 효과	4.00 (100.00)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6.00 (100.00)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5.00 (100.00)
3	농장예찰(예찰 실시 결과보고) 달성률	4.00 (100.00)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6.00 (100.00)	AGM 예찰 활동률	3.86 (96.60)	한식체험프로그램 만족도	4.83 (96.60)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5.00 (100.00)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6.00 (100.00)
4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7.00 (100.00)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4.00 (100.00)	수입제식용식품 검역장소 관리 성과	3.56 (89.00)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	3.00 (100.00)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3.00 (100.00)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4.00 (100.00)
5	수입식육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4.43 (88.60)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4.00 (100.00)	-	-	한식교육기관 교육 수료자 취·창업	4.76 (95.20)	기업지원 新 인프라 구축 성과	5.00 (100.00)	축산환경 컨설팅트 양성실적	4.00 (100.00)
6	-	-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4.00 (100.00)	-	-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5.00 (100.00)	안전사고 제도화 이행	1.00 (100.00)	교육·컨설팅 만족도	2.00 (100.00)
<b>총점 (28)</b>	<b>27.43 (97.96)</b>	<b>28.00 (100.00)</b>	<b>27.21 (97.18)</b>	<b>27.59 (98.54)</b>	<b>28.00 (100.00)</b>	<b>28.00 (100.00)</b>	<b>28.00 (100.00)</b>					
순위	5	1	6	4	1	1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종합평가 순위는 축산환경관리원(71.48%)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68.30%)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64.96%) > 국제식물검역인증원(62.44%) > 농업정책보험금융원(62.00%) > 한식진흥원(52.81%)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사업 비계량지표 취득 총점을 비교 수행하였다. 점수는 2020년 대비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다. 상승한 기관은 한식진흥원(46.59%→52.81%)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기관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74.67%→62.4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75.56%→64.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78.30%→68.30%), 농업정책보험금융원(65.81%→62.00%)으로 나타났다.

### <2021년도 기관별 주요사업 비계량 평가점수 종합>

(단위 : 점, %)

평가지표	가중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성과관리의 적정성	15	12.74 (84.93)	9.54 (63.60)	11.16 (74.40)	8.56 (57.07)	12.14 (80.93)	12.10 (80.67)
지표구성의 적정성	12	5.70 (47.50)	7.20 (60.00)	5.70 (47.50)	5.70 (47.50)	5.40 (45.00)	7.20 (60.00)
<b>총점</b>	<b>27</b>	<b>18.44</b> <b>(68.30)</b>	<b>16.74</b> <b>(62.00)</b>	<b>16.86</b> <b>(62.44)</b>	<b>14.26</b> <b>(52.81)</b>	<b>17.54</b> <b>(64.96)</b>	<b>19.30</b> <b>(71.48)</b>
순위		2	5	4	6	3	1

※ 괄호 속의 사항은 100점 만점 비율임.

## (2) 지표별 평가결과

- 6개 기관이 공통으로 계량지표에서는 일부 항목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나, 비계량지표는 기관별 득점 편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관에서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이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와 비교하여 득점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축산환경관리원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제외한 4개 기관이 평균 수준 이하의 득점을 취득한바, 기관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의 대표성을 가진 성과지표의 선정, 목표치의 도전성 확보 등이 더욱 심도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주요사업 계량평가(28점 만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8점 만점), 시료 채취(AI) 달성률(4점 만점), 농장예찰(예찰실시 결과보고) 달성률(4점 만점), 축산물위생사업(7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수입식용축산물 현물 검사사업은 4.43점(88.60%)을 획득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정책자금검사 실시율(8점 만점),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2점 만점),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6점 만점),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4점 만점), 모태펀드 출자 승수 비율(4점 만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4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안전사고 예방률(5점 만점)에서 만점을 획득하였고,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은 14.79점(98.60%), AGM 예찰 활동을 3.86점(96.50%), 수입재식용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는 3.56점(89.00%)을 획득하였다.
- 한식진흥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한식 콘텐츠 활용도(4점 만점), 해외 한식당 지원 노력 효과(4점 만점),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3점 만점),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5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고, 한식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4.83점(96.60%), 한식교육기관 교육 수료자 취·창업 4.76점(95.20%)을 획득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분양기업 유치 성과(8점 만점),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6점 만점),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5점 만점),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3점 만점),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5점 만점), 안전사고 제로와 이행(1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평가결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7점 만점),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5점 만점),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6점 만점),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4점 만점), 축산환경건설턴트 양성 실적(4점 만점), 교육·컨설팅 만족도(2점 만점)에서 모두 만점을 획득하였다.
- 전체 기관이 다양한 환경적 제약이 발생함에도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여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나, 지표의 실적 임계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요사업 지표가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할지에 관한 내용 및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 ② 성과관리의 적정성(15점 만점)

-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12.74점(84.93%)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2.14점(80.93%), 축산환경관리원 12.10점(80.67%),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1.16점(74.4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54점(63.60%), 한식진흥원 8.56점(57.07%) 순으로 평가득점을 획득하였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은 주요사업의 성과관리가 대체로 평균 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각 기관의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실적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으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미흡점이 나타나 그에 따른 보완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향후 기관이 강화해야 할 사업과 축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강화해야 할 분야(예, 질병관리등급제, 드론방역, 교육)와 점진적 축소가 필요한 분야(예, 4대 질병 시료채취)를 발굴하여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SWOT 분석을 통해 피투자경영체 기업가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라는 약점보완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관련 세부실행계획에는 농식품경영체 on-Demand 지원체계를 통한 혁신성장 마련이라는 1개의 세부실행계획만이 선정되었다.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검사원의 전문적인 교육 강화를 적절히 수행하여 제한적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거나,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투입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기관 차원의 정규직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식진흥원은 대체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진행방식과 한식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산업단지 개념 진화(단순 제조형태에서 융복합형태로 진화)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만의 특성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14년부터 추진된 장비 도입 사업이 22년에 완료됨에 따라, 단순히 장비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타 기타공공기관에 비하여, 재무·예산·조직·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③ 지표구성의 적정성(12점 만점)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한 평가결과, 축산환경관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각각 7.20점(60.00%)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각각 5.70점(47.5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5.40점(45.00%) 순으로 나타났다.
- 6개 기관 공통으로 주요사업 대표지표 선정을 위해 SMART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현재의 계량지표가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격을 대표하는 지표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각 기관의 주요사업 성격에 맞는 계량지표 개발 및 선정 방식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의 대표성 제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왜곡가능성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특히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의 경우, 검사단계에서 이상 건수가 발생하는 비율은 검사대상의 상태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성을 지니는 지표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자의적 목표 설정 가능성, 질적 우수성 반영 미비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증점점검 대상 관리노력 지표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형태를 띄고 있는데, 목표가 자의성을 지닐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요소의 하나인 '성과의 왜곡가능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관리 노력 지표의 경우, 상품 제도 개선 건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단순 건수 증가가 성과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 국제식품검역인증원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왜곡가능성, 비효율적 결과 유인 가능성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AGM예찰 활동률의 경우,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조사 시작시점을 앞당기거나 조사주기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 조사시기 및 주기를 줄일 필요가 없다면 자칫 지표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한식진흥원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결과단계 효과성 분석 Tool에 해당,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왜곡 가능성, 실적 측정 기준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한식콘텐츠 활용도는 한식콘텐츠 제공건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식교육기관 교육생 취·창업률의 경우 외부 효과에 의한 성과왜곡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취·창업률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이것이 과연 한식진흥원의 노력으로 달성된 것이냐에 대한 논리 보완이 요구된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의 대표성 및 책임 및 권한 적합성 제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왜곡가능성, 지수화로 인한 성과왜곡 가능성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과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 지표의 경우, 공기준수를 및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측정하고 있다. 해당 지표의 경우 성과대표성 및 책임 및 권한의 적합성 등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에는 다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창업·사업화 연계지표의 경우 지표를 지수화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활용하는 성과지표의 경우 기관 활동과의 연계성 부족,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왜곡 가능성, 자의적 실적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의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축산환경관리원의 노력 여하와 별개로 그 해에 우수한 상태의 농장들이 얼마나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표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축순환농업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의 경우 화학비료 구매 비용은 해당 연도의 지자체 지원, 화학비료 금액 변동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과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 3. 기관별 주요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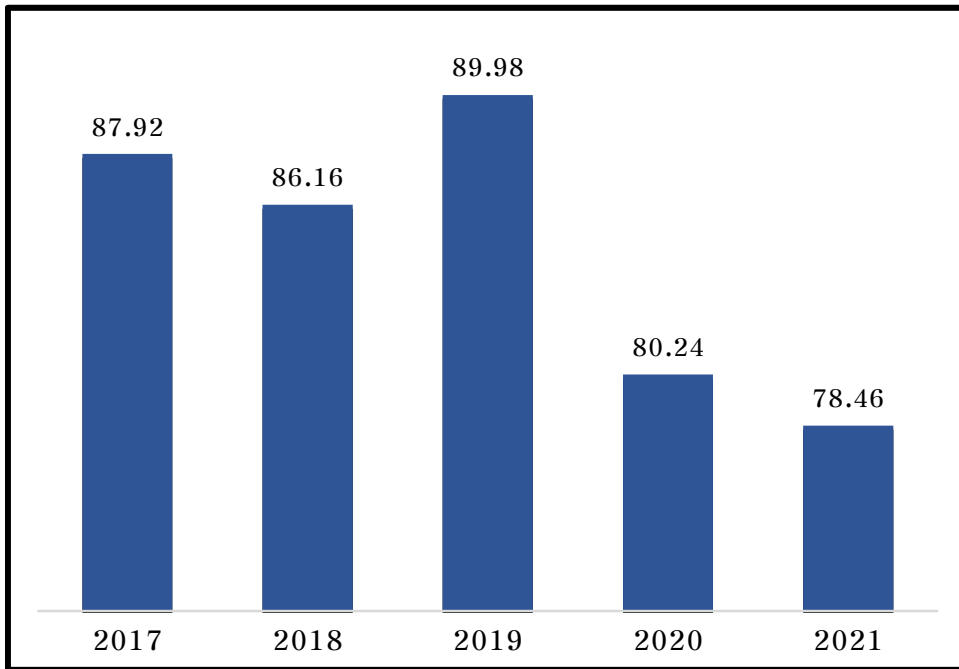
#### 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78.46점으로 '20년도(80.24점)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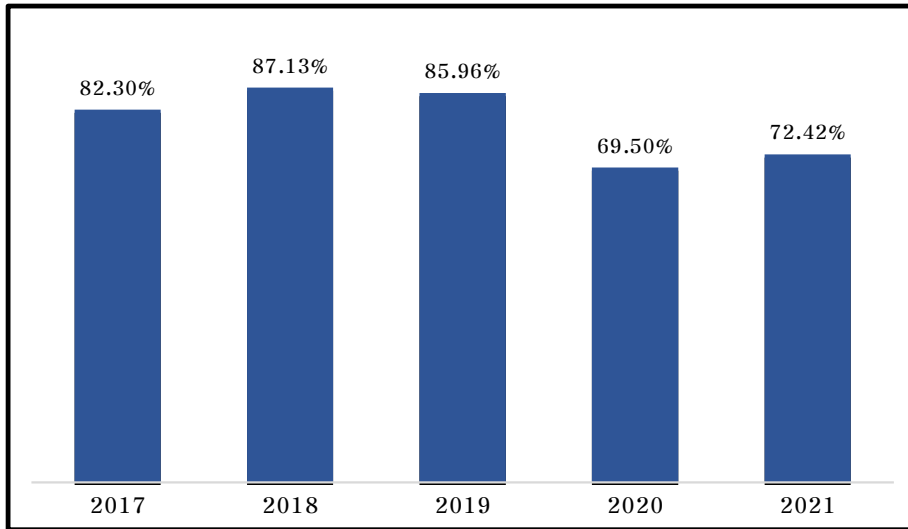
- '20년에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년에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대거 개선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근 5개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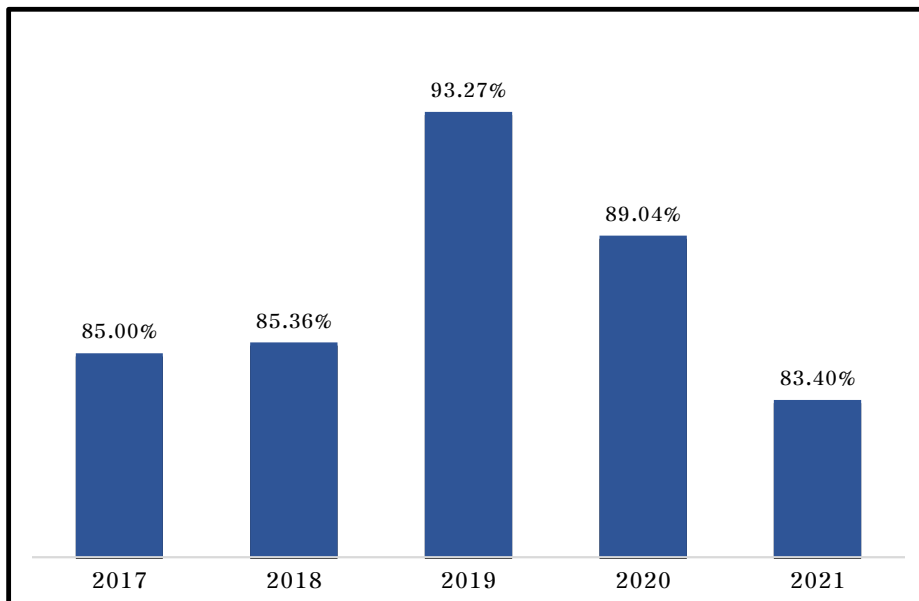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20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1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요사업 범주 성과는 '20년, '21년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t;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근 5개년 경영관리 득점&gt;



&lt;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근 5개년 주요사업 득점&gt;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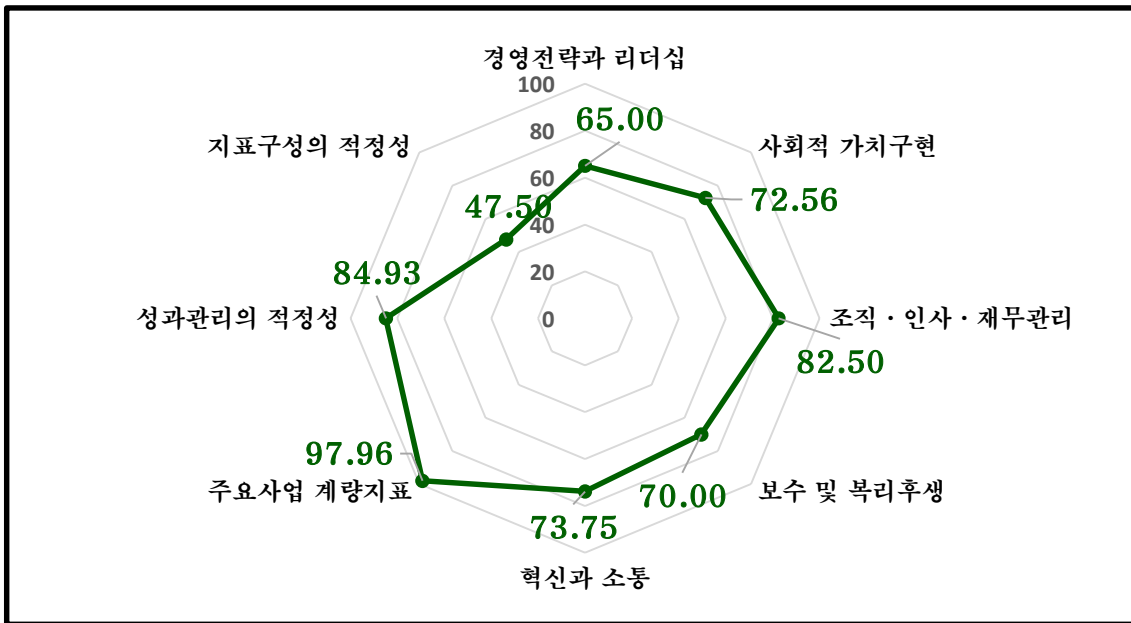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전략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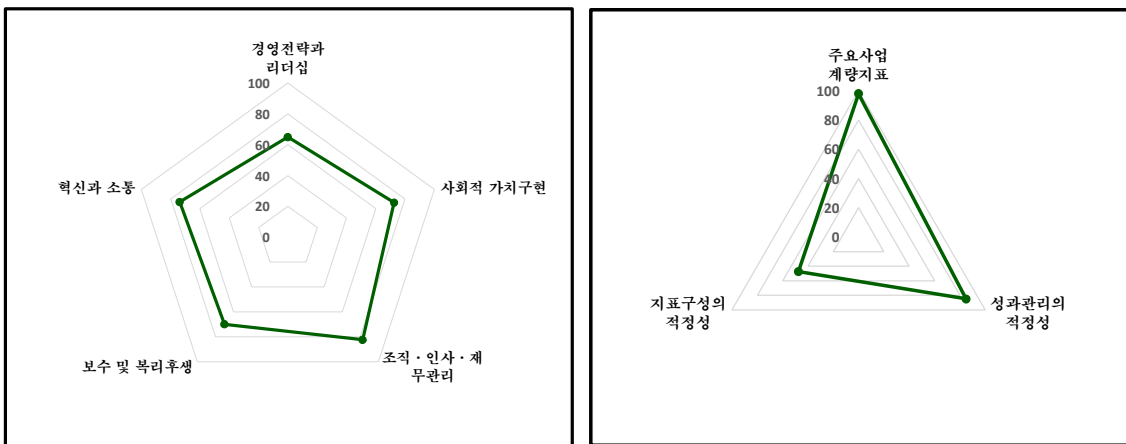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1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1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2.59/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분야별 문제점과 경영개선방향 간 상호 연계성을 보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경영개선과 관련하여

기관 임무 분야별·기능별·요소별 문제점 또는 목표 대비 현 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 내 가치체계 및 핵심가치 공유·내재화 노력, 평가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가내용에 따른 성과제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적합업무 발굴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노력 등 기관이 수행한 사항의 성과제시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되었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최근 5년 예산집행률은 모두 98% 이상으로 우수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환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에 가까운 예산집행률을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합리적 직무급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직원의 내부 니즈가 파악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종 직무급제 설명회가 '22년 1월에 실시되는 등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혁신과 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소극행정 관련 감사가 접수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적극행정 사례,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미진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② 주요사업(45.87/55점)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치는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축산물 위생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평가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향후 기관이 강화해야 할 사업과 축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강화해야 할 분야(예, 질병관리등급제, 드론방역, 교육)와 점진적 축소가 필요한 분야(예, 4대 질병 시료채취)를 발굴하여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 평가결과, 성과의 대표성 제한, 외부 환경으로 인한 성과 왜곡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의 경우, 검사단계에서 이상 건수가 발생하는 비율은 검사대상의 상태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성을 지니는 지표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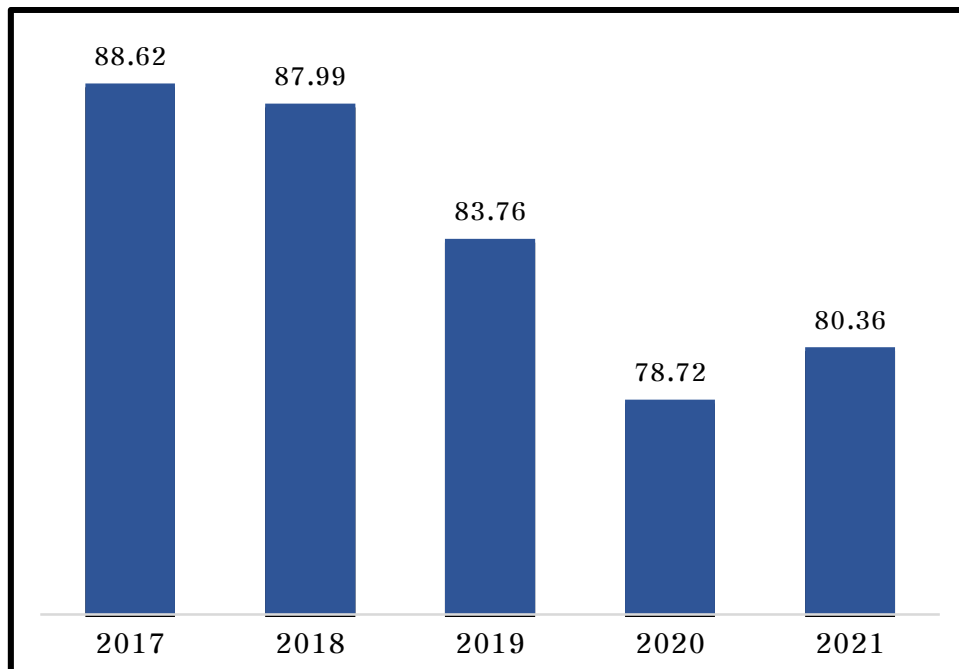
##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1) 총 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80.36점으로 '20년도(78.72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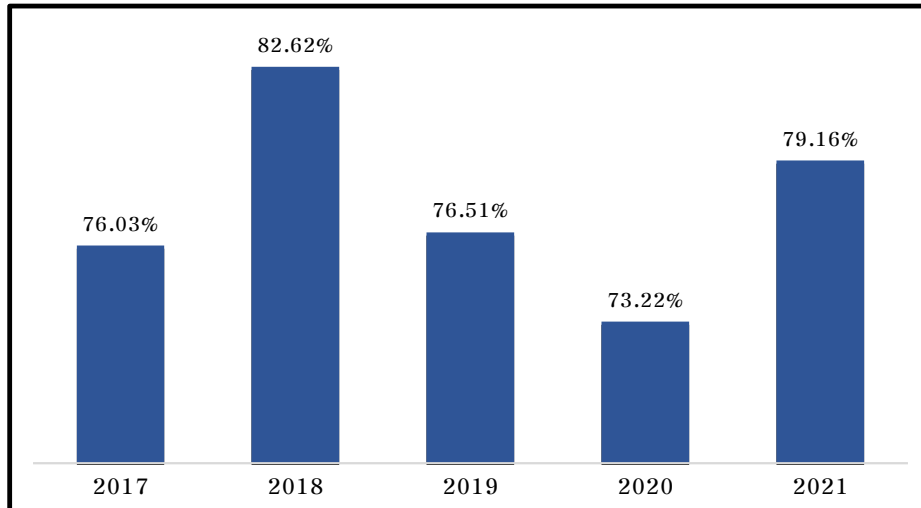
- '20년에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년에 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가 대거 개선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최근 5개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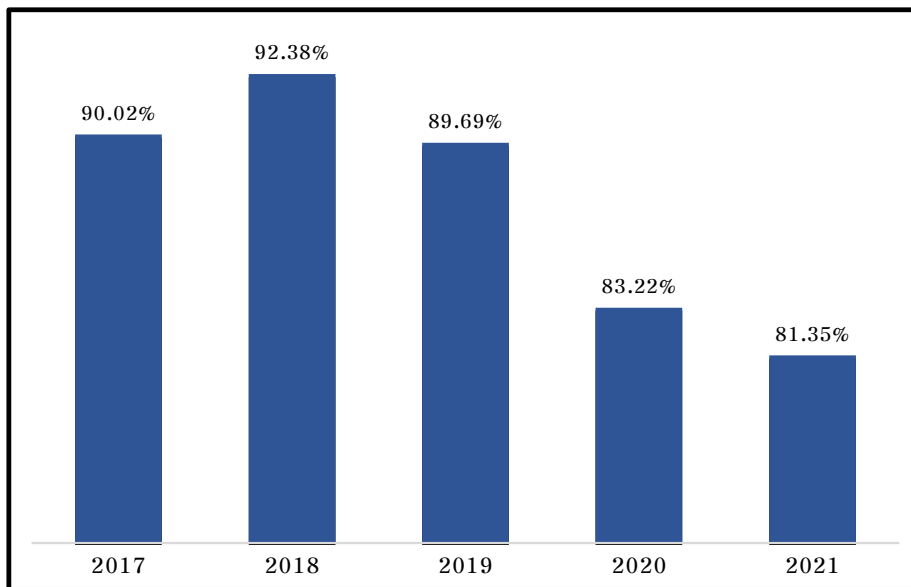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20년에 다소 하락하였다가 '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요사업 범주 성과는 '20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1년에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t;농업정책보험금융원 최근 5개년 경영관리 득점&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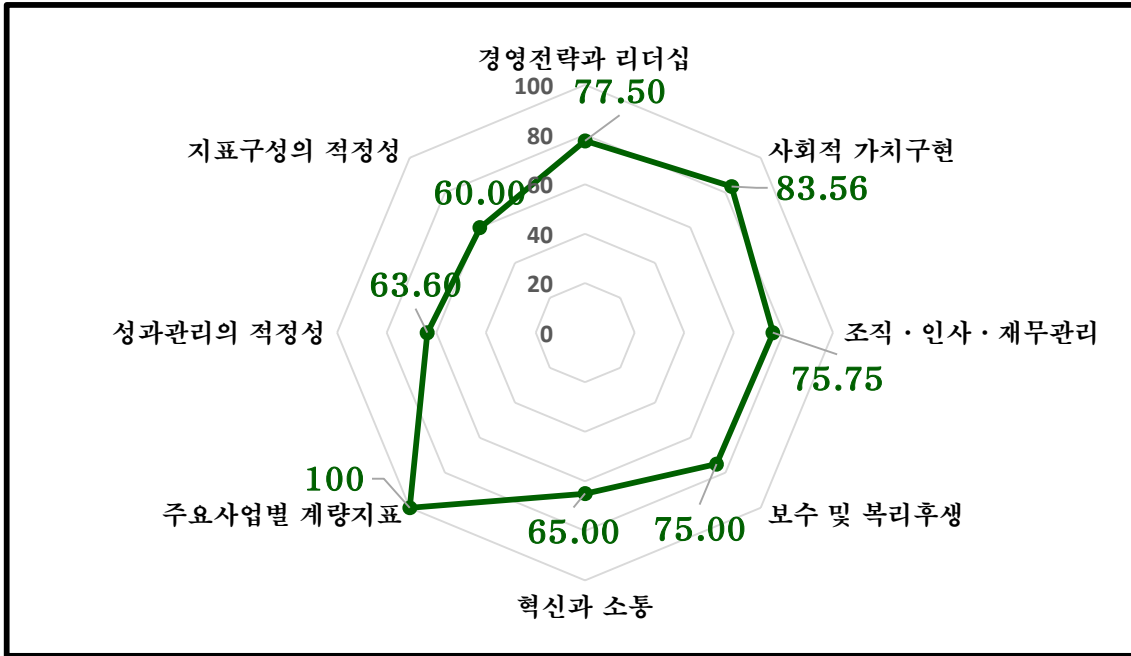
&lt;농업정책보험금융원 최근 5개년 주요사업 득점&gt;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과 소통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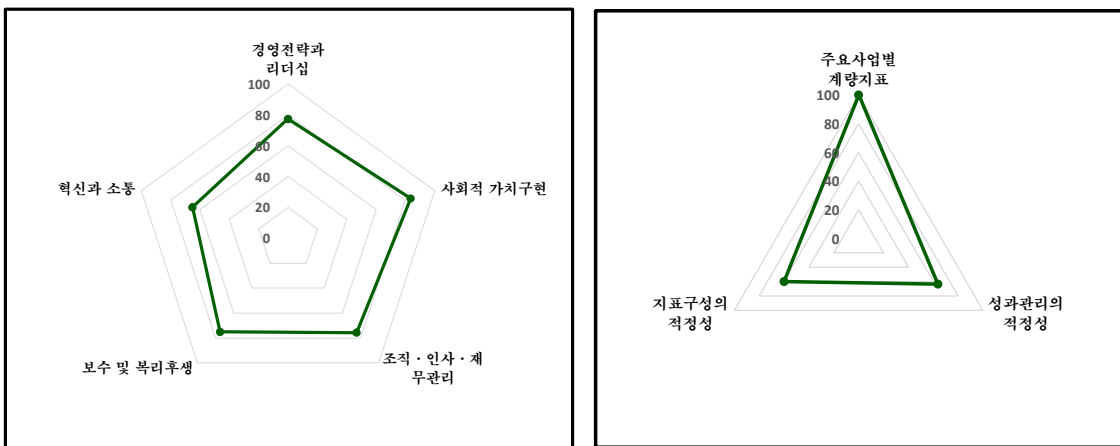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1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1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5.62/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핵심가치의 내재화 및 실질적인 구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100% 달성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비교적 연간 계획에 맞추어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편람 및 매뉴얼 등을 확인한 결과, 비교적 적절하게 수립이 되어있으나, 매뉴얼 별로 일부 수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매뉴얼 및 편람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현 직무체계 포괄성 부족(2직군, 5직렬, 28직무), 사업별 상이한 업무특성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23년까지 보수체계 확립 로드맵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다.
- 혁신과 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모든 TF팀이 참여하여 2개의 혁신중점과제를 선정(업무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데이터·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한 뉴딜추진)하였으며, 선정된 중점추진과제의 성과 또한 기관 임무에 맞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주요사업(44.74/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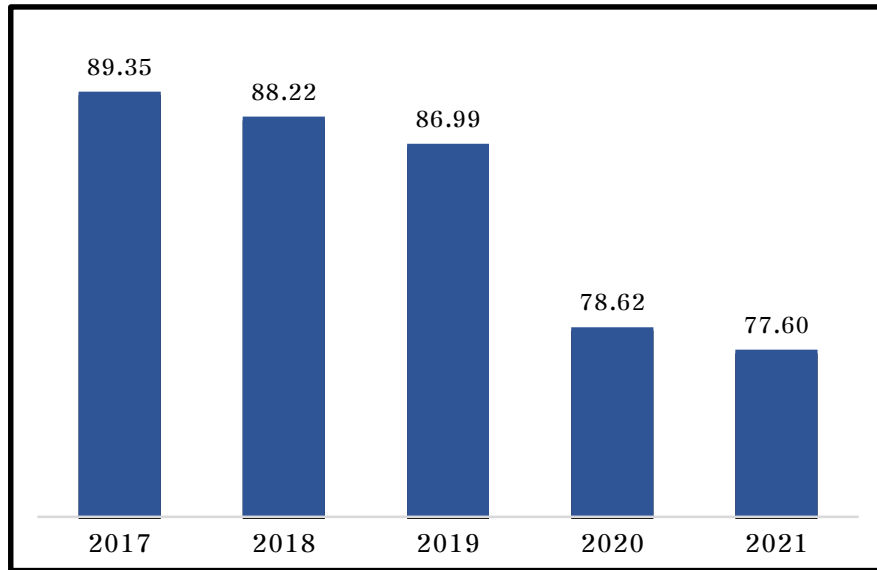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SWOT 분석을 통해 피투자경영체 기업가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라는 약점보완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관련 세부실행계획에는 농식품경영체 on-Demand 지원체계를 통한 혁신성장 마련이라는 1개의 세부실행계획만이 선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중점점검 대상 관리노력 지표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형태를 띄고 있는데, 목표 설정이 자의성을 지닐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요소의 하나인 '성과의 왜곡가능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관리 노력 지표의 경우, 상품 제도 개선 건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단순 건수 증가가 성과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1) 총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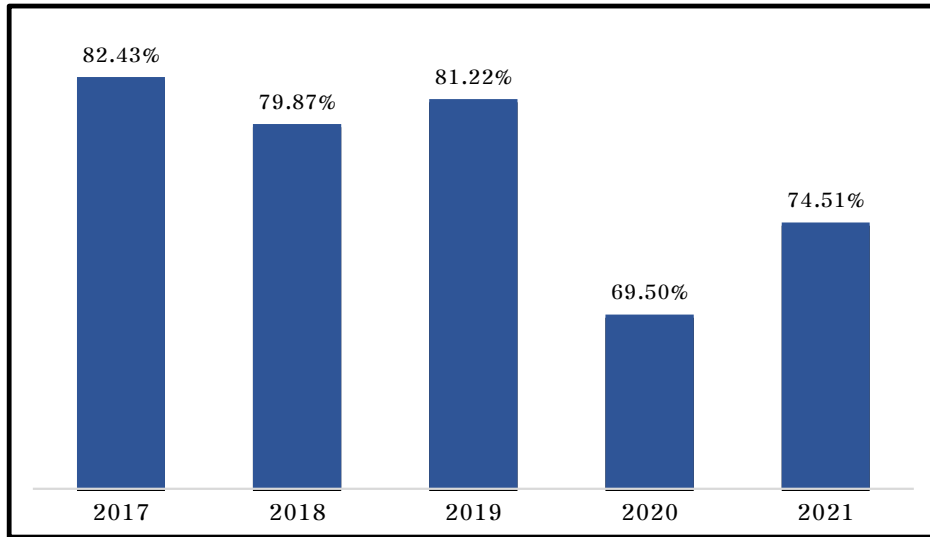
- 경영실적 평가결과 77.60점으로 '20년도(78.62점)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 '20년에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20년에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대거 개선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최근 5개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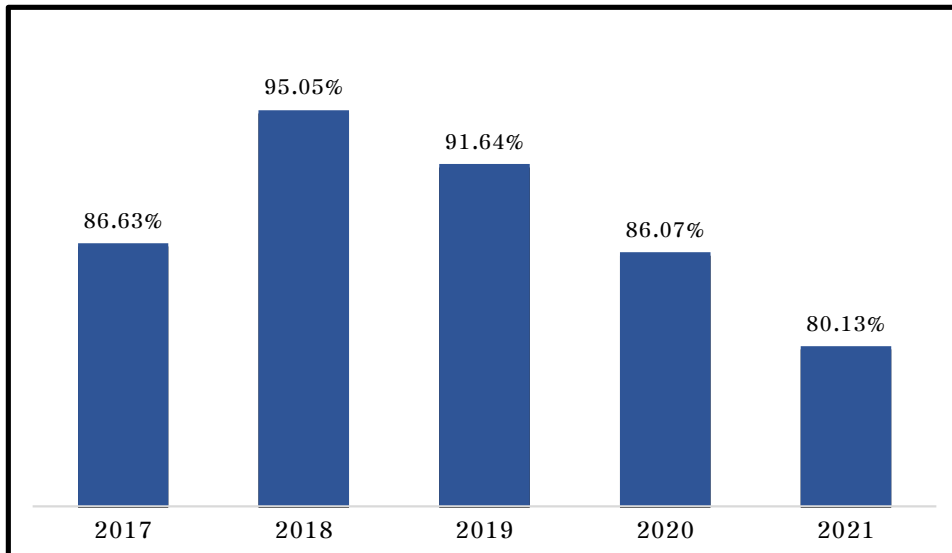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20년에 다소 하락하였다가 '2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주요사업 범주 성과는'20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21년에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lt;국제식물검역인증원 최근 5개년 경영관리 득점&gt;



&lt;국제식물검역인증원 최근 5개년 주요사업 득점&gt;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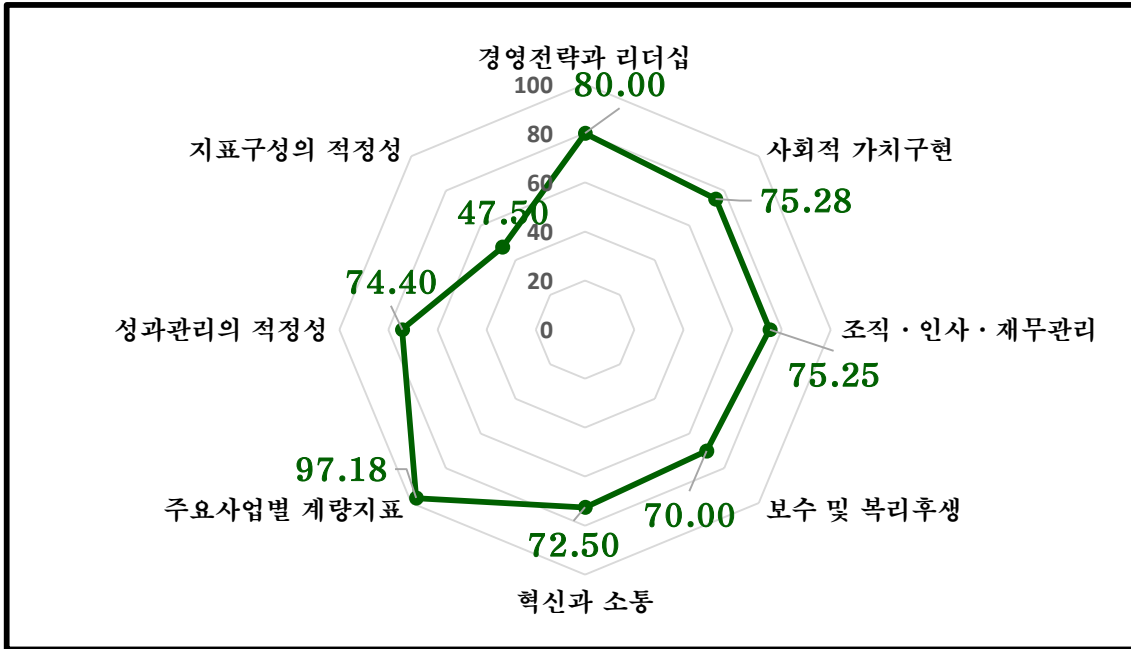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경영전략과 리더십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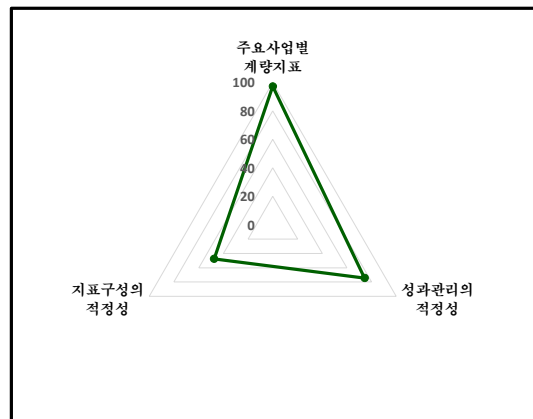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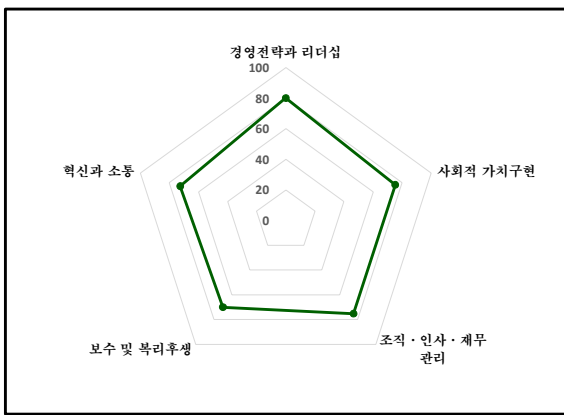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1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1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3.53/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핵심가치의 내재화 및 실질적인 구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계량지표의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100% 달성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연말에 예산집행이 다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은 감사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 보직 간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환보직이 잦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매뉴얼을 잘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직원의 복지 관련 만족도가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며, 노측 안전을 수렴한 근로조건 개선, 동호회 참여자수,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참여자가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다.
- 혁신과 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정규 일자리 창출(4명),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녹색제품 구매확대, AGM 대발생 지역 전담인력 비치 등 기관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제시한 기관장의 성과는 혁신과 연계된 점이 확인되었으며,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 또한 기존에 비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기관의 10대 추진과제가 모든 기관에서 선정되어도 무방할 만큼 국제식품검역인증원만의 특색이 없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② 주요사업(44.07/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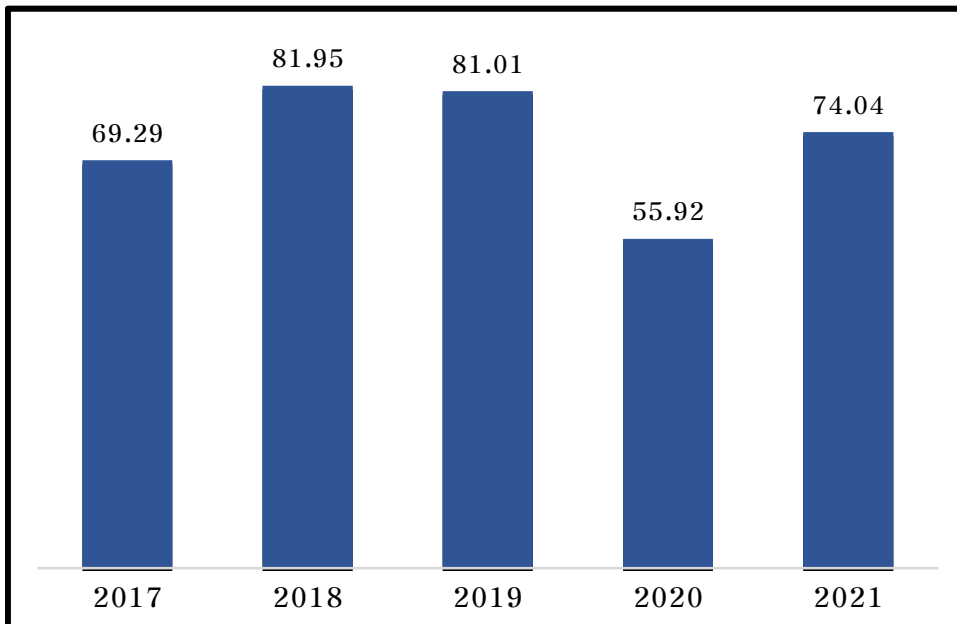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안전사고 예방률을 제외한 지표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감사원의 전문적인 교육 강화를 적절히 수행하여 제한적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나,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투입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기관 차원의 정규직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AGM예찰 활동률의 경우,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조사 시작시점을 앞당기거나 조사주기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 조사시기 및 주기를 줄일 필요가 없다면 자칫 지표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 왜곡 가능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

#### 4 한식진흥원

##### (1)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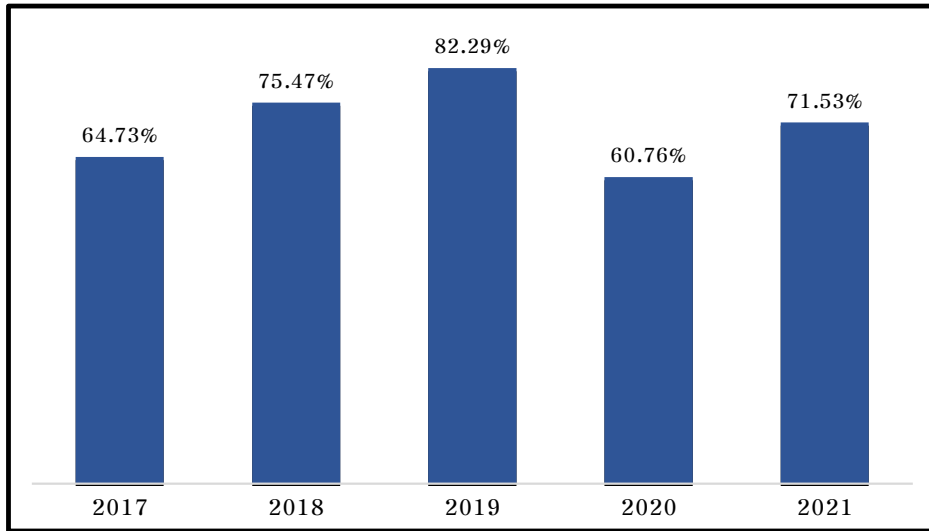
- 경영실적 평가결과 74.04점으로 '20년도(78.62점) 대비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평가점수 미반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년에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년에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대거 개선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식진흥원 최근 5개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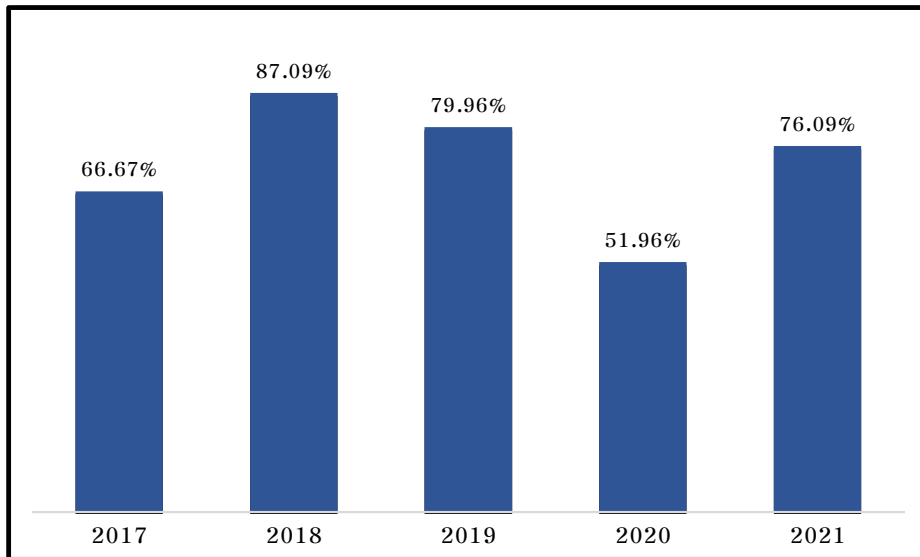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20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1년에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요사업 범주 성과 또한 '20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21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년 주요사업 범주 성과 득점이 대폭 상승한 것은 전년도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평가점수 미반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lt;한식진흥원 최근 5개년 경영관리 득점&gt;



&lt;한식진흥원 최근 5개년 주요사업 득점&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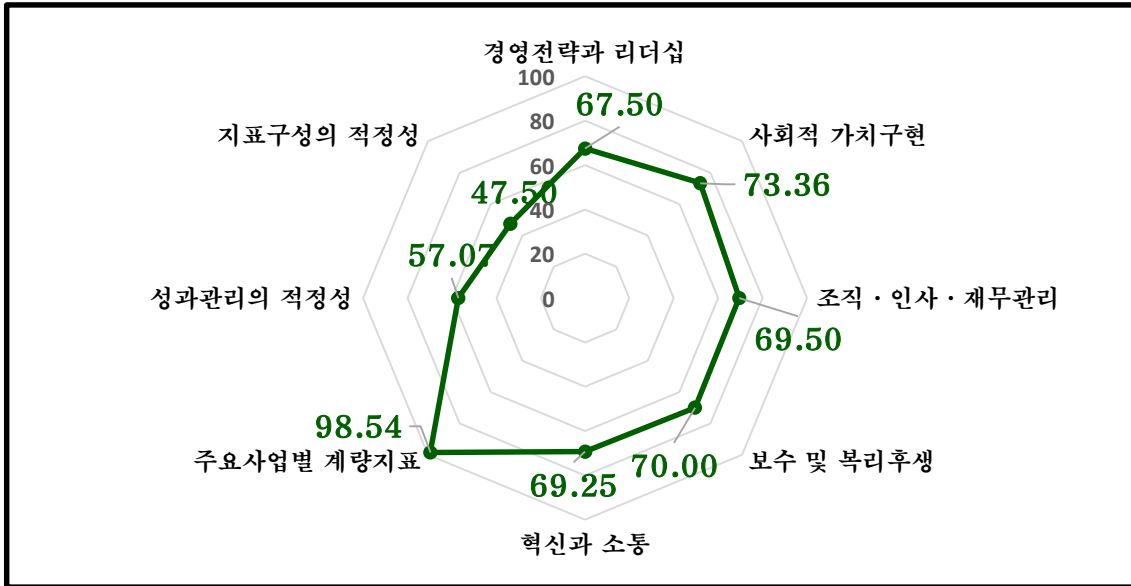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전략과 리더십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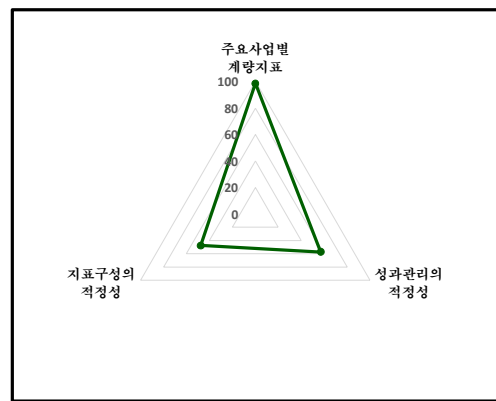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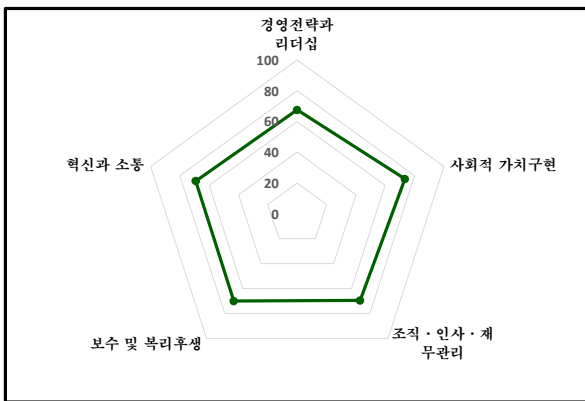
<한식진흥원 '21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한식진흥원'21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2.19/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가치체계 및 핵심가치 공유·내재화 노력, 평가편람에서 제시하는 평가내용에 따른 성과제시 노력이 요구되며, 경영평가, 자체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기관의 분야별 역량수준을 고려한 종합적 경영개선계획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고졸 적합 업무, 다문화 가족 적합 업무 등 평가 세부사항과 연계된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노력이 요구되며,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위한 노력(가점제도, 홍보 등)은 사회형평적 차원, 국가자원의 적극적 활용 차원에서 개선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연도별 예산집행률 편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불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19년 외부전문기관의 직무분석, 직무기술서(NCS코드부여)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20년을 기점으로 한식진흥법, 조직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기관이므로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 반영에 기존 제시된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혁신과 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노사입장을 반영한 상생전략, 합리적 협력관계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 '20년에 비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양한 노사관계 소통창구가 열린점이 고무적이며, 직원의 교육, 노사협의회를 통한 성과 등 활동이 인정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시한 '21년의 활동이 타기관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② 주요사업(41.85/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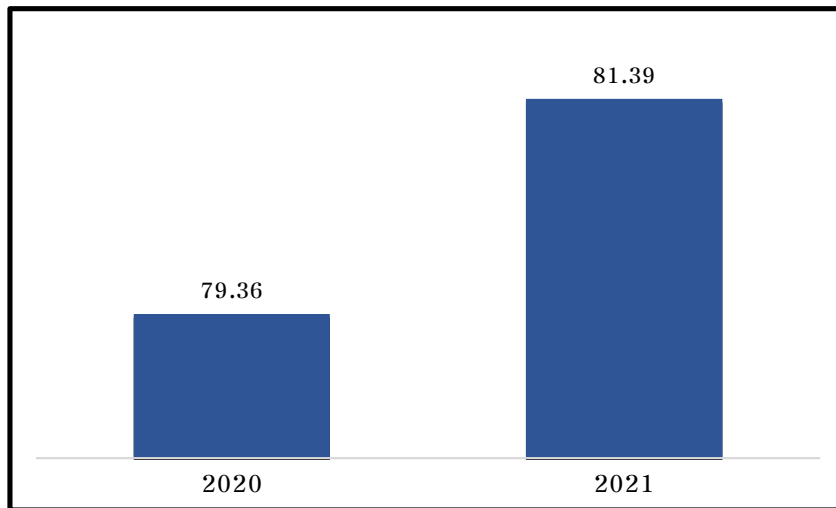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한식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한식교육기관 교육 수료자 취·창업 지표를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대체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진행방식과 한식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한식콘텐츠 활용도는 한식콘텐츠 제공건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실적 측정 기준의 합리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콘텐츠 제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식교육기관 교육생 취·창업률의 경우 외부 효과에 의한 성과왜곡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취·창업률 목표를 달성했다라도 이것이 과연 한식진흥원의 노력으로 달성된 것이냐에 대한 논리 보완이 요구된다.

##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1) 총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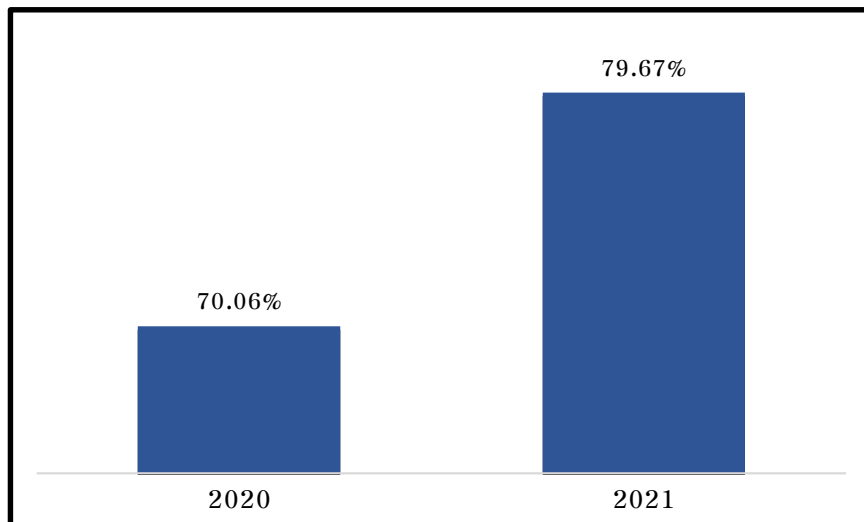
- 경영실적 평가결과 81.39점으로 '20년도(79.36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최근 5개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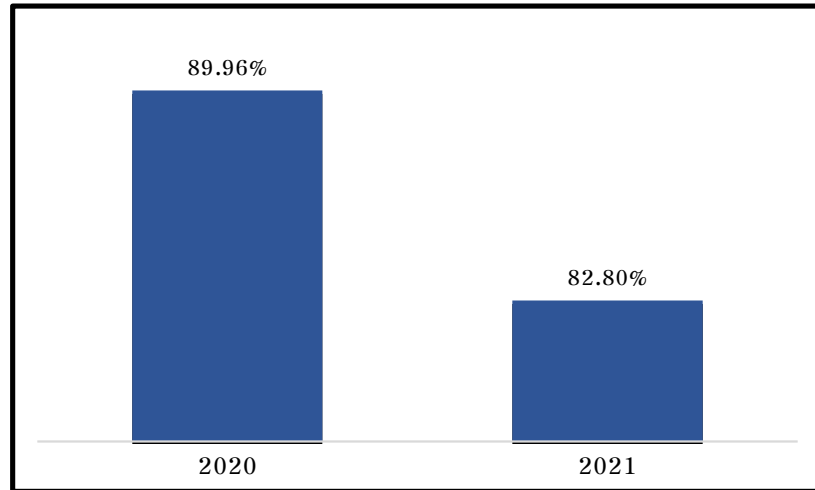


-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21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주요사업 범주 성과 또한 '21년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최근 5개년 경영관리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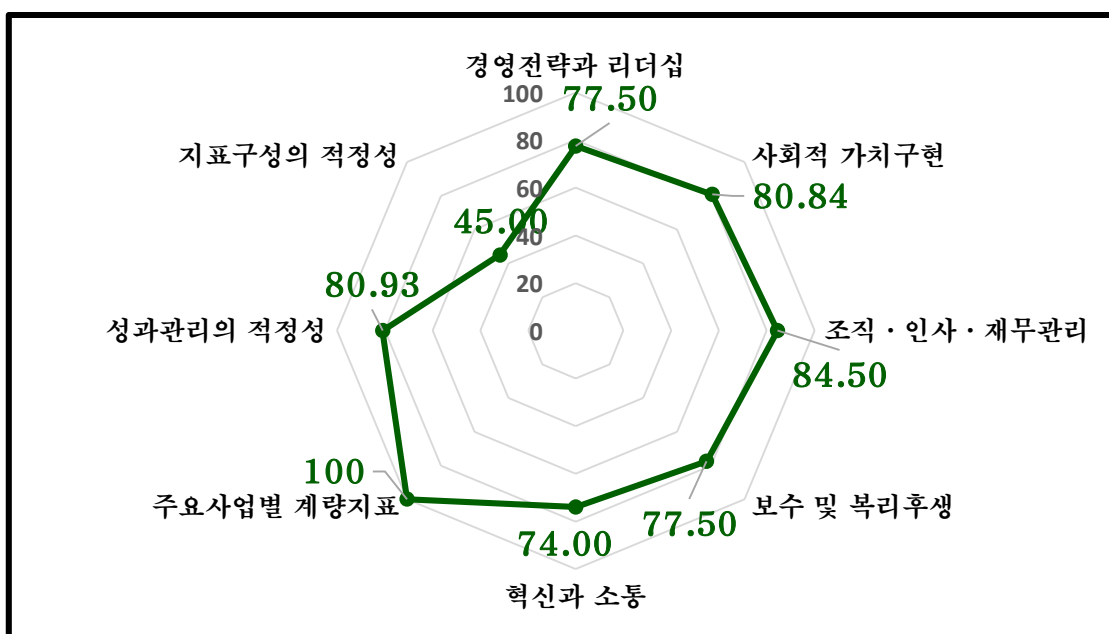
&l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최근 5개년 주요사업 득점&gt;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과 소통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1년도 종합 분포&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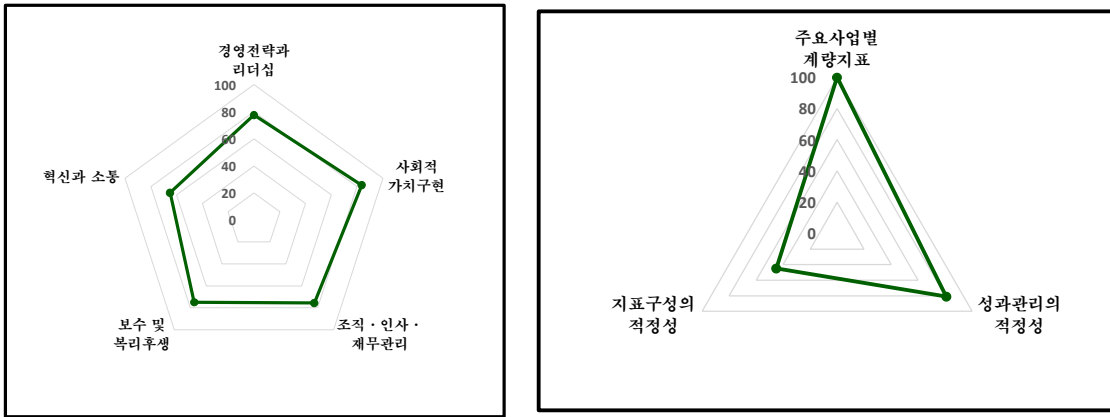
단위 : 점 (100점 환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21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2) 범주별 주요평가

① 경영관리(35.85/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핵심가치의 내재화 및 실질적인 구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및 기관의 현안과제별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정립 등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력에 비해 계량실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개인평가의 평가기준은 역량평가(리더십, 협조성, 직무능력)/성과평가(개인KPI)/조직평가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반영되는데, 성과상여금이 100~300% 3배 격차로 상당히 차등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 평가체계 및 결과의 환류 수준을 고려할때는 성과중심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합리적 보수체계를 위한 직무급제 전환은 초기 단계이나, 전년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 현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21년 외부용역을 통해 직무급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노사합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 공감대 확보 등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다.

- 혁신과 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중점추진과제로 시설장비지원, 식품창업 전문교육 및 시제품제작지원을 제시하였는데 기관특성에 맞는 중점추진과제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양적인 성과제시와 더불어 질적인 성과제시도 가능할 기관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중점추진과제의 질(효과성)적인 측면제시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 ② 주요사업(45.54/5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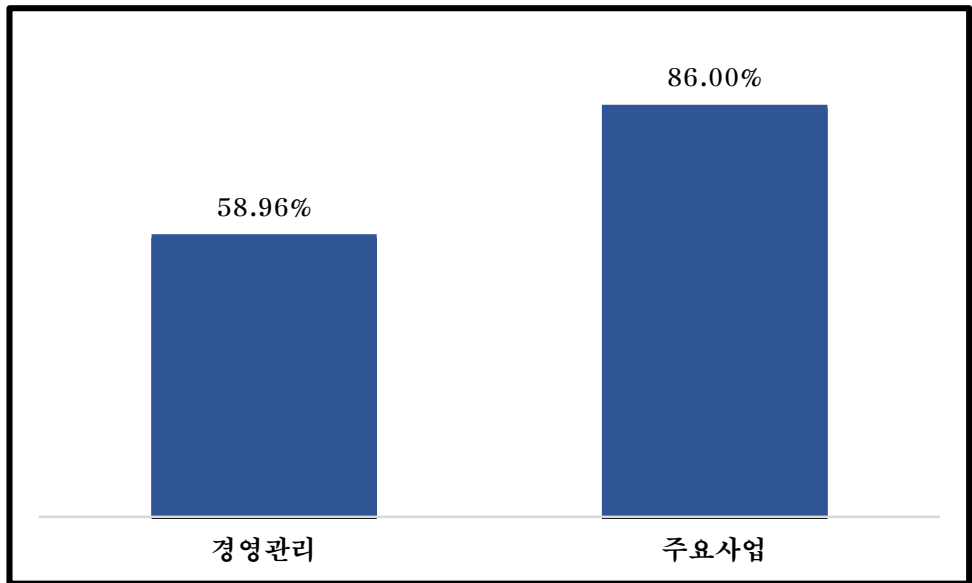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산업단지 개념 진화(단순 제조형태에서 융복합 형태로 진화)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만의 특성화 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14년부터 추진된 장비 도입 사업이 22년에 완료됨에 따라, 단순히 장비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통해 산업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이 요구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과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 지표의 경우, 공기준수율 및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측정하고 있다. 해당 지표의 경우 성과대표성 및 책임 및 권한의 적합성 등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에는 다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창업·사업화 연계지표의 경우 지표를 지수화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축산환경관리원

(1) 종합

- 경영실적 평가결과 73.83점으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처음 받았으며, 경영관리 범주 성과는 타 기관 대비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 범주 성과는 타 기관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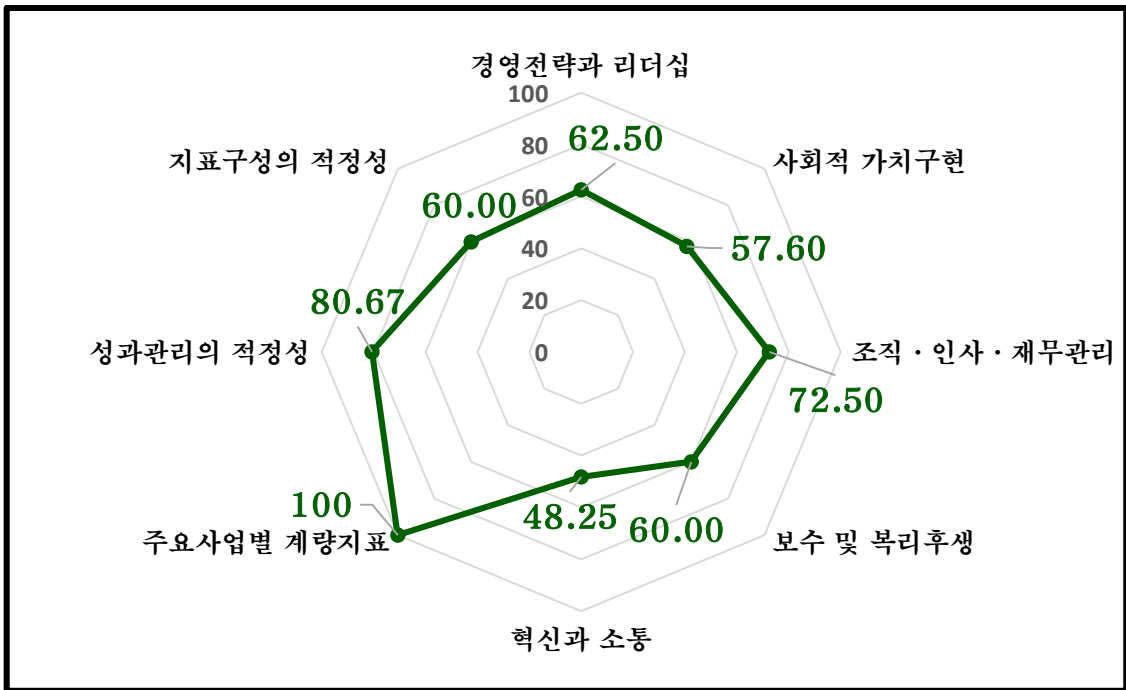
<축산환경관리원 '21년도 범주별 득점>



- 종합 득점을 살펴보면, 주요사업별 계량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과 소통 지표가 가장 낮은 득점을 보였다.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 득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과 소통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주요사업별 계량지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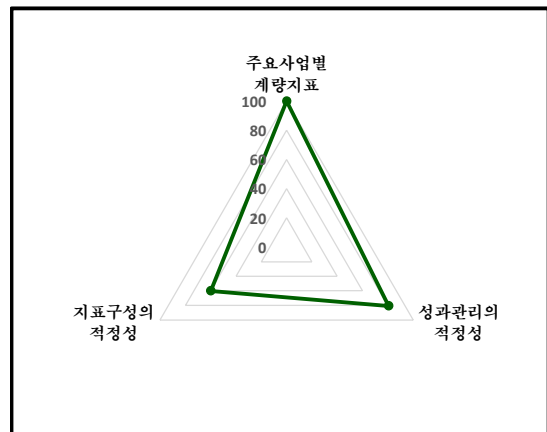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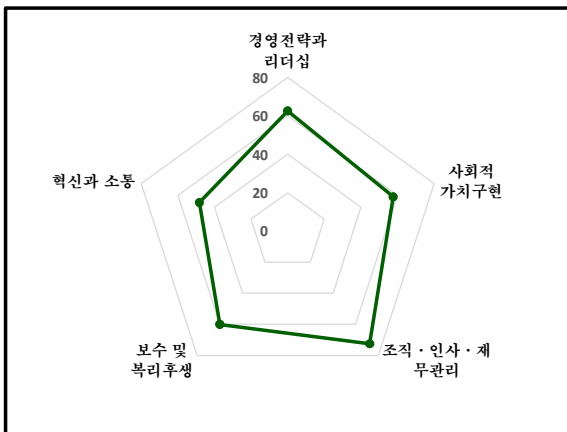
<축산환경관리원 '21년도 종합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축산환경관리원 '21년도 범주별 분포>

단위 : 점 (100점 환산)



## (2) 범주별 주요평가

### ① 경영관리(26.53/45점)

- 경영전략 및 리더십에 대한 평가결과, 가치체계 인식수준 진단결과 분석 및 핵심가치 요소의 적절성·충분성 검토에서 다소 미진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임무 분야별·기능별·요소별 문제점 또는 목표 대비 현 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가치구현에 대한 평가결과, 축산환경관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고용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인권교육, 갑질·고충상담 등 윤리경영을 위한 활동이 타 기관에 비하여 미진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 혁신과 소통에 대한 평가결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내, 외부의 역할분담이 적절해 보이며, 주요역할별 회의주기 등도 적절하다.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19년 대비 2배 이상 운영하였으며, 보상체계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조직·인사·재무관리에 대한 평가결과, 인력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충원 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들에 대한 업무량 및 직무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조직이 얼마만큼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이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신규사업 인력 충원과 관련된 요구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조직 최적화를 위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서간, 개인간 업무량을 분석하고, 부서 간 업무량 편차 및 부서 내 업무량 편차를 줄이는 등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평가결과,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편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료비, 건강검진비, 기념품 등, 경조사비,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관련지침 및 내부대상자가 있었는지는 등 정부기준을 준수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② 주요사업(47.30/55점)

-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기관의 주요사업 계량지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타 기타공공기관에 비하여, 재무·예산·조직·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표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의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축산환경관리원의 노력 여하와 별개로 그 해에 우수한 상태의 농장들이 얼마나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표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대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경축순환농업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의 경우 화학비료 구매 비용은 해당연도의 지자체 지원, 화학비료 금액 변동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과 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

### Ⅲ.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





# 1.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4	-	2.60	-	-
	(1) 전략기획	2	B	1.40	-	-
	(2) 경영개선	1	C	0.60	-	-
	(3) 리더십	1	C	0.60	-	-
	<b>2. 사회적 가치구현</b>	19	-	12.70	6	5.44
	(1) 일자리 창출	5	C	3.00	2	1.99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40	1	0.70
	(3) 안전 및 환경	5	B+/B+	4.10	-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C	1.20	3	2.65
	(5) 윤리경영	5	C	3.00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3	-	2.30	1	1.00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제고)	2	B	1.40	-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A	0.90	1	1.00
	<b>4. 보수 및 복리후생</b>	6	-	3.60	2	2.00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B	2.40	-	-
	(2) 총인건비 관리	-	-	-	2	2.00
	(3) 노사관계	2	C	1.20	-	-
	<b>5. 혁신과 소통</b>	2	-	1.50	2	1.45
	(1) 혁신노력 및 성과	2	B/B+	1.50	-	-
	(2) 국민소통	-	-	-	2	1.45
<b>경영관리 합계 (32.59)</b>		34	-	22.70	11	9.89
주요 사업	<b>1. 가축방역사업</b>	8	-	6.72	16	16.00
	(1) 시료채취(4대 질병) 달성률	-	-	-	8	8.00
	(2) 시료채취(AI) 달성률	-	-	-	4	4.00
	(3) 농장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	-	-	4	4.00
	(4) 가축방역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	-	6.72	-	-
	<b>2. 축산물위생사업</b>	7	-	6.02	12.00	11.83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	-	-	7	7.00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	-	-	5	4.83
	(3) 축산물위생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7	-	6.02	-	-
	<b>3.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b>	12	D+/D	5.70	-	-
<b>주요사업 합계 (45.87)</b>		27	-	18.44	28	27.43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	0.2	-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	0.9	-	-
<b>총계</b>		<b>79.56</b>				

## 1

##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 (1) 전략기획(비계량)

##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등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문화 혁신 회의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가치체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의견 수렴 범위 확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노력은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국민, 근로자 생명 등 안전관련 핵심가치는 보다 명료한 개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핵심가치 우선순위 개념 적용의 타당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경영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경영목표와 국정과제의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관리개념의 타당성, 적절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핵심가치 타당성 검토 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 가치요소의 구성원 내재화를 위한 노력,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실행체계 운영 노력은 긍정적이다.
- 다만, SWOT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검토기능 강화(기관의 강약점 요소 도출을 위한 기관 내외부 의견수렴 및 분석 기능 강화), 가치체계 내재화 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발전 노력 강화, 기관 내외에서 국민, 근로자 생명, 안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 핵심가치 요소의 적절성 및 충분성 검토, PDCA 관리체계 고도화(주기, 환류 내용 등 구체화 필요성 검토) 방안 검토,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균형에 대한 기관의 관리 개념 및 체계의 적절성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비계량)

###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 결과를 고려한 성장사업, 조정사업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평가단, 외부전문, 기관 구성원 등 내외부 의견을 고려한 경영개선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환경분석결과와 쇠퇴/사업정비, 신규사업 도출 결과의 연계관계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업무효율화의 개념과 조정사업의 연계 타당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스마트 업무방식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등에 대한 현 수준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발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제시된 성과의 지표적합성 제고를 위한 검토기능의 강화도 요구된다.
- 환경분석을 통한 미래대응 핵심 이슈 및 신규과제 도출 노력.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노력,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혁신 노력,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가축질병 조기검색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분석 결과와 기관의 임무를 연계하여 쇠퇴하는 기능 또는 혁신을 통한 조직 규모/기능 조정 필요성 검토 기능 및 제시된 성과 내용의 지표 적합성 검토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경영개선방향은 분야별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발전이 필요하며, 주요사업 분야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의 업무수행/사업수행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수준진단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3) 리더십(비계량)

#### ③ 리더십(비계량)

-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기관 구성원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청, 동행 등 직원 만족도/공감대 형성을 통한 기관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조직문화혁신을 통한 기관발전이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다만, 조직문화혁신, 주요 현안과제 해결, 이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세부평가사항을 고려한 성과제시체계는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등 역할강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역할의 충분성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및 분석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 기관 구성원/문화의 태생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노력(4대분야 23개 혁신과제 추진 노력),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노력, 경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관리시스템 운영 노력, 이사회 경영제언을 반영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노력 등 이사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제고 등에 대한 성과제시기능 강화(세부평가항목을 고려한 성과제시체계 정립), 현안과제 특성별/유형별

현안도출 및 대응체계 정립, 주요사업 분야를 포함한 성과제시체계 정립,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노력의 성과제시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된다. 이사회 역할의 충분성에 대한 기관(구성원) 의견 수렴 및 이를 고려한 발전방안 모색 필요성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C”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일반)	-	-	-	2.00	1.99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평가편람에 제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0.5),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1.5), 총합계 2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전체고용인원(정원) 1,275명 중 청년채용인원 38명으로 2.98%를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1.49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율(3%)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에 공표되었다. 향후 정원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세부 사항별 요구사항을 고려한 성과제시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각각의 세부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표별 성과제시사항의 적절성 검토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중기 일자리 창출 목표수립 노력은 타당하며, 핵심사업과 연계한 가축위생방역분야 일자리 발굴 등 주요 사업, 기관임무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불합리한 차별 요소의 배제 등 고용의 질 개선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관이 생각하는 ‘고용의 질’ 개념 및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활동이 모색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다.
- 중기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민간일자리 창출 포함) 수립 노력,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청년인턴 채용 노력, 체험형 인턴, 사전심사제를 통한 불필요한 비정규직 방지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장중심 일자리 창출 노력, 합동점검반, 드론운용 등 가축질병 대응을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 노력 등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확보 노력 또한 긍정적이다.
- 사회적 가치구현 분야의 세부평가사항을 고려한 전반적인 접근체계 정립 검토 및 성과제시사항의 지표적합성 검토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하는 방식별 일자리 창출효과 또는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유형별 적용 타당성 검토 등 사전분석 기능 강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sup>1)</sup>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일반)	-	-	-	1.00	0.80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3~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7), 단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77.87%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55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83.66%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2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0.7,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은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488명(월별 의무고용인원의 합) 대비 77.87%(380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83.66%(32명)를 달성하였다.

1) 평가편람 상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4%) 대비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의 비율을 활용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산식을 활용할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로 인하여 기관이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본 평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식 대신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의 합/월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합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사회형평적 인력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평가사항별로 의미있는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세부평가사항별로 노력활동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개념 및 관리체계정립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조직문화 혁신 등 소통채널 다각화, 활성화를 통한 불합리한 차별 및 처우개선 노력은 타당하며,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직무능력 중심 채용강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학력제한 없는 직무(드론직) 개발 및 고졸채용 노력, 조직문화 혁신, 자유소통 등을 통한 차별요소 해소 노력은 긍정적이다.
- 기관 내외부 고객이 느끼는 채용의 공공성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성 검토, 고졸적합업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력단절여성 고용 노력 등 기관이 수행한 사항의 성과제시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세부내용에서 제시한 각 요소별로 기관의 특성과 연계하여 운영개념, 운영 적합성, 제한요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 운영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유해요인 최소화, 직원참여형 친환경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노력은 타당하나 기관의 주요 사업 수행, 축산농가 환경 등과 연계한 활동 유형 및 범위의 확대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기관운영, 고유사업과 연계한 환경유해요인 최소화, 직원참여형 친환경 활동 노력, 환경보전 인식 확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사업과 연계한 환경보전 활동 도출 노력 강화(축산농가 친환경 활동 참여 유도 활동 포함), 환경분석, 정부정책, 기관특성(주요사업 특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활동관리체계 정립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환경부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목표 및 환경을 고려한 안전경영체계 구축, 중대재해 처벌법 선제적 대응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종별 근로환경을 고려한 개선요소 식별 등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내부제안제도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노력 및 성과는 타당하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요소를 식별하고, 재난유형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재난유형과 안전관리 요소를 연계한 관리체계 정립 개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한요소 및 개선 사항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안전경영 추진목표 정립, 주요추진과제 도출 등 기관의 안전보건경영 방향 수립 노력 및 중대재해 처벌법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부, 현장대응 조직 신설 등 기관의 대응능력 강화 노력은 긍정적이다. 질병검색률 향상 및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신기술 확대적용 노력, 안전의식 수준진단, 내부제안제도 등을 통한 근로환경개선, 직업병 발생 예산 등 재해예방 노력, 직종별 위험성평가를 통한 개선요소 식별 및 대응노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으로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일대일 대응개념의 성과제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등 향상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 노력의 구체성 제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을 고려한 재난관리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	-	-	3.00	2.65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3
여성 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기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제정 초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0.5

-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확인 결과, 김천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평균 구매금액에 미달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15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총액의 5% 이상 달

2)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 상에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매총액을 제시한 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구매총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대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중소기업 물품구매총액의 10%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상품권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6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지역농산물 구매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 구매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기관 내 지역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평가하였다.
-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관내에서 기준에 맞춰 운영하였다. 거래대금의 경우 지급요청 시 5일 내 100% 지급하였으며, 수의계약 한도 상향, 창업기업의 판로개척 등의 노력이 확인되었다.
- 기본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방법에 근거하였으며, 공개경쟁의 경우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 준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과업에 차질이 있는 기업에게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공정한 기관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 지역생산품을 직접구매(온누리상품권, 지역농산물 지역시장 구매), 상생·협력 소비 캠페인, 지역시장 활성화 캠페인, 화훼농가 지원확대 등 지역상권 소득향상 노력이 우수하며, 지역 영세축산 농가 지원('21년 신규) 등을 실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을 위해 질병관리등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점이 흥미롭다. 관련 추진배경, 문제인식 → 추진대상, 방향이 적절해 보인다. 전담조직, 구성 등이 '21년 7월에 구축되어 '22년 성과를 기대해 본다.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관련 신고(익명신고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21년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관련 내용을 꾸준히 내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업무,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경제적 지원(정부정책 우선구매, 영세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 등),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등은 전년에 비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여 긍정적이다. 부분적으로 제시된 지역사회 지원에 대한 내용제고 및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지원필요사항 식별지, 지원 강화방안 검토가 더욱 체계화 되면 좋을 것이다.
- 또한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역량과 연계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방역지원본부 특성에 맞춰 축산농가 소득향상 지원(출하 전 가축의 신속한 질병검사 지원)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 기관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와 상생동행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설, 명절 등의 주차장개방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홍보를 기대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 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21년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실시한 점이 확인되었다. 전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혁신 4대 중점추진을 선정하고 관련 활동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 14건을 접수받았으며, 심의를 통해 갑질피로움이 있는 건에 대해 징계조치를 실시하는 등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참여형 윤리활동을 위해 '21년 청렴지킴이, 청렴회의체 운영,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청렴강사를 1명 추가 선발해 6명의 강사를 양성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 권고·지적 요구에 대해 윤리경영 협의체 기관(4개)에 공유하는 환류시스템 구축은 전년 모니터링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22년에는 환류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10명을 지정하고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내·외부 감사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시스템의 정비사항 또한 전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 반부패시책 정령회의체를 2건 운영하였으며, 감사실, 경영지원부, 인재개발부 등이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채용관련 면접심사위원, 안전점검, 임직원행동강령, 법인카드, 채용비리 예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단계적 추진전략이 마련되었으며, 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 홍보를 실시한 점이 확인되었다. '22년에 이해충돌달성 제로를 목표



로 운영지침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하는데 관련 지침을 '22년 평가에서 제시하기 바란다.

- 다양한 윤리경영 관련 시스템(감질피해신고센터 등)이 '21년도에 구축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22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다양한 활동 및 성과가 기대된다.
- 감질관련 설문참여가 33.7%로 낮은 편이다. 연말에 일주일 간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기간 뿐만 아니라 설문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특히 직급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③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020년에 ‘중장기 발전계획 및 조직진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1년에 인력조정이 이루어졌다.
- 다만 기존 연구에서 인력들에 대한 업무량 분석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시된지도 2년이 되어가므로 다시한번 조직최적화를 위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부서간, 개인간 업무량을 분석하고, 부서간 업무량 편차 및 부서 내 업무량 편차를 줄이는 등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1년에 구성원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터기반 지정형 학습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 맞춤형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다. 실제 교육운영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부분은 긍정적이다.
- 다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분은 일부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각 구성원의 업무 별 전문성 수준은 개념적으로는 일정 부분 파악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파악/관리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향후 직위별/직책별로 요구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現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 파악을 통해 전문성 부족분야 등을

도출하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구성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① 주요 사업 업무 및 본부의 지원/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각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 영역 도출, ② 전문성 영역 별 전문성 등급(ex. Level 1~5, 상/중/하) 및 등급 판단기준 설계, ③ 분야 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수준 설정, ④ 분야 별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 평가, ⑤ 필요한 전문성 수준과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의 gap분석을 통해 전문성 확보 필요분야 도출 및 확보 추진 등).

- 업무편람 및 매뉴얼 등을 확인한 결과, 비교적 적절하게 수립이 되어 있긴하나, 매뉴얼 별로 수준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매뉴얼 및 편람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기관 내 성과평가와 관련해 '21년에 부서평가 및 관리자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반영비율을 높이는 등의 개선노력을 하였다.
-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성과평가는 본부 부서평가, 소속기관 평가, 개인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기준 등은 비교적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결과 이의신청 등의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와 관련해 부서평가의 결과는 개인평가에 30% 반영되고 있으며, 소속기관 평가결과는 선진지 견학 등에 우선순위로 작용하는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일가정양립과 관련, '21년 조직문화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4대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하였는데 이 중 가족친화 조직문화와 관련된 5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연단위 해결이 가능한 단기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중장기적 측면의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예산편성 시 부서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 편성방향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다. 업무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편성시 반영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또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예산부장 주관으로 부서장들이 참여하여 검토를 실시였으며, 안전관련 예산, 노후차량 교체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조정이 실시된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에도 예산편성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이러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정례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차원에서는 예산지침 준수여부 및 수요변화에 따른 예산반영여부 등을 주로 검토하고,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예산과 기관운영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집중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 보여진다.
- 실수요 예산편성을 위해 과거대비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인정되며, 긍정적이거나, 2021년에 이루어진 예산의 목간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부항목의 경우 편성단계에서 사전에 고려할 수 있었던 항목들이 보이므로 보다 정교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예산총액은 790.9억원이며, 집행액은 789억원으로 99.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비 향상되었으며, 매우 우수한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9년 99.3%, '20년 99.5%).
- 사고이월은 없으며, 불용은 1.89억원 발생하였다. 불용은 주로 인건비 및 결원/휴직 등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을 확인하였고, 3분기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60.9%(원인행위 기준 69.6%)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고, 비교적 계획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된다(12월에 집행

된 예산이 25.1%로 다소 많으나 잔금 등의 집행에 의한 것이며,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12월에 12.7%로 적절한 수준을 보인다).

- 예산 편성 및 배정, 조정은 기획예산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 배정, 집행, 정산은 경영지원부에서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업실명제, 자체ERP운영 등 예산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예산집행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집행실적분석을 월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주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모니터링 후 파악되는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구분한 필요가 있으며(예 : 중요도 하\_담당자 알림, 중요도 중\_해당부서 부서장 알림, 중요도 상\_실장 혹은 기관장 알림 등), 특성에 따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A”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사업비 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비 실적	100.00%	99.58%	99.66	1.00	1.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을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9.5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1.00점을 획득하였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및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평가결과반영,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20년 평가 시 5개 직종, 직종별 4개등급의 직무체계 설계가 단순하고 일반직, 예찰직 등 직무의 구성이 단순하다는 전년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21년 11월 직무급체계 재정보 외부용역을 실시하였다. 본 평가가 '21년에 대한 평가이며 직무연구결과는 '22년에 반영되므로 기관의 합리적인 직무중심 평가는 '22년 평가 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 합리적 직무급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직원의 내부니즈가 파악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종 직무급제 설명회가 '22년 1월에 실시하는 등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로드맵이 '2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표준직무기술서가 마련되어 있고 외부의 눈을 통해 합리적인 직무평가 개선을 실시하려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 직무등급을 5등급으로 확대해 보수비중을 직무별로 제시하는 등 전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한 부분은 인정된다. 다만 직무분석 관련 로드맵이 '26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체계가 구축되는 시점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 인사평가제도의 내부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20년과 '21년 모두 2점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단순 만족도 점수보다도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기관내에서 문제점에 대해 환류가 가능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평가제도 관련 직원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관련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한 것이 확인되었다. 아쉬운 것은 참여율(65%)보다 일주일의 짧은 조사기간이다. 조금 더 조사기간을 늘려 내부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인건비 관리,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맞춰 준수하였다. 1인당 복리후생비의 경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직상태 변경대상자 발생으로 지급 기준액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기관의 비금전적 복지제도는 대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육아휴직제도, 코로나19 관련 공가, 타이어 업무협력 등 일가정양립제도, 재택근무, 출산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실 등 근무환경 제도는 내부구성원의 활용가능한 복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임금피크제 제도운영을 검토한 결과, 정부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제도가 계획되어 있고 대상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긍정적이다. 다만 퇴직자 관련 면담을 서면으로 진행,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에 환류하고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퇴직전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기관 중도퇴직자의 관리, 개선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20년에 비해 개선된 복리후생 제도가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B"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0.9% 이하	0.86%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86%로 기준치 0.9%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0.86%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0.9%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 '20년, '21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연차사용률을 확인한 결과 '19년 68.7% → '20년 89% → '21년 98%로 연차관리를 위한 노력이 보인다. 10여명의 경우 80% 이하의 연차사용률을 기록하였는데 연차저축제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 개편된 노사 발전방안의 주요 협의체계,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제도운영, 노사생생협약 체결, 온오프라인 의사소통채널 운영확대 등 전년 지적사항인 노사관계를 위한 소통채널별 피드백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상생협약의 경우 '21년 10월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 일가정양립 추진성과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방역직 연장근로시간이 7시간 감소되어 고무적이다.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일반행정직의 시간외 근무시간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
- 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횟수가 28회인 점, 여성현장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인원 확대가 긍정적이며, 소통채널이 기존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소통채널의 경우 기존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더욱 활발한 추진실적이 요구된다.



- 조직문화 개선관련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한 점이 긍정적이나 40대의 참여율, 5점 리커트척도 조사로 인한 명확한 니즈파악이 아쉽다. 노사관계의 경우 60%대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니즈를 파악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환류계획을 제시하였는데, '22년 개선된 노사관계 성과를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제시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비전은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이며, '21년 혁신과제는 3개의 추진전략을 이루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국민체감도, 혁신성 관점에서 2개를 선정한 것이 긍정적이다.
- 선정된 중점추진과제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서, 기관 업무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추진과제의 대표성과를 확인한 결과 안전점검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컨설팅, 안전보안관 49명 위촉, 농식품부 규제혁신 주요성과인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도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관장 주요활동과 주요성과를 검토한 결과, 혁신노력과 연계된 점이 확인되었으며,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 또한 기존에 비해 확대되어 긍정적이다. 대내외 혁신네트워크의 구성과 주요실적, 지역사회간 협업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역할 모두 원만히 구성되어 있다.
-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시하길 바란다. 연초 또는 전년말에 수립한 전략을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기에는 환경적 변화, 인력의 구성, 예산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100% 달성하기 어렵다. 경영보고서의 전략만을 검토해보면 모두 달성한 것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서면평가에서 제시한 대로 혁신과제의 결과(성과달성, 부진, 미흡, 부진과 미흡은 간략한 사유)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고한다.
-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1개월간 접수, 1, 2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국민참여제도가 인상적이다. 접수된 50건의 제안명 대부분이 가축위생과 직결된 혁신아이디어임이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국민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 '21년 평가 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소극행정 관련 감사가 1건 접수된 것이다. 소극행정의 경우 부처에서도 사례가 자주 나오기 않는다.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직원에게 전파한 것이 확인될 수 있는 사례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구성(심사방법, 위원, 포상 등)도 적절하다. 향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면책제도 등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 아쉬운 점은 홍보체계이다. 적극행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버를 개선해야 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적극행정, 대국민 혁신아이디어 등이 타기관에 비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공경로가 아쉽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화예찰 전문상담, 방역사 방문 시 어플설치 등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내용이 서비스가 개선된 것인지 더 명확한 내용이 필요하다. 전화예찰 전문상담의 경우 '20년 10건에서 '21년 13건 확대라고 제시하였는데, 읽는 입장에서는 3건 확대된 부분이 크게 외당지를 않는다. 어플설치 등도 다운건수나 활용건수 등이 없어 마찬가지로이다. 성과제시도 중요하나 해석이 애매한 지표의 경우 수치나 활동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함께 작성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국민소통(계량)

###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5.06	85.06	1.00	0.85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2.12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85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2.12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4.25점으로 산출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86.96점으로 산출되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85점 이상인 양호 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지수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7:3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85.06점을 획득하였다.

##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5.0	0.60	1.00	0.00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5.0점이 부여되어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60점을 획득하였다.

## 2 주요사업

### 1 가축방역사업

#### (1)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429,013	476,771	100.00	8.00	8.00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4대 질병)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4대 질병) 목표치 429,013건 대비 실적치 476,771건으로 목표치 111.13%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시료채취(4대 질병)에 대한 2021년 목표치 429,013두 대비 실적치는 총 476,771건으로 목표 이상의 실적(111.13%)을 달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목표치 대비 실적량은 100% 내지 115.14%로 모두 충실히 달성하였다.
- 질병 발생이 거의 없거나 근절 단계에 있는 가축 질병에 대한 시료채취 목표치는 통계학적 질병 예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 (2) 시료 채취(AI) 달성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시료 채취 실적/목표 (계획) 채취 수) x100	목표 대 실적	127,399	152,187	100.00	4.00	4.00

####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AI 상시 예찰 검사 추진계획’에 의해 계획된 시료 채취(AI)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시료채취(AI) 목표치 127,399건 대비 실적치 152,187건으로 목표치를 119.46%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시료채취(AI)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에 대한 2021년 목표치 127,399점 대비 실적치 152,187점(달성율 119.46%)으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실적량은 100.1% 내지 151.3%로 모두 충실히 달성하였다.

### (3)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예찰실시결과 보고실적/목표(계획) 건수 X100	목표 대 실적	5,736	6,685	100.00	4.00	4.00

#### 나. 평가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해 계획된 농장 예찰(예찰 실시결과보고)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농장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목표치 5,736건 대비 실적치 6,685건으로 목표치 116.54%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4.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농장예찰 방역사업의 가축질병 예찰실시 결과 보고건수는 6,685건으로, 2021년 목표치 5,736건 이상의 실적(달성율 116.54%)을 달성하였다.

## 2 축산물위생사업

### (1)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최고 목표	최저 목표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보고 건수/ 도축검사 두수) x100	목표부여 (편차)	7.66%	8.72%	5.56%	9.19%	100.00	7.00	7.00

#### 나. 평가내용

-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최고목표인 8.72%를 상회하는 실적(9.19%)을 거두어 지표 가중치 7.00점 만점 중 7.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Covid-19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및 지속하는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21년도 최고목표인 8.72%를 상회하는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 2018~2020년 3년 평균 도축검사 이상 보고율이 6.41%였는데 21년도의 이상 보고율이 지난 3년 평균에 비해 높아진 것은 국내 가축 사양관리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2)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최고 목표	최저 목표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이상 보고 건수/ 현물검사 건수) x100	목표부여 (편차)	8.95%	9.45%	7.95%	9.23%	88.60	5.00	4.43

#### 나. 평가내용

- 현물검사(수입축산물) 이상보고 향상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사업 최고목표인 9.45%를 다소 하회하는 실적(9.23%)을 거두어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4.4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Covid-19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및 지속하는 환경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21년도 기준치 8.95%를 약 3% 상회하는 9.23%를 달성하였으나, 최고목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 ③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축산분야의 핵심 현안과제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가축방역사업의 측면에서 SMART 등 적합성 분석을 통해 계량적(4), 비계량적(4)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신규로 선정한 성과지표(계량적 3, 비계량적 1)는 축산업의 핵심 현안 과제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축방역 현장중심 전문기관으로서 구체적으로 핵심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정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하는 축산물위생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별 업무 추진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며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된 사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다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강화해야 할 사업과 축소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략적 분석을 실시하여, 강화해야 할 분야(예, 질병관리등급제, 드론방역, 교육)와 점진적 축소가 필요한 분야(예, 4대 질병 시료채취)를 발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A+”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정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농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가 0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질병관리 등급제가 다른 품종(육계)과 다른 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 축산물위생사업은 지역 단위로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목표가 수립되었으며 모두 적절하게 추진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A”로 평가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가축방역 현장중심 전문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가축방역사업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주요 가축방역사업의 2021년 성과지표 대비 실적치가 100.91% 내지 160.86%로 실적치가 적절하게 달성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 특히, 계량 성과지표인 드론확대 운영의 경우 신규 1년차인 2020년에 15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목표치를 465건으로 도전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목표를 160.86%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축산물위생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의 경우 매우 우수한 실적을 달성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A”로 평가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모니터링 평가시스템과 연계한 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평가단의 지적(권고)사항 주요 5가지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 현장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된다.
- 도축검사 이상(폐기) 보고율 및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 지표는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성실성 및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표로 판단된다. 다만, '20년 경영평가 지적 및 권고사항에 따라 외부용역기관을 통해 개선지표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경영평가 편람 수정의견을 2회 제출을 통해 2022년 도축검사 지표를 개선하는 등의 환류 노력이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신성장산업인 드론운영전담팀 예산을 증액하고 계약직 9명을 증원하는 등 가축방역 사업 추진의 사회적 가치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축산물위생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확보되는 통계자료는 사회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기관 내 전문가들과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들 간 해당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 공유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로 평가한다.

#### ④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가축방역사업의 성과지표로 시료채취(4대 질병)달성률, 시료채취(AI) 달성률,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달성률을 설정하였으며, 축산물위생사업의 성과지표로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를 설정하였다.
- 지표의 선정에 있어, 성과지표 pool을 기반으로 SMART 기준 및 사회적 가치 등을 검토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표선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다만 일부 지표들의 경우, 성과 대표성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며, 성과달성의 난이도를 보여주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시료채취(4대 질병) 달성률 및 시료채취(AI) 달성률의 경우, 과정/초기산출 지표로 성과대표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 측면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해당 부분은 방역사업에서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책임 및 권한의 적합성’, ‘외부 효과로 인한 성과 왜곡가능성’ 등에서 적용하기에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과지표만으로는 성과수준 및 성과달성의 난이도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 지표의 경우도 성과 대표성에서 제한되며 성과달성의 난이도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비계획 부분을 추가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의심축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기준일 내에 질병예찰 실시한 비율 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신고 건에 대해 악성질병과 일반질병으로 구분하여 기준일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의 경우도 성과대표성이 제한되는 지표이다. 검사단계에서 이상 건수가 발생하는 비율은 검사 대상이 되는 축산물의 상태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이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선정되어야 하며, 결국 검사에서 문제가 있는데 발견해 내지 못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지표의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검사종료 후 다음단계에서 발생된 이상건수 및 폐기건수, 크레임 건수 등 검사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가용한 데이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이 외에 향후 초동방역과 관련된 지표가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며, 신고 후 얼마나 적시에 현장에 도착했는지, 초동방역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가축방역사업의 지표인 시료채취(4대 질병) 달성률의 경우 429,013건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전년 실적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치이며, 4대질병 가축사육농가 감소에 따라 시료채취 계획이 감소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나, 사업환경여건의 악화가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며 지표 특성 상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어렵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 시료채취(AI) 달성률의 목표는 127,399건으로 전년 실적 대비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역시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기는 제한된다.
- 농장예찰(예찰실시결과보고) 달성률의 경우, 목표량 5,736건으로 '20년 대비 근무조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년 목표 대비 높은 목표를 잡았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20년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

달성의 영향요인 및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요인(환경여건 등) 변화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설정의 근거 역시 보다 타당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도축검사 이상(폐기)보고율과 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 이상보고 향상도의 경우, 과거 실적 대비 향상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정수준에서 목표치의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실적의 특성상 실적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는게 불가능한 만큼 임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목표치 이전에 지표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추가로 6개 기관 공통적인 사항으로, 편람 상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 임계치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지표(성과대표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라도 매년 일정수준 이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지표로 대체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5 가점 지표

###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질병관리 등급제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이지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피해 격감 성과(특히 질병등급제 관리농가 발생건수 0)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향후 2021년 성과를 통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질병등급제 관련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과 업무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발생 농장에 대한 실시간 역학 조사,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발생 농장 주변에 대한 효과적인 소독활동 등 드론 기술을 활용한 가축방역 사업 발굴과 확대 노력의 성과가 인정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하여 드론 기술이 향후 중앙 정부의 가축방역 관제센터 기능과 연계되어 혁신적인 가축방역 및 질병통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융합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2점”으로 평가한다.

###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현혈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단체현혈 캠페인을 전개(111회 417명 동참)하여 코로나19 고통분담과 국가적 국민 보건 안정화 노력에 동참한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9점”으로 평가한다.



##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4	-	3.10	-	-
	(1) 전략기획	2	B+	1.60	-	-
	(2) 경영개선	1	B+	0.80	-	-
	(3) 리더십	1	B	0.70	-	-
	<b>2. 사회적 가치구현</b>	19	-	15.00	6	5.89
	(1) 일자리 창출	5	A	4.50	2	2.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1	1.00
	(3) 안전 및 환경	5	C/B+	4.00	-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1.40	3	2.89
	(5) 윤리경영	5	B	3.50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3	-	2.10	1	0.93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제고)	2	C	1.20	-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A	0.90	1	0.93
	<b>4. 보수 및 복리후생</b>	6	-	4.00	2	2.00
	(1) 보수 및 복리후생	4	C/B+	2.80	-	-
	(2) 총인건비 관리	-	-	-	2	2.00
	(3) 노사관계	2	C	1.20	-	-
	<b>5. 혁신과 소통</b>	2	-	1.40	2	1.20
	(1) 혁신노력 및 성과	2	B/B	1.40	-	-
	(2) 국민소통	-	-	-	2	1.20
<b>경영관리 합계 (35.62)</b>		34	-	25.60	11	10.02
주요 사업	<b>1. 농업정책자금 관리</b>	5.5	-	3.41	10	10.00
	(1)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	-	-	8	8.00
	(2)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	-	-	-	2	2.00
	(3)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5	-	3.41	-	-
	<b>2. 농업재해보험 관리</b>	5.5	-	3.41	10	10.00
	(1)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	-	-	6	6.00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	-	-	4	4.00
	(3)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5	-	3.41	-	-
	<b>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b>	4	-	2.72	8	8.00
	(1)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	-	4	4.00
	(2)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	-	-	-	4	4.00
	(3)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	2.72	-	-
	<b>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b>	12	C/C	7.20	-	-
<b>주요사업 합계 (44.74)</b>		27	-	16.74	28	28.00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	0.20	-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	0.30	-	-
<b>총계</b>				<b>80.86</b>		

1

#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 (1) 전략기획(비계량)

####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등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핵심가치 설정/검토를 위한 관련 관리자 회의가 도모되고 있으나, 기관 구성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요소가 업무 및 조직관리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 근로자 생명 등 안전관련 핵심가치는 보다 명료한 개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또한 요구된다.
- 경영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세부 사항에서 요구하는 국정과제 반영체계를 성과보고서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개념 및 과제도출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핵심가치 타당성 검토 노력, 전사 비전 및 핵심가치 공유에 대한 경영인지도 설문 조사 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노력, 비전 및 전략방향을 고려한 전략과제 도출, 전략과제별 KPI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다.
- 기관 내·외에서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 핵심가치 요소의 적절성, 충분성 검토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경영인지도 설문 확인 결과의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균형을 반영한 과제 도출체계 구체화 노력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강화와 연계한 과제도출 개념 및 중장기 실행과제 도출 노력 강화, 기관의 임무수행 측면에서 내부역량의 강·약점 도출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충분성 검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비계량)

###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미래 혁신과제 발굴 프로세스를 통한 혁신과제 도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업무/조직 기능의 축소, 유지,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 노력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또한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내부 의견 수렴 활동 포함)를 고려한 개선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업무체계 온라인 전환, 정책고객 대상 비대면 교육 추진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등에 대한 현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방향이 모색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다.
- 환경 분석을 통한 주요 과제/활동 식별 노력,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미래 대응 아젠다별 혁신과제 Pool 도출 노력,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미래 혁신과제 선정 노력, 조직개편,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기관 운영비용 절감 효과 창출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 쇠퇴하는 기능 또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조정 필요성 검토 기능 강화(최대한 세부평가사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실행, 미실행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가 요구된다. 또한 경영진단 결과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리더십(비계량)

#### ③ 리더십(비계량)

-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기관 구성원의 특성 파악 및 대관업무역량 강화 등 역량강화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으며, 업무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 정원 확대, 디지털 기반 업무수행 등의 노력과 함께 역점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 다만 당면/현안과제에 대한 기관의 대응 전략 및 체계는 기관이 수행해야 할 전 업무를 대상으로 성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가치 공유 노력에 대한 사항이 명시적 성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이사회 역할 강화방안이 요구된다.
-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 효과를 고려한 기관장 역점(당면)과제 선정 노력, 역점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 및 목표치 설정 노력,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 경영제언 의견수렴 등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 기관운영, 사업추진 등 기관의 모든 활동영역을 대상으로 한 현안과제 도출 및 대응 체계 가시화 노력 강화 및 사회적 가치구현 분야와 연계된 당면/현안 과제 식별 및 대응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4대 핵심가치의 실천방향과 가치요소별 의미의 연계 충분성 검토(비전 달성 측면에서 가치요소별 소통실적의 연계 타당성, 충분성 제고 노력 강화) 및 세부평가내용의 항목을 고려한 성과제시체계 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B”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일반)	-	-	-	2.00	2.00

#####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평가편람에 제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0.5),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1.5), 총합계 2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체고용인원(정원) 82명 중 청년채용인원 12명으로 14.63%를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율(3%)을 4배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여 해당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발전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정원확대,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청년인턴제의 체계적 운영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정현원차 관리 외 다양한 근로형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기관 적용의 타당성이 검토되는 등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 맞춤형 지원, 특수목적펀드 조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타당하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적 타당성 분석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 다만,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기관 전반적 차원의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분야별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적 가치제고 활동이 되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PDCA 기반 일자리 전략수립, 실행 및 점검체계 구축 노력, 인력운용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정·현원차 제로 달성 노력, 신규사업 확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청년인턴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개념 설정 노력,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중·장기적 타당성 분석 노력은 긍정적이다.
-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전반적 차원의 전략구상 타당성 검토, 청년인턴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발굴 노력 강화,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비교분석 등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 검토, 기간제 인력 운영 필요성 및 운영방안(고용의 질 개선 포함)의 구체화 및 성과제시 노력 강화,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과 연계한 세부성과의 지표적합성 검토 기능 강화 등은 향후 개선될 사안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일반)	-	-	-	1.00	100.00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3~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7), 단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103.45%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70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325.2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0.7,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여 임직원을 고용한 점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99명(월별 의무고용인원의 합) 대비 103.45%,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325.20%를 달성하였다.

###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창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채용과정의 전반적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채용점검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의 노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고졸 적합 업무, 다문화 가족 적합 업무에 대한 식별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관리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내부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청년, 여성 채용확대를 위한 홍보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노력, 고졸자, 무기계약자 등 대상별 불합리한 차별 요소 해소 노력,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경력단절여성 가점제도 신설 노력은 긍정적이다.
- 다만,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등 일하는 방안의 조기 시행방안 검토(단계적 확대, 홍보방안 포함), 직군별, 신분별 의견수렴기능 강화를 통한 처우개선 요소 식별 노력 강화, 고졸적합업무, 다문화 가족 적합업무에 대한 분석기능은 향후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현재 기관 내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 친환경 차량운영, 비대면 검사기법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등 정부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 기관의 여건,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은 정부정책, 기관운영(직원 행동양식 및 마인드 포함), 주요사업 추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응체계의 정립 등 효과적 활동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정부정책을 고려한 기관의 환경보전 추진방향 정립 노력 및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 초과 달성 노력은 긍정적이다.
- 다만, 환경보존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종합대응체계 정립 및 친환경 농축산업자 등 고객의 친환경 노력을 고려한 우대정책 추진 타당성 검토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환경부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평가지표에서 관리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상별 재난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요소를 식별하고, 재난유형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재난유형과 안전관리 대상을 연계한 관리체계 정립 개념).

- 안전관리 대상별 의견수렴을 통한 재난관리시스템(예방, 대응, 복구) 구축 노력, 안전의식 제고 및 내재화 노력, 영세 농업인 산재보험 미자격자를 위한 안전보험 운영을 통한 보험사각지대 해소 노력, 개인정보에 대한 구성원 인식제고 등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 노력, 사이버 위기관리 숙달을 위한 훈련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해당 지표 성과 제고를 위하여 안전의식 내재화 수준 판단 및 관리 방안 검토, 개인정보 보호기반 등 향상이 필요한 사항 및 개선노력의 구체성 제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을 고려한 재난관리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	-	-	3.00	2.89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3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0.5

-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확인 결과, 김천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평균 구매금액 실적을 20% 초과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이상을 달성하여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재정 조기 집행 실적 확인 결과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64.37%를 달성하여 0.3점 만점에 0.19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6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지역농산물 구매,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 집행계획을 100%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 예산집행 부진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평가하였다.
- 지역사회 참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년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이에 지역의 농수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홍성군, 익산시와 MOU를 체결하고 전통시장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기부용 농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관련 실적 또한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활동(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마을, 기부)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단체헌혈을 실시한 점 또한 인상적이다.
-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관 내에서 기준에 맞춰 운영하였다. 선금신청건 등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로 지급하였으며, 수의계약의 기준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였다. 공개경쟁의 경우 '21년 11건이었으며, 그 중 10건이 외부심사위원비율 50% 이상인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도 비율이 높으나 되도록 모든 공개경쟁의 경우 공정거래를 위해 외부위원 50% 이상 확보하길 권장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식품경영체 해외 E커머스 시장진입 마케팅, 농림축산식품 중소기업 초기 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외 E커머스 시장진입의 경우 평가를 통해 5개사를 선발, 멘토링, 사후관리(교육)까지 진행하여 기업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력이 된다면 기업선발수를 더욱 늘리는 것도 검토해보길 바란다. 창업준비를 위한 교육컨설팅, 마케팅, 비용지원 또한 '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실적은 계속 기관예산, 인력에 한계가 있어 계속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어느 시점에서는 창업으로 인한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효과성을 고려한 최적의 활동대안 선정 등 기관의 노력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분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기업, 수도권지역 내 사회적약자 맞춤형 지원 또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궁금한 점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해 물품을 지원하였는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선별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다양한 지원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기관의 업무특성 및 역량과 연계된 지원방안 등이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관련 신고(익명신고시스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21년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관련 내용을 꾸준히 내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 기관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와 상생동행을 위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의원실 등에 회의실을 개방하는 것 외에 실제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 추진체계 재구축,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제고, 직원별 업무 리스크를 고려한 맞춤형 윤리교육 체계구축 등 전년도 경평 지적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불합리한 갑질관행 근절을 위한 계획-활동-모니터링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전직원 갑질근절 교육 및 피해제보 채널운영 등을 실시한 부분이 인정된다.



- 윤리경영 전담조직의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설 명절 공직기강, 7월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6회 실시하였으며, 청렴시민감사관, 부패 방지추진기획단 등의 운영점검 활동이 확인되었다.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단계적 추진전략이 마련되었으며, 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 홍보를 실시해 긍정적이다.
- 고충민원 처리결과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2건이 제보되었으며, 고충상담원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를 실시, 업무공간 분리조치 등을 실시한 점이 고무적이다.
- 홈페이지에 신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제보는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안내도 꾸준히 실시하기를 바란다. 또한 홈페이지의 2주내 민원답변률이 91.9%로 나타났으며, 4주 이내로 확장하면 100%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도 2주내 답변률이 높은 편이나 되도록 모든 민원의 답변을 2주내로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 아쉬운 점은 갑질관련 내부조사 응답률이 72.6%로 나타났는데, 조사기간을 확인한 결과 1주일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기간을 조금 더 늘려 응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답변자를 보면 4급 이상이 33명, 5급 및 계약직이 33명으로 나타났다. 5급 및 계약직 등이 출장이 많아 미응답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관에서 더욱 신경쓰기 바란다.
- 국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한 기록물관리 담당자, 지침, 관련 교육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22년에 관련 내용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기관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무적이거나 이를 통해 업무혁신이 유도되고 적극행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대효과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지침에 맞는 다양한 활동, 성과를 '22년도에 제시하기 바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신규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충원되었는데, 인력 충원의 근거마련은 신규사업에 필요한 업무소요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인력들에 대한 업무량 및 직무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조직이 얼마만큼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이 부분이 같이 제시되었다면, 신규사업 인력 충원과 관련된 요구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조직 최적화를 위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서간, 개인간 업무량을 분석하고, 부서간 업무량 편차 및 부서 내 업무량 편차를 줄이는 등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기본계획(안)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 수요조사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직위 별로 필요 전문역량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는 직무명세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 전문역량 영역별로 필요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련된 전공, 교육과정, 자격증, 경력 등을 연계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 현재 부서단위로 되어 있는 전문성 영역을 직위단위로 세분화하면 좋을 것이다. 분야별로 현재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수준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도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 확보(교육 등)의 우선순위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업무편람 및 매뉴얼 등을 확인한 결과, 비교적 적절하게 수립이 되어 있긴하나, 매뉴얼 별로 수준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매뉴얼 및 편람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내부 성과평가체계는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부서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 경평 계량지표평가와 기관장의 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계량지표의 경우 부서 간 난이도 조정의 한계가 있으며, 기관장 정성평가의 경우,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활용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부서평가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결과의 활용 부분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개인평가의 경우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인성, 능력, 실적), 가점(표창, 자격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사고과준칙 등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평정기준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종합평정에의 반영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평가항목을 봤을 때 성과 중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평가기준 및 활용 등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외에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담없는 육아휴직 사용문화 조성, 비대면 근무 활성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다양하게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예산편성 시 예산담당부서 및 예산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주무부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과거 편성 안 대비 증감이 큰 내역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 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좋을 것이다. 또한 편성 예산과 기관경영방침과의 부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차원에서의 검토가 아닌, 기관장 및 부서장들로 구성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021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예산총액은 141.9억이며, 집행액은 129.91억으로 91.6%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였다. 이는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집행률로 확인된다('19년 90.9%, '21년 91.5%). 이월은 1.69억이며, 불용은 10.3억이다. 이월은 대부분 연구개발비에서 발생(1.52억)하였으며, 불용은 운영비(7.52억), 여비 (0.91억), 연구개발비(0.62억) 등에서 발생하였다. 불용을 보다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전용은 19백만원으로 전년(2.56억)대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예산편성 시부터 코로나 등의 특수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을 확인하였고, 3분기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62.3%로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고, 비교적 계획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된다.
- 예산에 대한 조정통제는 기획인사팀에서 예산집행은 경영지원팀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팀에서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예산집행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상반기는 분기단위, 하반기는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주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모니터링 후 파악되는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구분한 필요가 있으며(예 : 중요도 하\_담당자 알림, 중요도 중\_해당부서 부서장 알림, 중요도 상\_실장 혹은 기관장 알림 등), 특성에 따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A”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90.71%	92.57	1	0.93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0.71%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93점을 획득하였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및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평가결과반영,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무보수관련 개선전략을 검토한 결과, 현 직무체계 포괄성 부족(2직군, 5직렬, 28직무), 사업별 상이한 업무특성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23년까지 보수체계 확립 로드맵을 설정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적절해 보인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능력중심의 승진심사체계를 통해 보수체계가 '20년 이전에 비해 바뀐 부분이 많아 합리적인 보수체계 구축이 필요한 기관이다.
- 기존 직무체계는 '19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되어있으며, '21년 하반기 신규수탁사업을 실시하며 문제점이 제기되어 직무재평가를 도입할 계획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바람직하다.
- 기관특성을 고려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해 성과보상제도를 개선하려는 활동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3년 정규직과 무기직의 기본급 차이가 감소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된다.
- 새로운 직무체계에 대한 결정이 '21년 하반기에 있어서인지 관련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직무관련 구성원 공감대 조사가 '22년 1월에 실시되었으며, 보수체계 관련 50% 불만족에 대한 환류계획, 노사합의 등 구성원이 공감하는 제도개선 또한 '22년에 조사되었다. 본 평가의 경우 '21년에 대한 평가이므로 관련한 내용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아쉽다. 구성원의 니즈파악을 통해 '22년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 인건비 관리,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맞춰 준수하였다.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무기계약직과 기존직원의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

- 정직(휴직)기간 보수의 경우 노사협의를 통해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정직기간 및 정직해제 후 승급제한 등도 기준에 맞춰 준수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 제도운형을 검토한 결과, 정부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제도가 계획되어 있고 대상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긍정적이다. 6명의 퇴직자에 대한 지속적 면담을 통해 인사 안정화 방안을 노력한 점이 확인되었다.
- 기관의 비금전적 복지제도로 기념품비, 행사지원비, 기타(피복비, 특근매식비 등) 등이 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제도 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B+"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관리(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평가연도 총인건비} - \text{전년도 총인건비}}{\text{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0.9% 이하	0.19%	100.00	2.00	2.00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19%로 기준치 0.9%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1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0.19%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0.9%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 '20년, '21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 실질적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분기별 노사협의회,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등이 '20년에 비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년 지적사항이던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채널이 포षم 플러스, 노사공동발전협의회가 '21년 신설되었으며, 노사공동협의체 운영,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적용 등 활동을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1년의 활동이 타기관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사간 다양한 활동이 '21년에 체계를 갖추었으니 '22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기를 바란다.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기간이 1주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재택근무 등을 실시한 인원은 참여를 하지 못해 조사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5대 영역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 노사협력, 고충처리, 노사화합, 노사신뢰의 평균값이 3.6~3.9점으로 분석되었다. 그중 가장 점수가 저조한 의사소통을 위해 채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다만 조사결과와 점수차이가 거의 없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 분야별 세부문항 확대, 주관식 등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명확한 방안을 환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직원노조자유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21년에 대의원회의 개최안내 등 39건이 등록되어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사용률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20년 78%, '21년 81%). 이월된 연차사용까지 합하면 99% 수준으로 파악되나 되도록 해당연도에 연차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 '21년 직원 상호부조를 위한 사우회를 발족하고 보상휴가와 유연근무 사용실적이 증가한 것이 긍정적이다. 다만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 문화 관점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내용이 일반적이다. 구성원의 니즈를 '22년 2월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개선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농식품산업 소득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기관, 전략은 재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농업경영 기반조성, 맞춤형 투자시스템 구축, 금융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지속가능한 혁신경영강화이다. 2개의 혁신중점과제를 선정(업무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데이터·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한 뉴딜추진)하였으며, 모든 TF팀이 참여해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선정된 중점추진과제의 성과 또한 기관중점에 맞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이다.
- 중점추진과제 중 일자리창출 관련, 여성 정규직 직원비율과 장애인 직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수탁사업으로 7명의 신규채용이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권역별 현장간담회, 농식품모태펀드 관련 민간합동 협의체 운영(4회) 등의 활동과 추진성과를 확인하였으며,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과제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과 성과도 긍정적이다.
- '21년에 익산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업무와 직결된 기관으로 판단된다. 체결된 기관과의 협업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성과가 기대된다.
- 혁신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한 결과, 특별승급제도 추천자가 없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건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상체계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파악되어야 하고 보상되어야 한다. 직원 니즈파악은 인사제도 개선 후 '22년에 실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22년 경평 시 제시하길 바란다.
-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시하길 바란다. 연초 또는 전년 말에 수립한 전략을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기에는 환경적 변화, 인력의 구성, 예산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100% 달성하기 어렵다. 경평보고서의 전략만을 검토해보

면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추가제출자료를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과제도 있을 수 밖에 없다.

- 이해관계자별 공감과 참여를 위한 맞춤형 소통채널을 다양히 제시하였다. 직원/노조, 협력기관, 정부, 국민/고객별 소통방향과 추진내용, 추진성과를 확인한 결과 전년에 비해 소통창구가 확대되어 긍정적이다. 특히 식품클러스터가 있는 익산시,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등과 MOU체결로 인한 효과와 다양한 상담창구 유지 및 신설(투자 지원센터 카카오톡, 농식품모태펀드 인스타그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디지털팝업 스토어, 서포터즈, 공모전, SNS소통 등의 활동 등도 잘 구성되어 있다.
- 기관의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보험데이터 공개·활동기반이 '21년 마련된 것인지, 서비스가 '21년에 고도화가 되어 '22년부터 안정적 제공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 적극행정 관련 비대면 중심의 업무서비스 제공 등 2건의 사례가 도출된 것이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다만, 적극행정의 전 직원 교육,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국민 참여,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및 지자체, 공공관 등의 사례 등도 공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정립이 된다면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면책제도 등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국민소통(계량)

###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0.50	80.50	1.00	0.80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79.9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8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2021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9.90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79.81점으로 산출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83.24점으로 산출되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지수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80.50점을 획득하였다.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6.1	0.40	1.00	0.00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6.1점이 부여되어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40점을 획득하였다.

## 2

## 주요사업

## ① 농업정책자금 관리

## (1)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정책자금 검사 실시율	목표대실적	100%	100.00%	100.00	8.00	8.00

## 나. 평가내용

-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검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검사 실시기관 비율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8.00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2년, 23년 검사 실시 기관 수를 400으로 설정하여 5년 조사 주기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 중점점검 대상 관리노력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중점점검대상 검사 실시율	목표대실적	100%	100.00%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내부통제 취약 가능성이 있는 대출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취급한 농림수산정책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

상기관에 대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중점점검대상 검사 실시율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00점 만점 중 2.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중점점검 대상 관리노력 지표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형태를 띄고 있는데, 목표가 자의성을 지닐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요소의 하나인 '성과의 왜곡가능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표의 산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② 농업재해보험 관리

### (1) 농업재해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최고 목표	최저 목표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Sigma$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목표부여 (편차)	38.00	44.09	25.83	45.00	100.00	6.00	6.00

#### 나. 평가내용

- 농업정책보험(농작물·가축·농기계·농업인) 상품 및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종사자에게 안정적으로 정책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별 상품·제도개선 건수 최고목표인 44.09건을 상회하는 실적(45건)을 거두어 지표 가중치 6.00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관리 노력 지표의 경우, 상품 제도 개선 건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건수보다도 내용적 중요도가 큰 지표이며, 단순 건수 증가가 성과의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 향후 성과의 질적인 부분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2)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최고 목표	최저 목표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기준연도 사업점검 횟수	목표부여 (편차)	1.88	2.12	1.40	2.14	100.00	4.00	4.00

#### 나. 평가내용

- 보험사업자와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점검 실적의 기준연도 대비 증가 수준의 측정을 통해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하

기 위한 지표로,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 최고목표인 2.12를 상회하는 실적(2.14)을 거두어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기관은 사업관리 확대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을 선정하였다. 이때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점검 횟수 ÷ 2015년 사업점검 횟수’로 계산하고 있어서 이 지표는 기준년(2015년)에 대한 상대적 변화를 보여준다. 지표 이름을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보험사업점검지수’라고 부르는 것이 성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오해를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 GIS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업무를 간소화하고, 검증 조사의 정확도를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3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 (1) 모태펀드 출자 승수비율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 목표비율 x 100	목표부여 (편차)	222.76%	222.76%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지속적인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농림수산물식품 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 조성의 성과 측정을 위해 모태펀드 추가조성 금액 대비 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액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1년 목표치 222.76%를 100%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 (2)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125	133	100.00	4.00	4.00
		193	236			

나. 평가내용

- 유망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유치 역량 제고 성과측정을 위해 정부의 연간 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투자지원 사업계획 상 목표대비 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투자지원사업 확대성과 산출결과 목표치를 100.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은 정책자금 검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정책자금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잘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대출기관 자체관리역량 강화 지원과 정책자금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SWOT를 통해 2021년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 설정이 이루어져 실행 계획을 명확히 하였다.
- 22년, 23년 검사 실시 기관 수를 400으로 5년 조사 주기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었다. 사업환경분석을 통한 21년 사업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예산 증감이 이루어졌다.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검사의 시스템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농업재해보험관리는 농업정책보험의 공정성 제고, 사업관리 강화를 통한 보험 건전성 향상, 신규수탁사업 안정화라는 계획을 잘 수립하였다. 비계량 성과지표로 다채널 정책보험 교육·홍보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사업관리 강화, 신규사업 체계구축 및 안정적 실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계획을 설정하였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신규 사업으로 인력 증원 및 예산 확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GIS를 활용한 사업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화시키고 온라인기반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추가 및 관리를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하였다.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사업의 경우 사업범위별 정책 및 국민 니즈,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 Pool 및 APFS Top 7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21년 사업추진전략을 선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설정하였다.

- 투자자-농식품경영체 간 정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SWOT 분석을 통해 피투자경영체 기업가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강화라는 약점보완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관련 세부실행계획에는 농식품경영체 on-Demand 지원체계를 통한 혁신성장 마련이라는 1개의 세부실행계획만이 선정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B”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확대하여 출장여비 예산을 절감하였고, 챗봇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실시간 응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출기관의 자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사이트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고, 사망 사후관리시스템, 농업법인 휴·폐업 모니터링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정책자금관리 2명을 증원하여 검사주기를 단축시켰다는 점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했으며 소규모 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검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산 절감효과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 인력증원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향상 및 비대면 검사를 통한 예산 절감은 적절한 활동실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설을 통한 기관 내 인력 배치 변경 시 교육을 통해 관리 및 감독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다만, 비대면 검사기관 선정 기준과 관리 및 감독의 소홀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검사기법개발을 통해 비대면 검사의 검사범위를 일반 검사 영역과 완전히 일치시킨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비대면 검사 대상 기관의 선정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의 경우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농업 경영안전망을 제고하였으며 다양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보험상품 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졌다.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교육·홍보를 연령별로 접근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검증조사기법을 고도화하여 검증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켰고, 조사업무 절차가 간소화시켰다.
- GIS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업무를 간소화하고, 검증 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2021년 적발 건수가 2020년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험상품을 개선하고, 연령별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가입률을 상승시켰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추가될 정도로 재해보험 관리사업 성과를 이루었다.
- 손해평가사 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좋으나 손해평가사 평가방식 개선 등 보다 더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있어서 보험 수요자 입장에서 보험가입 확대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사업의 경우 연간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출자펀드를 구성하던 기존 사후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농식품 경영체 발굴 확대 및 정보불균형 해소 노력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경영체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산학연 및 민관 전문가들이 모인 ‘농식품 모태펀드 포럼’을 통해 선도문야 비중을 높이고 집중지원 및 성장단계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경영체 간 정보불균형 완화를 통한 투자 접근성 제고 노력이 인정된다.
- 향후 농식품기업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추진하고자 하나 해당 플랫폼을 통한 향후 예상되는 성과 등이 사전에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후속 투자 사업 설명회 후 지속적인 후속 투자 유치 성공사례 배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C/B”로 평가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자금관리사업은 주요 사업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를 100% 달성하였다. 비계량 성과로는 비대면교육환경 조성 및 업무 노하우 공유를 통해 정책자금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두 가지 목표에 부합하는 노력 및 성과를 달성하였다.
- 농업재해보험 관리사업의 경우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교육을 추진하여 가입률을 목표치 이상 달성하였으며 GIS 검증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보험료·보험금 절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신규 수탁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를 100% 달성하였다. 다만, 모태펀드 맞춤형 컨설팅 수료 건수 및 크라우드 펀드 성공 건수 실적의 전년대비 개선도는 다소 평이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년대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C/C”로 평가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자체평가와 외부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환류활동을 했다.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외부와 내부 평가를 통해 자체 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자체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 및 확산을 통해 환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년도 성과분석 시 사업내용별 추진 방식 문제점의 영향요인 분석과

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및 사업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자체평가와 외부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환류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C/B”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사업 수립·집행·성과·환류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사업범위별 정책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사회적 약자지원, 일자리 창출을 반영한 노력이 일부 엿보이며, 투자소의 영역인 1차 농산업 및 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의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조성 노력으로 466억원 규모의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인정된다.
- 경영실적 TF, 혁신 TF 협업을 통한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은 긍정적이나, 사회적가치 BP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C/B”로 평가한다.

##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농업정책자금 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 중점점검 대상 관리 노력을 설정하였으며,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 보험사업점검 횟수증가율을 설정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의 성과지표로 모태펀드 출자승수비율,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를 설정하였다.
- 지표의 선정에 있어, 성과지표 pool을 기반으로 명확성, 측정가능성, 원인성, 신뢰성, 적시성, CSF와의 연계성, 사회적 가치 등을 검토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표선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사업 별로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들이 설정되었으며, 나름 유의미한 지표들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지표들의 경우, 측정산식의 보완이 필요해보이며, 과정/초기산출에서 산출/결과 지표로의 변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중점점검 대상 관리노력 지표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형태를 띄고 있는데, 목표가 자의성을 지닐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토요소의 하나인 '성과의 왜곡가능성'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목표 대비 실적형태의 현 지표를 전체 중점점검대상 점검률(중점점검 대상 점검건수/중점점검 대상 건수\*100)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측정산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점점검대상의 선정기준(특히 자율점검 부실이행 기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관리 노력 지표의 경우, 상품 제도 개선 건수를 측정하고 있는데 건수보다도 내용적 중요도가 큰 지표다. 단순 건수 증가가 성과의 질적인 부분

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 '21년에 추진된 개선내용들을 살펴봐도, 사안별로 중요도 및 난이도에 편차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지표의 측정산식을 개선 건수에서 개선율(개선건수/개선소요 건수) 형태의 지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 측정산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선소요 건수의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선소요건수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의로 설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보험사업점검 횟수 증가율은 과정/초기산출지표로 성과대표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보험사업점검 활동의 목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요소(예 : 보험금 부정수급 금액 등)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로 구분되는데, 컨설팅의 경우, 실적을 제시함에 있어 단순 컨설팅 수수료 건수 외에도 컨설팅으로 인한 효과 등 질적인 측면(예 : 컨설팅 수수료 경영체 중 투자유치 성공비율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성공의 경우, 성공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지표 간 가중치의 경우, 사업비, 인력, 정책중요도, 사회적가치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중치 선정 기준의 요소 간 중요도가 상이해 보이며, 정책중요도와 사회적가치 간의 중복적인 요소도 있어 보이므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농업정책자금자금사업의 지표인 정책자금 현장검사 실시율과 중점점검대상 관리노력 지표의 경우, 각각 395건, 51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현재 기관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도전적으로 목표를 설정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표 특성 상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제한될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인정된다.

-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의 지표 중 농업정책보험의 안정적 관리 노력의 경우, 목표의 도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목표 건수의 전년대비 증가보다 '21년 개선된 부분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지표는 매년 개선건수를 늘려나가는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목표치의 임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이며, 측정산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농식품모태펀드운용사업의 지표 중 투자지원사업 확대 성과의 경우, 각각의 세부 측정항목의 목표와 관련해서 목표설정시 고려된 환경적 요소 및 산출근거들을 보고서 상에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한되는 환경 아래서 비교적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가 높지 않으므로, 목표도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추가로 6개 기관 공통적인 사항으로, 편람 상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 임계치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지표(성과대표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라도 매년 일정수준 이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지표로 대체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⑥ 가점 지표

###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검사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좀 더 체계화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식품 정책금융 혁신성장 수요창출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선도 분야에 대한 농식품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 선도분야 펀드 신규 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GIS 기반 조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발률 증가를 통해 차후 GIS 기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추진 노력이 인정되며, 정책금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험 관리 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또한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2점”으로 평가한다.

###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지역 경제와 함께하기 위한 MOU, 자매결연,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사랑의 단체헌혈과 제로페이 도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투자가 소외되었던 농식품 분야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 점은 성과로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3점”으로 평가한다.



### **3.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4	-	3.20	-	-
	(1) 전략기획	2	A	1.80	-	-
	(2) 경영개선	1	B	0.70	-	-
	(3) 리더십	1	B	0.70	-	-
	<b>2. 사회적 가치구현</b>	19	-	13.60	6	5.22
	(1) 일자리 창출	5	B	3.50	2	2.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1	0.63
	(3) 안전 및 환경	5	B+/B+	4.10	-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1.40	3	2.59
	(5) 윤리경영	5	C	3.00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3	-	2.10	1	0.91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1.40	-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D+	0.50	1	0.91
	<b>4. 보수 및 복리후생</b>	6	-	3.60	2	2.00
	(1) 보수 및 복리후생	4	C/B	2.60	-	-
	(2) 총인건비 관리	-	-	-	2	2.00
	(3) 노사관계	2	D+	1.00	-	-
	<b>5. 혁신과 소통</b>	2	-	1.50	2	1.40
	(1) 혁신노력 및 성과	2	B/B+	1.50	-	-
	(2) 국민소통	-	-	-	2	1.40
<b>경영관리 합계(33.53)</b>		34	-	24.00	11	9.53
주요 사업	<b>1.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b>	9	-	5.76	20	19.79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	-	-	15	14.79
	(2) 안전사고 예방률	-	-	-	5	5.00
	(3)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성과관리의 적정성	9	-	5.76	-	-
	<b>2. AGM 예찰 방제</b>	3	-	3.41	4	3.86
	(1) AGM 예찰활동률	-	-	-	4	3.86
	(2) AGM 예찰 방제 성과관리의 적정성	3	-	2.70	-	-
	<b>3.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b>	3	-	2.70	4	3.56
	(1)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	-	-	4	3.56
	(2)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성과관리의 적정성	3	-	2.70	-	-
<b>4.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b>	12	D/B	5.70	-	-	
<b>주요사업 합계(44.07)</b>		27	-	16.86	28	27.21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	0.00	-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	1.20	-	-
<b>총계</b>				<b>78.80</b>		

## 1

##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 (1) 전략기획(비계량)

##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가치체계 재설정을 통한 기관의 비전 및 국민·근로자 안전을 포함한 핵심가치 설정 노력은 타당하며 주요 성과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전략개선 노력도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치체계 적정성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노력은 타당하며 경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접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가치체계 재설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기관의 비전 및 핵심가치 설정 노력, 설립목적과 환경변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기관 역할 재정립 노력, 대내·외 설문조사를 통한 가치체계 적정성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노력(정합성, 명확성, 체계성 등 진단 기준 적용), 전략목표별 주요활동별 이행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위한 기관의 접근개념은 충분성 측면(경영 목표/전략, 핵심 활동/사업 도출, 임무수행관련 주요사업 선정/수행방식 등과 연계 관점)에서 발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국정과제 연계 체계 가시화 노력이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A”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비계량)

###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을 통한 중점사업 및 신규사업 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사업 도출은 공공성 및 검역업무 적합수준을 고려한 포지셔닝 평가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경영평가 및 내부경영진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한 경영개선 과제 도출 및 추진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경영개선 환류기능도 정립되고 있다.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내부직원 의견수렴 노력도 동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환경분석을 통한 고유사업 미래상 도출 노력, 미래상을 고려한 중점사업 및 신규사업 도출 노력, 포지셔닝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선정 노력(공공성, 업무적합성 고려), 자체 경영진단, 전년도 평가결과,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영개선 중점 추진방향 도출 및 추진방향을 고려한 세부 추진과제 도출 노력, 업무개선을 위한 조직 구성원 의견 수렴 노력, 온택트 기반 서비스 혁신, 스마트한 업무환경 조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 노력 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생산성 등에 대한 현 수준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조직, 사업 기능 조정(축소, 유지, 확대 등)과 연계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분석 기능 강화(세부 평가내용 요구사항)가 요구된다. 또한 경영진단, 의견수렴 결과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체계정립 및 기관 업무수행/사업수행 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수준 진단체계 정립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리더십(비계량)

#### ③ 리더십(비계량)

-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장은 자체수익사업을 통한 기관운영의 특성, 검역수요의 변동성 등 기관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인식하고 있으며, 기관의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주요 현안과제 도출 결과는 사회적 가치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침반 리더십을 통한 핵심가치 공유, 주요 현안과제 해결 등을 통한 경영성과 달성 노력 및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참여 확대 등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수행되고 있다.
- 정부정책, 기관의 핵심 업무, 사회적 가치구현 등을 고려한 기관의 현안과제 도출 및 현안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노력, 핵심가치 공유, 내재화를 위한 기관장 역할 및 활동분야 식별 노력,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참여 확대 노력, 이사회 경영제언을 통한 기관장 자격요건 확대, 강화 노력,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 도입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당면과제, 현안과제 등은 기관운영, 사회적 가치구현, 주요사업 등 기관의 모든 관리대상 업무를 대상으로 주요 과제/활동이 식별되는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관 주요사업 관련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분성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기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노력 사항 적절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세부 평가내용을 고려한 현안과제 개념 및 도출 절차 정립 및 이사회 역할의 충분성에 대한 구성원 의견조사 필요성 검토를 권장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B”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일반)	-	-	-	2.00	2.00

#####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평가편람에 제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0.5),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1.5), 총합계 2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체고용인원(정원) 51명 중 청년채용인원 4명으로 261.44%를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율(3%)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여 해당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성과창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전략 도출, 비정규직 검사인력의 정규직 전환, 청년인턴제 운영, 정현원차 관리 외 다양한 근로형태(기관 업무특성 반영)를 통한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의 충분성(고용의 질에 대한 기관의 개념 정립 등을 포함)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의 가시화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 위탁용역 등 주요사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은 타당하나 기관 특성을 고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의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핵심 사업별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과제 도출 노력, 비정규직 검사인력의 정규직 전환 노력,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도입 적절성 검토 노력, 기간제, 전문계약직, 휴직자 대체 등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근로형태 운영 노력, 채용형, 체험형 인턴채용 노력, 사전심사제를 통한 비정규직의 합리적 채용 노력, 공동연구, 위탁용역 등 주요사업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전반적 차원의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분야별 실행과제의 도출을 통하여,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적 가치제고 활동이 되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가치구현 전 분야에 대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검토를 권장하는 바이다. 또한 차년도 평가에서는 세부평가항목 중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의 성과제시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일반)	-	-	-	1.00	0.66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장애인 의무고용(0.3~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7), 단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총합계 1점).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47.06%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33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196.08%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0.7,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68명(월별 의무고용인원의 합) 대비 47.06%,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은 법정 우선채용률 3.0% 대비 196.08%를 달성하였다.

###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

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채용과정의 차별적 요인 배제 등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성과창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채용과정의 전반적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채용점검위원회, 감사참관제도 운영 등의 노력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위한 고졸 적합직무 개발 및 채용 노력 또한 타당하다. 다만, 기관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통합적 인재채용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저소득층에 대한 채용 확대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여성인력양성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여성인력활용 노력은 타당하나,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정부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부정책,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채용제도 개선방향 도출 노력, 전 과정 블라인드 채용, 능력중심의 인재채용을 위한 직무수행능력평가제 운영 노력,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점검을 위한 채용점검위원회(외부인원 과반수 이상) 운영 노력, 내부 감사부서의 채용단계별 참가 등 채용비리의 근원적 차단 노력, 청년인턴제도 체계화, 고졸 적합업무 발굴 및 채용노력 강화 노력,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성인력양성 프로세스 운영 노력, 고졸자, 여성, MZ 세대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처우 개선 노력, 주무부처 협력 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의 채용 공정성·투명성 수준에 대한 내부직원 또는 입사지원자 의견수렴 및 기간제, 전문계약직, 휴직자 대체 인력을 포함한 여성, 고졸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적 요소 또는 불만요소에 대한 의견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환경보존체계 수립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환경보존 추진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기관 고유사업 강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 노력, 전직원 저탄소 문화활동 확산 등의 노력 또한 타당하다. 다만 환경보전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 적극적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동기부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정부정책을 고려한 기관의 환경보전 추진방향 정립 노력 및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 초과 달성 노력은 긍정적이다. 또한 기관특성을 반영한 환경보전 추진목표, 추진전략 등 환경보전 추진체계 수립 노력, 기관 고유사업 강화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 노력, 지역환경보존활동 참여 등 전직원 저탄소 문화활동 확산 노력, 전사적 Green 캠페인을 통한 정부정책 준수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환경보존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종합대응체계 정립 및 친환경 농축산업자 등 고객의 친환경 노력을 고려한 우대정책 추진 타당성 검토는 현재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보전 측면에서 기관의 여건, 특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내용과 이와 연계된 성과(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자체와의 협력/협약 등을 포함)를 함께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환경부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의 특성 및 환경여건을 고려한 재난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조직, 예산 등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은 타당하며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타당하다. 다만,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구체화 노력(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미흡 분야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 및 대응 노력 등)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을 구분(현장작업자, 현장관리자, 본사직원, 외부고객 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 안전관리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 노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 예산확보, 전담인력, 교육실시 등의 노력, 근로자 중심 안전경영체계 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실행 노력,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노력,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근로협의체 및 안전소통채널 개설 노력,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장비 교체 노력,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활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기관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정보보안 전략방향 수립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차년도 평가에서는 부분적으로 성과제시 사항의 지표적합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	-	-	3.00	2.59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3
여성 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0.5

-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확인 결과, 김천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평균 구매금액 실적 이상 평균 구매금액 실적 × 120% 미만으로 나타나 지표 가중치 0.8점 만점에 0.56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2.6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26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8.61%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26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0.68%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2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6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지역농산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기술개발생산품,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는 10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평가하였다.
- 지역사회 참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소통채널이 명확히 구축되어 있다. 1기관 1시장에서 2시장으로 확대해 자매결연 협약을 실시하고,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지역청년 일자리체험, 복지시설 후원 등)을 실시하려 노력하였다.
- 보유자원 기반의 AGM 합동예찰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참여기관 방제노력으로 AGM 발생밀도가 감소되 긍정적이다. 식물검역원의 경우 기관특성을 살린 지역상생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동반될 경우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1년 유튜브채널을 통한 직업체험, 부산지역 청소년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는데, 관련 콘텐츠, 아이디어가 확장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공정거래 기반조성을 위해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관련 비리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1년 공개경쟁이 없어 관련 문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외부심사위원 비율을 50% 이상 하도록 권장하며, 수의계

약의 경우는 건수는 많아도 계약금액이 적어 1건 외에 선금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 기업 자금흐름을 위해 선금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바, 계약한 기업에 대해 선금급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추진전략,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식물검역 인적역량지원 및 협업강화 시스템이 체계적이다. 특히 '21년 AGM 난과 제거 협업(중소기업 2회 지원)의 경우 기관특성이 반영된 상생형 지원서비스로 보여 '22년 성과가 기대된다.
- 전년지적사항이던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 편의제공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21년 지역사회에 개방하지 않았는데, 시설이용 가능성/타당성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부정부패관련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구축했으며, 현재 신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면 추후 처리프로세스 절차가 명확히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21년 12월에 개설된 업무포털게시판(같이잡시다)의 경우 한달간 5건이 기재되어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윤리경영 실행체계 구축을 위해 '21년 기관의 다양한 노력을 실시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기관의 추진방향, 실천과제, 성과모니터링 등 윤리경영 제도, 전략이 구축되어 있다.



- 전년도 지적사항인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외부 이해관계자 청렴도 조사, 익명신고채널, 청렴강사의 내부전문가 육성, 청탁금지법, 승진자,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한 점이 긍정적이다.
- 부패방지 및 갑질근절 아이디어를 공모해 직원의 청렴문화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아이디어 중 4건을 선정해 공유하는 등 윤리의식을 상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 점이 인정된다.
-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타기관 윤리경영관련 사례를 공유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예방 중심의 내부건제시스템 전략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렴시민감사관, 회계감사, 정기감사 등이 적절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인권존중을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교육, 갑질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고무적이다.
- '20년과 마찬가지로 '21년 고충신고처리건수는 0건으로 확인되어 긍정적이거나 실제 워킹이 되고있는지도 자주 모니터링,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p추적방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충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외부), 조치 등 환류계획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관련해 익명제보시스템의 경우 정직원만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지 기간제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평가 시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22년 경영평가보고서에 제시하기 바란다.
- 국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기록물관리 담당자가 1명으로 확인되는데, 여건이 된다면 담당자를 더 늘리기를 권장하며, 관련 교육또한 이수하기를 바란다.
- 이해충돌방지법이 '21년 12월 설명회, 지침이 완료되어 늦은감이 있다. '22년에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 홍보도 실시하기를 권고한다.
- 갑질관련 내부직원의 조사도 '11월에 실시되어 환류계획이 '22년도에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해연도에 조사-환류가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3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국제식물검역원의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021년에 4명을 신규채용하였다. 경영환경 및 업무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력 재배치 및 충원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기간제 및 보조기간제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며, 일부사업소에 특정기간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탄력적 인력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순 검사건수에 따른 업무량 분석 외에 경험이나 근무경력에 따라 검사의 양 및 결과의 신뢰성 등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 구성원 전문성 제고와 관련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필요 시 관련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무연수 교육 등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계획 수립의 체계성 부분은 일부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직위별/직책별로 요구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現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 파악을 통해 전문성 부족분야 등을 도출하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구성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① 주요 사업 업무 및 본부의 지원/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각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

성 영역 도출, ② 전문성 영역 별 전문성 등급(ex. Level 1~5, 상/중/하) 및 등급 판단기준 설계, ③ 분야 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수준 설정, ④ 분야 별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 평가, ⑤ 필요한 전문성 수준과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의 gap분석을 통해 전문성 확보 필요분야 도출 및 확보 추진 등).

- 업무편람 및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보다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현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감사역 등을 제외한 대부분 보직 간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환보직이 잦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매뉴얼을 잘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 또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업무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순환보직 체계의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커리어패스 설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 기관 내 성과평가는 본원과 사무소로 구분되며,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평가의 결과가 개인평가로 연계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은 실적평가(60%), 다면평가(20%), 안전관리(5%), 조직기여(5%), 교육(3%), 자격(3%), 입상자 및 우수자(4%)로 되어 있다. 다면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계량화 되어있다.
- 사무소에 대한 실적평가는 업무수행실적(검사건수), AGM 발견 및 해충발견실적, 상대국 AGM 발견실적, AGM 난파 제거, 선박검사 타사무소 지원, 고객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적절해 보인다. 다만 사업소 별로 환경적 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본원의 개인실적 평가는 부서별/담당별로 개인 KPI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은 S등급 1.5, D등급 0.7로 약 2배 정도 두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 이 외에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하였다.
- 예산편성 시 기획팀에서 사업소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위원회에서 기관 사업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수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며, 과거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예산총액은 126.67억이며, 집행은 112.66억으로 88.7%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불용은 주로 광양사무소 신청사 리모델링 지연에 의해 발생하였다(리모델링 지연에 따른 시설관리비 1.09억, 입주지연에 따라 소모품 구입 감소 6.74억 등).
-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을 확인하였고, 3분기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56.59%로 다소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조정·통제는 기획팀에서, 지출관리는 재무회계팀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기본적인 노력을 실시하였다.
- 예산집행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격주로 기관장에게 상황공유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세부자료 확인결과 모니터링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중심으로 오사용을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에는 사업 별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니터링 후 파악되는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구분한 필요가 있으며(예 : 중요도 하\_담당자 알림, 중요도 중\_해당부서 부서장 알림, 중요도 상\_실장 혹은 기관장 알림 등), 특성에 따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D+”로 평가한다.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사업비 집행액}}{\text{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88.88%	91.11	1.00	0.91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을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88.8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91점을 획득하였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및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평가결과반영,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조직운영 시사점 → 조직 운영방안,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한 조직강화 노력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조직진단을 토대로 분석된 업무량 분석 또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제시한 운영계획대로 '21년에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볼 시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 '21년에 노사협의가 실시되어 '22년에 외부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수체계,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결과 또한 '21년 11월말에 조사되어 환류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원, 대리급의 만족도가 낮은 편인데 관련 환류계획을 '22년에 제시하길 바란다. 직무분석의 내부의견수렴 또한 8월 이후 조사되어 환류계획에 대한 내용확인을 못하였다. 기관의 직무기술서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전년 지적사항과 같이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활동이 다소 느린 편으로 보인다.
- 타기관 사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식진흥원) 벤치마킹,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급 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는데, 직무등급별 범위 등이 적절한지는 보고서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는 의미는 기관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인지에 대한 의문일 뿐, 맞고 틀리다는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제시한 IPAB 직무급 보수체계를 '22년에 운영해보고 제시해주길 바란다.
-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제도 운영 또한 같은 의견이다. 성과평가계획 수립 점검단계, 보수와의 연계 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개선된 성과관리체계를 '22년 운영한 후 제시해주길 바란다.

- 여유 재원을 활용한 하후상방식 인상률 설정은 노사합의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직원 성과평가 계획관련 구성원의 의견을 받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긍정적이다.
- 인건비 관리,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맞춰 준수하였다.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경영보고서의 복리후생비를 정규직, 비정규직원으로 분류해 제시하길 바란다.
- 임금피크제 제도운형을 검토한 결과, 정부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27년까지 제도가 계획되어 있고 대상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긍정적이다.
- 직원의 복지관련 만족도가 전년대비 향상되었으며, 노측 안전을 수렴한 근로조건 개선, 동호회 참여자수,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참여자가 증가한 점이 고무적이다.
- 아쉬운 점은 복리후생분야 니즈파악을'21년에 실시했으나 개선방안에 대한 공문이 '22년 2월로 확인되었다. 직원 복리후생관련 개선 피드백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이며, 퇴사자 면담 등을 통해 원인파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B"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0.9% 이하	0.71%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71%로 기준치 0.9%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0.71%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0.9%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 '20년, '21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조금 특별한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 각 사무소별로 체육 및 문화의 날을 통해 임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장의 지역사무소 순시 등의 활동은 고무적이다. 전년 지적사항인 소통결과 피드백 강화를 위한 소통결과제도화(통합관리체계구축) 부분이 다소 보완된 점이 긍정적이다. 각 사무소별 내부구성원의 업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하고 노사공동목표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13개 안건 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상하좌우 직원 간 소통프로그램 운영),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 등 기본적인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21년의 활동이 타기관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사간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22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기를 바란다.
- 노사협의회는 4차례 실시하였으나 분기 내 운영이 아닌 4분기에 2번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 분기별 운영\*은 하지 못하였다. 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가 5~10월에 몰려 있어 이해는 되나 되도록 분기별로 개최하길 바란다.
  - \*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개최 필요(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직원 연차사용률을 확인한 결과 '21년 84.2%로 전년대비 2.1%p 감소하였다. 검역량 증가로 직원의 보상휴가가 기존에 비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연차사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상휴가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연차저축제가 확대된 점은 당연히 긍정적이나 대외적 관점에서는 연차사용을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직원의 연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외 일가정양립제도를 위해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 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성원의 니즈를 수시로 확인해 다양한 문화개선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직원 연차사용률을 확인한 결과 '21년 84.2%로 전년대비 2.1%p 감소하였다. 검역량 증가로 직원의 보상휴가가 기존에 비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연차사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상휴가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연차저축제가 확대된 점은 당연히 긍정적이나 대외적 관점에서는 연차사용을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직원의 연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 외 일가정양립제도를 위해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 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성원의 니즈를 수시로 확인해 다양한 문화개선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기관의 비전은 세계가 신뢰하는 식물방역 전문기관으로 AGM검역강화, 외래병해충 유입방지구축, 사회적가치구현 등 4개의 전략목표, 전략과제 설정이 명확하다. 이를 통해 10개의 혁신 추진과제, 1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한 프로세스가 적절하며 기관운영과 연계되어 있다.
- 정규 일자리 창출(4명), 지역사회 공헌 활동 확대, 녹색제품 구매확대, AGM 대발생 지역 전담인력 비치 등 기관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제시한 기관장의 성과는 혁신과 연계된 점이 확인되었으며,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 또한 기존에 비해 확대되었다.
- 기관혁신을 위한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기관내부의 혁신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21년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였다. 식물인증원의 경우 '20년에 비해 '21년 외부네트워크 활동이 구축된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 아쉬운점은 10대 추진과제가 모든 기관에서 선정되어도 무방할 만큼 식물인증원만의 특색이 없다. 물론 큰 단위에서 설정한 후 혁신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업무특성 상 안전문화 확산이 중점과제로 선정되는 것은 이해하나 내부TF 아이디어의 기준점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대 추진과제를 다양한 지표로 구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급성, 실현가능성, 중요성 등)해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든지, 객관적 눈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 등의 결과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팀, 개인의 내부평가와의 연계, 승진 등 인사반영에 활용하는 방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제시하길 바란다. 연초 또는 전년 말에 수립한 전략을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기에는 환경적 변화, 인력의 구성, 예산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100% 달성하기 어렵다. 경영보고서의 전략만을 검토해보면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과달성, 보통, 미흡, 전략변경 등의 내용을 간략히 구성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국민소통(계량)

### ① 고객만족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100.00	100.00	1.00	1.00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90.99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1.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90.99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100.00점으로 산출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00점으로 산출되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지수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100.00점을 획득하였다.

##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8.00	0.40	1.00	0.00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8.0점이 부여되어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40점을 획득하였다.

## 2 주요사업

### ①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 (1)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국내 AGM 검출실적 - 상대국 AGM 검출실적)/ 국내 AGM 검출실적 X100	목표 대 실적	100	98.28	98.62	15.00	14.79

나. 평가내용

- 인증원이 발행하는 AGM 무감염 증명서의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상대국에서 신속 통관을 위하여 상대국 AGM 검출 예방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선박검사를 통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확인 결과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98.28%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5점 만점 중 14.79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대국 AGM 검출 건수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검사원의 자격 취득 및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제한된 검역 인력과 기간제 계약직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박 이력관리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선박검사 노력 또한 인정된다. 향후에도 선박이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보다 세밀한 이력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의 주요사업이며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선박 AGM 검사는 전년대비 대폭 상승한 검사건수(3,813건)에도 불구하고 상대국 AGM검사 건수는 대폭 감소한 1건으로 기관의 성과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증강이나 예산 투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기관 차원의 정규직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안전사고 예방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안전사고 발생 건수 / 선박 검사 건수	목표 대 실적	100%	100.00%	100.00	5	5.00

### 나. 평가내용

- 선박 AGM 검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1년에는 안전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률 1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저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대상을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신규로 기간제 검역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점은 안전예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된다. 향후에도 선박 검사 실시 직전의 검역인력의 현장 교육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신규로 검토 중인 대형선박의 사각지대에 있는 AGM 난괴검사를 위해 드론촬영 등 첨단 장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이전 2년간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해연도 대폭 증가한 선박 AGM 검사 건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전무한 점은 기관의 여러 노력이 반영된 우수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만 주요사업 내 평가대상사업의 목표치 설정 중 '검역환경 변화 신속대응'의 목표치를 전년대비 1% 상향(68.7→69.7%)하여 설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급증한 선박검역건수 대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급증하는 선박건수 증가에 따른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형 선박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② AGM 예찰 방제

### (1) AGM 예찰 활동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AGM 예찰 활동률*	목표 대비 실적	110%	105.33%	96.61	4.00	3.86

\* (평가년도 AGM 트랩설치 수/목표 트랩설치 수X0.5)+(평가년도 AGM 트랩조사 수/목표 트랩조사 수 X0.5)

#### 나. 평가내용

- AGM 고위험기간 중 항만 및 항만 주변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밀도에 따라 방제 및 선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트랩설치 조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대비 AGM 트랩 설치 수 확인 결과 100.67%의 실적치를 달성하였고, 목표대비 AGM 트랩 조사 수 확인 결과 112.95%의 실적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GM 예찰 활동률 실적의 목표(110%)달성률은 95.76%로 산출되어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3.8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0년도처럼 2021년도에도 AGM 대발생이 지속되는 환경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개정 및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의 도입은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난괴제거 및 살충제 살포 등 항구 주변 AGM 발생 빈도나 밀도를 조절하려는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히 고위험기간 검사 인력이 부족할 때 검역 전문가를 기간제로 활용하여 대처한 점은 우수한 사례로 판단된다.
- 전체적으로 선박유입 외래해충 모니터링 R&D 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노력 및 항구 주변 AGM의 활동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트랩을 추가 설치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년대비 검역건수 증가에도 선제적인 인력확보로 요구되는 검역업무들을 충실히 수행한 점, 청년 정규직 고용 및 기간제 평가원 채용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R&D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외래병해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토착화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 전년대비 상대국 합격률이 격상된 점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긍정적인 효과

과라고 판단된다.

- 다만 앞으로도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AGM 트랩들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 및 AI 또는 빅데이터 기반 AGM 발생 예측에 기반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AGM 검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지난 평가들에서도 지적하였듯이 AGM 유사종의 국내 유입 및 정착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 예측 자료 및 대처방안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AGM 발생빈도 변화 예측 및 선제적 방제 조치 강구, PLS 전면시행에 따른 AGM 방제약제 살포 제약에 대비한 대처방안 수립, 직원들의 순환배치에 따른 업무 연계성 및 전문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능동적인 대처방안 방안 마련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AGM 예찰 활동을 정량성과 평가기준에 따르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랩수를 고려하면 요구되는 정량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사횟수의 꾸준한 증가가 필하나, 제한적인 인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판독 기반 무인예찰 트랩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 ③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 (1) 수입 재식용 식물 검역 장소 관리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목표부여 (일반)	120%	103.50%	89.00	4.00	3.56

나. 평가내용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실적과 병·해충·금지품 발견을 통해 검역장소 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수입재식용 검역 장소 관리실적 확인 결과 106.58%의 실적치를 달성하였고, 병해충수입금지품 발견 건수 확인 결과 102.18%의 실적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 실적의 목표(12.1%)달성률은 86.25%로 산출되어 지표 가중치 4.00점 만점 중 3.8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업무는 외래 병해충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업무이며, 본 업무를 통해 병해충 금지품 발견실적 및 검출률 등이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청년인력 채용 및 기간제 전문인력 활용에 의해 전년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점은 긍정적이다.
-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비율은 관리직원의 전문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모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순환 근무에 따른 업무연계성 및 전문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외에 기후변화 관련 특정 외래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며, 정부 지원 확대 및 차체 사업 발굴 등의 방편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전문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본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임무 달성을 위해 적절한 대상사업(선박 아시아메미나방 검사)이 설정되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가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검역환경 변화 신속대응’에 대한 목표치 설정은 도전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검사건수가 3,00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률의 목표치 100%는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자원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투입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기관 차원의 정규직 전문인력 확대 및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AGM 예찰 방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AGM 검사 신뢰도 제고 및 환경변화에 대한 검사대응 등의 구체적이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AGM 검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꾸준한 교육 등의 노력 및 고위험기간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검사 인력을 탄력적인 대응으로 감당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였으며, 특히 재식용 식물의 수입 시 동반 유입이 가능한 외래병해충 등의 유입 및 정착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방제 및 비산 방지조치 등을 취한 점은 우수한 결과로 인정된다.
- 다만, 종자 및 구근 등 수입물량의 증가에 의해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업무량이 증가 시 기간제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연계성이나 전문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전년 의견과 동일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A/A”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선박 아시아메미나방(AGM) 검사 사업의 경우 상대국 AGM 검출 건수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검사원의 전문적인 교육 강화를 적절히 수행하여 제한적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선박 이력

관리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선박검사 노력, 검역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우수하다고 인정된다. 대상을 분류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기간제 검역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점도 적절하다고 긍정적이다.

- 전문성 있는 정규직 4명 채용 노력은 인정되나, 고위험기간의 검사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또한 무감염증명서 재발급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야간 검역 가능 시간 조정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AGM 예찰 방제 사업의 경우 AGM 대발생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개정 및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사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기간제 인력을 운영한 점은 긍정적이며 정규인력의 추가 보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검사인력 추가채용으로 검사수행 효율을 제고한 점, 직원의 COVID-19 감염 시 n차 확산이 없었고 직원 격리 시 요구되는 업무를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검사를 수행한 점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 및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근본적으로 정규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력충원에 요구되는 추가 채용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외부 민원을 반영하여 고객 및 직원들의 시각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전년도 의견과 동일함).
- 재식용 수입식물에서 해충 검출 시 적절한 장비를 활용한 긴급방제 및 요구되는 행정조치 등을 바로 취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A/A”로 평가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사업의 경우, 검역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 자격취득률과 검역환경 변화 신속대응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 안전예방률 100% 달성하였다. AGM 고위험기간에 선박검사가 편중되어 있고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예방률 100% 달성은 우수한 성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고위험 기간에 투입되는 현장의 기간제 계약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예방률 10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AGM 예찰 방제 사업의 경우 목표치에 다소 하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인력부족 및 AGM 대발생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규정 개정 및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검역전문가를 기간제로 활용하여 전년대비 검역건수 증가에도 선제적인 인력확보로 요구되는 검역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은 긍정적이다.
- 국내 AGM 검출건수 및 AGM 트랩 정량목표는 입항선박, 나라, 검사 횟수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출건수 정량 성과 기준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의 경우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업무량이 특정기간에 몰리는 특성상 사고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방교육과 모의 훈련 등을 진행한 점 또한 긍정적이다. 안전사고 예방률 목표를 달성한 점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한 중복업무 생략 및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간제/기간제 직원들의 활용으로 검사시간 지체 없이 요구되는 검사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검역병해충 검출실적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성과 왜곡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계량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지역/국가에 따라 병해충

검출 빈도 또는 건수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해충금지품 발견실적으로 확일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A/A”로 평가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무소의 정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대비 가상 모의 훈련 등을 확대 실시한 점,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규직 인력 확충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검역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간제 검역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신설하여 추진한 점은 외부 지적사항을 연계한 조치로 평가된다.
- AGM 예찰 방제 사업의 경우 AGM 예찰 결과를 고위험기 선박검사 시 활용하여 선박검사 효율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난과제거 경진대회 개최 등의 노력으로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AGM 밀도 저감을 위해 난과제거 실적이 상당히 증가한 점, 안전사고 예방훈련 횟수를 늘려서 시행하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도 긍정적이다.
- 향후 기후변화 및 AGM 발생 예측 모델 등 빅데이터 기반 AGM 대발생 관련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사업도 같이 수행하여 추가적인 자원 및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관에 요구되는 사업들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재식용식물 대상 병해충 검사 중 검역관련 병해충 발견 시 즉시 검역 처분 조치하여 병해충들의 외래유입을 차단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한 점 및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기간제 활용 및 적절한 직원배치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 다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순환보직 등 환류 활동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 고용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검역대상 병해충의 비생물적 경로 유입 가능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A/A”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선박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모색한 노력이 인정된다.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전자계약의 확대는 긍정적이며 향후 전면적인 전자계약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AGM 예찰 방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평가원 활용 및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등 능동적 인력 활용 여지가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년인력 채용 및 기간제 평가원 활용에 의한 고용 증가 효과가 인정된다. 또한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사업 참여를 통한 선박유입 외래병해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토착화 방지·예방을 위한 노력 본 사업의 성과로 인정된다.
- 향후 AGM의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를 위해 지속적인 R&D 발굴 필요하다. 또한 AGM 대발생 및 발생밀도, 빈도 증가 상황 및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약제 방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PLS 시행에 따른 방제약제 처방전 발급 및 약제 살포 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원활한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안전한 검사환경 조성, 예찰방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별검사 지원팀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활용에 의해 하계기간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여 적시적기 선박검사를 수행하여 상대국에 신속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년의견과 동일).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A/A”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AGM 선박검역의 성과지표로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 안전사고 예방률을 설정하였으며, AGM 예찰·방제사업의 성과지표로 AGM 예찰 활동률을 설정하였다.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의 성과지표로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를 설정하였다.
- 지표의 선정에 있어, 주요사업별로 성과지표POOL을 구축하고 SMART 검증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표선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주요사업별로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들이 설정되었으며, 나름 유의미한 지표들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들의 경우, 성과대표성에 제한이 있거나 성과왜곡가능성이 있어 측정산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 AGM 검출 예방률의 경우, 최근 3년간 상대국AGM 검출률 대비 평가대상연도 상대국AGM 검출률로 측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상대국 AGM검출률은 국내AGM 발견실적과 상대국AGM 검출실적의 차이를 국내AGM발견실적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AGM선박검역 활동의 결과지표이며, 성과대표성도 일정수준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대국AGM검출률의 산출산식 변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현재 산식으로는 만약 AGM발생빈도가 줄어 국내AGM발견실적이 감소할 경우, 상대국AGM검출실적 1건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도록 되어 있다(예 국내 AGM 발견.건수가 100건일 경우 상대국AGM검출실적 1건당 1%의 실적이 변동되지만, 국내 AGM발견건수가 10건일 경우에는 상대국AGM검출실적 1건당 10%의 실적이 변동됨). 완벽하게 검역을 실시한다는 의미의 지표로 '선박검사건수 대비 상대국AGM 발견건수' 등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안전사고 예방률은 선박검사건수 대비 안전사고 발생건수 50%, 선박검사 근무인원 대비 안전사고 발생인원 50%로 측정되도록 산식이 되어 있다. 두 세부측정항목 간 측정내용이 유사하고 실적 역시 중복되기 때문에 복합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선박검사 수 대비 안전사고 발생건수’만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이며, 직관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해 보인다. 경상/중경상/중상/사망 등 상해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부분은 바람직한데, 가중치 수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AGM예찰 활동률은 목표대비 트랩설치 수 50%, 목표 대비 트랩 조사 수 50%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세부항목 모두 상향지표인데 임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트랩 조사 수의 경우,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조사 시작시점을 앞당기거나 조사주기를 줄여야 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 조사시기 및 주기를 줄일 필요가 없다면 자칫 지표실적을 위해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 지표가 지속적으로 성과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AGM예찰활동의 유용성 부분에 대한 근거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예찰활동을 통해 유충 부화시기 및 성충비행시기, 발생량 등을 예측하여 초동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찰활동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 기온이나 습도 등 기존 쌓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예측하는 것과 어떠한 차별점을 지니는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수입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 성과는 3년 평균 대비 평가연도 관리 건수 30%, 3년 평균 대비 병해충금지품 발견 건수 70%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수입재식용식물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관리실적이 결국 재식용식물 수입건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노력과 연계성이 부족해보인다. 만약 재식용식물 수입건이 줄어든다면 관리실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며, 재식용식물 수입건이 늘어난다면 관리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병해충금지품 발견 건수 역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노력보다 그 해의 수입량, 수입품목의 청결상태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성과왜곡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지표 간 가중치와 관련해서 현재 가중치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향후 가중치 설정의 근거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상대국 AGM 검출 예방률의 경우, '21년에 10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률 역시 '21년 목표를 100%로 설정하였다. AGM트랩 설치는 606개, 트랩조사는 8,086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재식용식물 검역장소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실적은 2,476, 병해충금지품발견 건수는 92건을 목표로 수립하였다.
-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상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정된 수치를 살펴봤을 때 목표 자체는 비교적 도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목표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목표설정 방법의 체계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별 임계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목표설정 시 지표 별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자원적 요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추가로 6개 기관 공통적인 사항으로, 편람 상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 임계치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지표(성과대표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라도 매년 일정수준 이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지표로 대체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⑥ 가점 지표

###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선박 이력관리 등 기관이 축적 중인 데이터의 입력, 관리, 분석결과 활용이 일원화 되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당 시스템 및 기술 도입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점”으로 평가한다.

###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하여 임직원들이 성과급 중 일부를 기부한 점은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별화된 성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수료 인하 성과 또한 코로나 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에 해당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바이러스 대감염 상황에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들을 수행했으며, 또 한 단 1건의 감염 사례도 없이 검사들을 진행한 것은 관련 사업 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단히 우수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1.2점”으로 평가한다.



## 4. 한식진흥원

## ❖ 한식진흥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기준치	등급	득점	기준치	득점	
경영 관리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4	-	2.70	-	-	
	(1) 전략기획	2	B	1.40	-	-	
	(2) 경영개선	1	B+	0.80	-	-	
	(3) 리더십	1	D+	0.50	-	-	
	<b>2. 사회적 가치구현</b>	19	-	12.45	6	5.89	
	(1) 일자리 창출	5	C	3.00	2	2.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40	1	1.00	
	(3) 안전 및 환경	5	B/B	3.65	-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1.40	3	2.89	
	(5) 윤리경영	5	C	3.00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3	-	1.90	1	0.88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1.40	-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D+	0.50	1	0.88	
	<b>4. 보수 및 복리후생</b>	6	-	3.60	2	2.00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B	2.40	-	-	
	(2) 총인건비 관리	-	-	-	2	2.00	
	(3) 노사관계	2	C	1.20	-	-	
	<b>5. 혁신과 소통</b>	2	-	1.30	2	1.47	
	(1) 혁신노력 및 성과	2	C/B	1.30	-	0.87	
	(2) 국민소통	-	-	-	2	0.60	
<b>경영관리 합계(32.19)</b>		33	-	21.95	12	10.24	
주요 사업	<b>1.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b>	4	-	1.92	10	10.00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	-	-	4	4.00	
	(2) 해외 한식당 지원노력	-	-	-	6	6.00	
	(3)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성과관리의 적정성	4	-	1.92	-	-	
	<b>2. 음식관광활성화 실적</b>	3	-	1.68	5	4.83	
	(1) 한식체평 프로그램 만족도	-	-	-	5	4.83	
	(2)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성과관리의 적정성	3	-	1.68	-	-	
	<b>3.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b>	4	-	2.48	8	7.76	
	(1) 해외 한식당 지원 노력	-	-	-	3	3.00	
	(2) 한식교육기관 교육 수요자 취·창업	-	-	-	5	4.76	
	(3)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 성과관리의 적정성	4	-	2.48	-	-	
	<b>4. 한식해외확산 실적</b>	4	-	2.48	5	5.00	
	(1)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	-	-	5	5.00	
	(2) 한식해외확산 실적 성과관리의 적정성	4	-	2.48	-	-	
	<b>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b>	12	D+/D	5.70	-	-	
	<b>주요사업 합계(41.85)</b>		27	-	14.26	28	27.59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	0.20	-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	0.60	-	-	
<b>총계</b>		<b>74.84</b>					

## 1

##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 (1) 전략기획(비계량)

##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등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외부 의견수렴, 환경분석 등을 통하여 가치체계의 개선, 강화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거시환경분석,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가치체계 검토 노력,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 경영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정립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다만 국민, 근로자 생명 등 안전관련 핵심가치는 보다 명료한 개념이 공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 환경분석,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 국정과제 등을 고려한 경영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제도출, 성과점검 등 실행체계는 발전하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개념 및 체계발전이 요구되며, 핵심가치 ‘도전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과제의 도출 개념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이 외에도 기본 역량관점의 강·약점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하여 SWOT 분석의 타당성 제고가 요구된다. 또한 비전의 개선의미와 연계한 가치요소의 타당성·충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설정된 가치요소와 가치요소별 의미부여 결과의 타당성·충분성·일관성 등에 대한 의견조사 필요성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비계량)

###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을 통한 조직기능 정비, 기존 내역사업의 개선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미래 핵심이슈를 반영한 성장사업 도출, 세부추진사항 선정 등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전년도 평가결과, 자체 경영진단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은 타당하나, 기관의 효율성 수준 등 분야별 현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경영평가, 자체경영진단 등을 통하여 도출된 기관의 분야별 역량수준을 고려한 종합적 경영개선계획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제시체계는 발전하고 있으며, 거시환경분석 등을 통한 조직기능 정비, 성장사업 도출 노력, 전략방향을 고려한 내역사업 조정 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노력, 비대면 밀키트 사업추진, 한식문화공간 이음 조성 등 경영효율화 노력이 인정된다.
-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 쇠퇴하는 기능 또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조정 필요성 검토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이 외에 기관 업무수행/사업수행 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수준 진단체계 정립 검토, 기관의 임무와 연계된 거시환경 분석 요소 도출 노력 강화, 조직/인사 관리 만족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요소 도출 및 대응방안 수립 노력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경영진단(경영목표 대비 현수준 분석 개념 반영)의 필요성 검토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리더십(비계량)

#### ③ 리더십(비계량)

-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브랜드가치 제고, 공공성, 대내외 소통, 구성원 사기제고 등 기관이 관심을 두고 지향해야 할 요소 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등에 대한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연도별 세부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성과제시체계의 발전이 필요하며 기관의 비전, 전략목표를 고려,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분성 등에 대한 검토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 핵심가치 전파, 조직개편 및 임시조직 운영 등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주요 사업분야를 포함한 기관장의 노력 및 성과가 체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 9개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 노력, 내부소통 노력 등 핵심가치 공유 노력,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통한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범주 유형별 현안과제 식별 및 대응체계 정립,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내재화 노력 등의 성과제시 필요성, 핵심가치 연계 요소별 기관장 성과제시 활동내용의 적절성·충분성 검토 및 개선활동 식별체계 정립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평가내용을 반영한 성과제시 기능 강화,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업무혁신 등의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D+”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일반)	-	-	-	2.00	2.00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평가편람에 제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0.5),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1.5), 총합계 2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체고용인원(정원) 51명 중 청년채용인원 4명으로 155.04%를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관의 주요사업, 기관발전계획(미래 지속성장 포함)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세부추진사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체계적 접근 측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효과(청년인턴 3명 포함)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전반적 차원의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세부분야별 실행과제의 도출을 통하여, 구성원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적 가치제고 활동이 되도록 관리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민간일 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창출 전략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노력, 한식 전문인력 취업지원 등 민간일 자리 창출 노력, 신규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전반적 차원의 전략구상 타당성 및 정원확대 노력의 성과 제시 필요성,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 타기관 사례 벤치마킹/비교분석 등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고용의 질에 대한 기관의 인식, 대상범위, 주요 요소 등이 사전에 정립될 필요가 있음)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기관이 도입한 근로형태별 일자리 창출 기여수준 판단 및 관리체계 정립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등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성과(기관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항목별로 기관의 적용가능한 항목의 판단/분석 노력 포함)를 제시하고, 제시된 성과의 지표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일반)	-	-	-	1	1.00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3~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7), 단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총합계 1점).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고용률 대비 155.04%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한식진흥원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지표 가중치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한 성과창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무부처 의견수렴,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의 노력은 타당하다. 다만, 고졸 적합 업무, 다문화 가족 적합 업무 등 평가세부사항과 연계된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분석 노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위한 노력(가점제도, 홍보 등)은 사회형평적 차원, 국가자원의 적극적 활용 차원에서 개선방향(기관업무 특성을 고려, 경력단절여성 활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식별 등) 모색이 필요하며,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기관의 관리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주무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공정채용 절차 개선 노력, 채용절차 전문기관을 활용한 직무중심 채용 강화, 채용점검위원회(외부위원 과반수) 등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노력, 청년 및 비수도권 인력채용 등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노력, 장애인 채용을 대비한 사무환경 개선 노력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관업무 범위 및 특성(발전방향 포함)을 고려한 고졸적합업무 발굴 노력 강화(충분한 검토결과 채용이 어려운 경우 미채용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가 요구되며, 기관의 채용 공공성, 투명성 수준에 대한 직원(내부 구성원)의 인식조사 필요성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 계획수립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평가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항목에 대한 기관의 수용 가능성 여부 및 가능수준 판단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경영 추진조직 정비,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활동, 지역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보존활동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등 정부정책이 반영되고 있다. 환경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정립 노력 및 담당부서별 전문영역 구축을 통한 효과적 환경보존활동 추진 노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의 여건,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정부정책, 기관운영(직원 행동양식 및 마인드 포함), 주요사업 추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응체계의 정립 등 효과적 활동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식 특성/문화와 연계한 환경보존 필요사항 발굴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 및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환경부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한 개선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재난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요소를 식별하고, 기관운영, 주요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대상별 예방, 대응, 복구 개념의 단계적 재난관리체계정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관리 요소의 확대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제안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부족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개선계획의 구체화 노력이 필요하다.
- 재난유형을 고려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노력, 전담인력 확충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한 안전경영체계 구축 노력, 신규사업 발굴 및 비대면 사업추진을 통한 고객/국민 안전 사고 예방 노력,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피해방지 노력, 안전한 ‘한식문화공간 이음’ 조성 사업관리 노력,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이버 안전 수준 제고 노력,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차년도 평가에서는 성과제시 사항의 지표적합성을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	-	-	3.00	2.89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물품	구매총액의 3%		0.2~0.3
여성 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시촌생산물품	자활용시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확인 결과, 김천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평균 구매금액 실적의 120% 이상으로 확인되어 지표 가중치 0.8점 만점에 0.8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1.9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19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기술개발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경상경비의 1%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6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구매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평가하였다.
- 지역사회소통, 참여채널 운영을 위한 지역발전 과제도출 프로세스(지역사회, 지역한식당, 지자체의 요구사항 → 추진전략)가 전년에 비해 개선되어 긍정적이다. 코로나 19 영업제한으로 어려운 한식당을 위한 코리아 고메워크, 국산 식재료 지원 등의 맞



춤 프로그램은 기관특성이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욱 다양한 관점의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를 권장한다.

- 전라남도, 대구지역의 지자체 연계사업 또한 참여인원이 많아 고무적이며, 지역농산물 돕기, 맞춤형 사회공헌 등을 종합해 볼때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노력 접근개념의 정립, 추진과제 도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정부권고사항대로 계약금액의 선지급율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 타당하다. 공개경쟁의 경우 외부심사위원비율 50% 이상인 것이 확인되어 공정경제 관련 기준을 지키고 있다.
- 전년 지적사항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적 기술지원방안에 대해 진흥원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나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 테마형 음식관광 상품육성, 국산 식재료 활용 레시피, 한식 밀키트 제작 및 보급사업 등을 제시하였는데, 관련 성과보다 현 진흥원의 위치상 더 많은 아이디어와 영세기업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전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 한식진흥원의 경우 한식이라는 친숙한 이미지와 서울 북촌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이 타기관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다. 활동내역 확인결과 편의점, 한식도서관, 카페 등을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였는데, '22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클린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21년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을 꾸준히 내부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기를 권장하며, 신고가 있을 경우 처리프로세스(외부위원 등)이 명확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 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20년에 비해'21년 윤리경영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렴한 윤리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운영체계, 중점추진, 세부이행과제 등의 체계가 명확해 전년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렴문화 확산지속을 위해 신입이사장 이하 전직원의 교육(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 신입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등)을 실시,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내부건제시스템을 구축해 예방적 컨설팅 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한 점이 긍정적이다.
- 부정부패, 클린센터 관련 신고프로세스를 도입해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사례는 없으나 윤리경영게시판을 통해 접수(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된 내용의 질의응답 등이 확인되었다.
- 이해충돌방지법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가를 통한 교육,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관련제도 시행자료 등 홍보가 확인되었다.
- 인권경영 관련, 이해관계자간 소통채널을 도입하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스템과 조직문화가 '21년 구축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프로세스 운영 절차 또한 구축되어 투명한 조직관리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다만 한식진흥원의 윤리경영 관련 프로세스가 '21년에 대부분 구축되어 해당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운영 수준을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향후 윤리 경영 프로세스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1)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20년 감사실을 설치하고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업무계획, 매뉴얼, 지침 등 체계는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시민감사관(2회 운영) 등의 운영-결과-환류 내용은 아직 구축단계로 보인다. 시민감사관의 역할, 인원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2) 국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한 기록물관리 담당자, 지침, 관련 교육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22년에 관련 내용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3) 외부업체를 통해 갑질관련 조사를 '21년 9월에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설문조사도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갑질이 있는지 모름/무응답비율이 50%로 나타났는데, 진흥원 직원의 몇 %가 응답한 것인지, 설문 후 환류를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③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으며 한식진흥원의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20년 12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21년 12월, 1년만에 다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공간 이전 및 전략방향 변경 등에 따라 조직개편 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만큼 개편 시 의도한 목적달성 여부의 확인, 인력 배분의 최적화 수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조직진단 및 업무량 분석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시학습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니즈를 반영한 직무교육 추진, 사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필요 전문역량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인사이동 시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위별 필요한 전문역량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에 대한 파악 후, 기관 차원에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 확보(교육 등)의 우선순위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 및 운영요령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특히 한식진흥원은 모든 인력이 모든 직위에 순환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매뉴얼의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특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커리어패스 등의 설계를 통해 전문성 확보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한식진흥원의 내부 성과평가체계는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부서평가는 공통지표 50%와 부서자율지표 50%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지표는 정보보안지수, 연차활용도, 복무기준 준수율, 내부고객만족도, 학습이수 등 기본적인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율지표는 부서의 고유업무영역에 대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식진흥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설계로 보여진다. 부서평가의 결과는 개인평가에 40% 반영된다. 개인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및 연봉인상에 반영되는데, 성과상여금이 100~300%로 3배 격차, 연봉인상률도 0~2.9%로 상당히 영향력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 평가체계 및 결과의 환류 수준을 고려할 때는 성과중심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평가환류가 강한 상황에서 부서간 자율평가 난이도의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수용도를 확보하는데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으며, 업무특성 상 투입에 따른 성과 차이가 크지 않은 업무인 경우, 성과상여금 차등폭에 대한 불만도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외에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은 예산편성 시 편성(안)에 대하여 사무총장 및 부서장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 조정을 하고 있으며, 경영방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예산편성 시 사업별 환경변화 등은 일정수준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과거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한식진흥원의 예산총액 133.34억이며, 집행액은 114.33억으로 85.7%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였다(2019년 96.9%, 2020년 74%). 매년 예산집행률의 편차가 큰데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 사고이월은 13.5억, 불용은 5.51억이다. 이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불용의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원인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 조정은 3.88억, 재사용은 6.21억 발생하였다. 조정이 기존('20년 10.76억)보다 상당수준에서 감소하였는데, 코로나 등의 상황변화가 '21년 예산편성시에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예산편성 및 조정은 사업기획팀, 예산집행 및 통제는 경영지원팀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단위 결산을 통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주기는 모니터링의 주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 결과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메일로 담당자에게 알리고, 인터뷰를 통해 관련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교적 적절하게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모니터링 후 파악되는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다 고도화하면 좋을 것이다.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구분한 필요가 있으며(예 : 중요도 하\_담당자 알림, 중요도 중\_해당부서 부서장 알림, 중요도 상\_실장 혹은 기관장 알림 등), 특성에 따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D+”로 평가한다.

##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84.60%	87.68	1	0.88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84.6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88점을 획득하였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및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1) 직무 중심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평가결과반영, 2)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보수체계와 관련한 직무분류체계를 확인한 결과 '19년 외부전문기관의 직무분석, 직무기술서(NCS코드부여)가 제시되었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20년을 기점으로 한식진흥법, 조직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기관이므로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 반영에 기존 제시된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제시한 직무급제 고도화 추진계획 등 단계별 도입(노사공동노력 포함), 직무급의 기본급 반영률 제고 등의 내용이 '22년 1월 이후로 도입,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 인사제도 개편 초안 등도 '21년 말에 구성원의 니즈파악을 실시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제시한 직무급제 관련 내용, 중장기 경영목표, 유관기관 벤치마킹, 보수체계 일원화, 직원과의 임금격차문제 등의 내용은 '22년 체계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1년 평가를 위한 기관의 제시내용은 부족하나 고무적인 것은 내부의견을 '22년도에 수렴하고 있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무급제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개편된 체계가 기대된다.
-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인건비 관리,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맞춰 준수하였다.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절감,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임금피크제 제도운동을 검토한 결과, 정부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제도가 계획되어 있고 대상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긍정적이다.

- 기관의 비금전적 복지제도는 추가요청해 확인하였다. 유연한 근로환경조성, 임신출산지원, 가족돌봄 등 일가정양립제도 등이 구축되어 있는 것 확인하였으며, 관련 직원니즈파악을 실시한 점 또한 긍정적이다. 다만, '20년, '21년의 주요 복지제도를 함께 제시하기를 권장하며, 조사 후 환류방안도 함께 제시되면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B"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0.9% 이하	0.65%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65%로 기준치 0.9%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총인건비 인상률은 0.71%로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인 0.65% 이내에서 인상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2점 만점에 2점을 획득하였다. '18년, '19년, '20년, '21년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



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입장을 반영한 상생전략, 합리적 협력관계 체계구축 및 운영 등이 '20년에 비해 구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양한 노사관계 소통창구가 열린점이 고무적이며, 직원의 교육, 노사협의회를 통한 성과 등 활동이 인정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시한 '21년의 활동이 타기관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사간 다양한 활동이 '21년에 체계를 갖추었으니 '22년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기를 바란다.
-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노사협의회 주요 상정안건과 추진결과도 적절하다.
- 고충처리관련 제도도 '21년에 구축이 되어 뚜렷한 '21년 성과는 없다. '21년 12월 이사회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해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여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고충처리, 이사회근로자 참관제 모두 '22년 추진성과를 기대한다.
- 인권침해관련 직원 니즈 파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직원 연차사용률을 확인한 결과 '21년 연차사용률은 97.9%로 전년대비 4.5%p 증가해 긍정적이다.
- 일가정양립제도를 위해 구성원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제도, 가족친화 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성원의 니즈를 수시로 확인해 다양한 문화개선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한식진흥원의 비전은 한식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한식전문기관, '21년 혁신목표는 한식 국내외 확산 및 한식산업 고부가가치화 동반성장 추진을 제시하였다. 혁신전략 및 과제구성은 전년 지적사항이었으며, '21년 제시한 혁신과제 프로세스, 추진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소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고무적이다.
- 특히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성과부분을 검토한 결과, 전년에 비해 다양한 내용(수출지원확대, 관광산업활성화, 고용창출지원 등), 추진성과를 구축한 것이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 '21년 혁신추진조직이 구축되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점이 인정되나 혁신역량 향상, 구성원의 다양한 관점, 동기부여 등 많은 부분에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년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긍정적이며, '22년 활동이 기대된다.
-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제시하길 바란다. 연초 또는 전년 말에 수립한 전략을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기에는 환경적 변화, 인력의 구성, 예산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100% 달성하기 어렵다. 경영보고서의 전략만을 검토해보면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과달성, 보통, 미흡, 전략변경 등의 내용을 간략히 구성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식진흥원의 경우 국내 특급호텔 한식당 입점유도가 전략에 적혀있어 서면평가에서 확인한 결과 기재부 예산심의를 통과 못한 것이 확인되었다.
-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팀, 개인의 내부평가와의 연계, 승진 등 인사반영에 활용하는 방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 혁신관련 활동 니즈파악이 '21년 12월로 확인되었으며, 한식정책개선 추진단 구성을 통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관련성과, 환류계획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체계적 운영, 계획을 통해'22년 활동을 제시하길 바란다.
-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팀, 개인의 내부평가와의 연계, 승진 등 인사반영에 활용하는 방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 한식진흥원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 한식진흥원은 기관 특성 상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이다. 기관의 소통채널을 확인한 결과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의 각 경로별 공식계정 운영으로 소통창구를 일원화하고, 서포터즈를 활용해 쌍방향 소통을 추진(30명, 외국인 3명 포함)해 채널을 운영한 점이 인정된다.
- 제2회 한식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964건이 응모하였는데, 국민참여와 홍보 모두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고무적이다.
- 기관의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제시한 추진성과는 기관 내 형식적인 내용으로 보이며 실제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힘들다.
- 적극행정사례의 경우 외부의 눈(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하기를 권장하며, 다양한 사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직원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정립이 된다면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면책제도 등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C”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국민소통(계량)

### ① 고객만족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6.75	86.75	1.00	0.87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2.95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87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2.95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5.90점으로 산출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88.75점으로 산출되었다. 한식진흥원은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85점 이상인 양호 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지수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8:2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86.75점을 획득하였다.

###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4.6	0.60	1.00	0.00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4.6점이 부여되어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60점을 획득하였다.

## 2

## 주요사업

## ① 한식진흥 기반강화 실적

## (1) 한식 콘텐츠 활용도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당해연도 콘텐츠 제공 건수 / 목표 콘텐츠 제공 건수×100	목표대 실적	100.00	421.20	100.00	4	4.00

## 나. 평가내용

- 진흥원이 개발·보유한 콘텐츠의 확산 및 활용 노력에 의한 한식 콘텐츠 활용 향상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 한식 콘텐츠 활용도는 421.20%로 목표치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본 지표는 한식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한식 콘텐츠의 활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진흥원이 보유한 콘텐츠의 제공 건수를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실적치는 전년(2020) 대비 373건 증가한 465건으로 목표치 대비 421% 초과 달성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4점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동일 날짜에 동일인이 요청한 단순 사진 100건 이상이 실적에 포함되는 등 실적 측정 방식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실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실적 인정 범위를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 (2) 해외 한식당 지원 노력 효과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최고 목표	최저 목표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지원도시 만족도 - 기타도시 만족도	목표부여 (편차)	0.075	0.185	-0.145	0.225	100.00	6.00	6.00

### 나. 평가내용

- 해외 한식당 지원 노력을 통한 해외 한식 소비자의 한식당 방문 만족도 제고 실적 평가를 통해 조사연구결과와 한식당 지원 사업 간의 환류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최고목표인 0.185를 상회하는 실적(0.225)을 거두어 지표 가중치 6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본 지표는 해외 한식당 지원 노력을 통한 해외 한식 소비자의 한식당 방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써, 해외 한식당 지원 도시와 기타 도시의 방문 만족도 점수 차이를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21년 실적치는 0.225로 최고목표(0.185)를 초과 달성하여 목표부여 평점 100점으로 6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 11개국 21개 도시 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역별 현지 여건에 따라 한식당 홍보 지원, 한식 페스티벌,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매년 유사한 지원사업이 반복되고 있는바 해외 한식진흥 기반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음식관광활성화 실적

### (1) 한식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한식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목표 대 실적	97.03	92.88	96.58	5.00	4.83

#### 나. 평가내용

- 한식 체험 확산의 노력에 따른 한식문화관 체험 프로그램 참여객의 만족도 점수 제고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실적치가 92.88로 확인되어 목표치(97.03)를 95.72% 달성하여 5점 만점에 4.8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본 지표는 한식문화관 주관 한식 체험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개선을 위해 한식문화관 체험 프로그램(오프라인) 참여객의 만족도를 산식에 의한 실적치로 나타내고 있다. 2021년 만족도 점수는 전년(2020) 대비 3.95% 감소한 92.88점으로 지표가중치 5.00점 만점에 못 미치는 4.83점을 획득하였다.
-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한식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와 한식 요리 콘테스트 참가자를 만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지표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적 측정 시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전문인력양성 실적

#### (1) 한식전문인력 지원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최고 목표	최저 목표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지원기관당 평균 교육인원 수	목표부여 (편차)	30.75	33.83	24.60	35.73	100.00	3.00	3.00

나. 평가내용

- 국내 한식교육기관 지원사업 수혜기관들의 평균 교육인원 수 증가 노력을 통해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최고목표(33.83명)를 상회하는 실적(35.73명)을 거두어 지표 가중치 3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국내 한식교육기관 지원사업 수혜기관들의 평균 교육인원 수가 직전 3개년도 평균치에 비해 증가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성과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어 기관이 계획한 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2018~2019년 수준에 거의 근접한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성과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량 지표의 달성이 일부 교육기관에서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예컨대, 우송대 ‘글로벌 한식조리사 양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 과정’ 교육인원 158명)에 크게 기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성과 달성이 일부 교육기관의 초과 실적이 아니라, 참여 교육기관의 전반적으로 균등한 실적 향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또한 본 사업의 계량성과 지표를 통해서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의 양적 성과 달성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본 사업의 질적 개선을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사업 추진상의 제약 요인을 제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및 기타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밀키트 및 팀별 창업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향후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목표 설정과 이러한 질적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식진흥원의 한식전문인력 교육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로 20~30명 정도의 제한적인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한식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중점적·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사업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한식교육기관 수료자 취·창업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취업률	목표 대 실적	61.79%	58.05%	95.16	5.00	4.76

### 나. 평가내용

- 국내 한식교육기관 지원 사업 수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생 취·창업 현황 조사 결과를 통해 한식전문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써, 목표치(61.79%) 대비 58.05%의 실적을 거두어 5점 만점에 4.8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도 국내 한식교육기관 지원사업 수혜기관의 교육생 취창업률(58.05%)이 사업 목표치(61.75%)에 비해 다소 하회하여, 성과 목표(계량지표)를 온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2021년도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여타 한식 관련 산업 및 경제적 여건·환경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목표치를 다소 밑돌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식 일자리 취업 정보관 운영 및 취업컨설팅, 한식관련 기업 채용설명

회 및 기업탐방 등 한식 전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된다.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신규지표를 도입한 점은 한식진흥원이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해 도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한식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현재의 성과지표(수혜기관 교육생 취창업 수준) 또한 한식진흥원의 사업 성과를 적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적정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결과가 한식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식진흥원의 사업 추진의 주요 목적이나, 실적에 집계된 취·창업 실적이 일부 타 분야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추후 사업 추진과 성과 집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4 해외 한식 확산 실적

### (1)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frac{\text{당해연도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text{목표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times 0.5$ $+ \frac{\text{당해연도 한식프로그램 지원자 수}}{\text{목표 한식프로그램 지원자 수}} \times 0.5$	목표 대 실적	100%	100.00%	10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한식 프로그램 운영 도시 성과 및 해외 한식 프로그램 수요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목표치 15.6개 대비 실적치 17개로 제시되었고, 한식프로그램 수요자 수 목표치 1732.2명 대비 실적치 1461명으로 제시되어 지표 가중치 5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실적으로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한식 프로그램 수요자 수 등을 제시하였다. 2021년 실적(17개 도시, 2,024명)은 2020년 실적(13개 도시, 1,461명)을 초과하여 계량 목표치를 통해 보여지는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업 추진의 제약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추진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한식진흥원의 사업 성과와 추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2년여 간 지속되면서 해외사업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 전환, 한식 체험 밀키트를 연계한 사업 추진 등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계량 성과 지표에 의해서만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 성과가 평가됨에 따라, 사업의 양적 확장 실적만 평가할 수 있으며, 한식진흥원의 지속적 발전과 국가 한식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질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지금까지의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이 양적 확산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한식 및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을 증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 이를 한식산업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식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관련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산·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5]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 기반강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선정과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환경변화의 예측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신규사업발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량/비계량 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선정과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SWOT 분석 등을 통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시스템은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목표별 자원 배분계획과 사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선정을 위해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을 거쳤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식진흥 기반강화를 위해 설정한 계량/비계량 지표가 적절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에 있어 환경변화의 예측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신규사업발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보완이 요구된다.
-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선정과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환경변화의 예측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신규사업발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량/비계량지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 선정과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SWOT 분석 등을 통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시스템은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목표별 자원 배분계획과 사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기관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선정을 위해 일련의 정규화된 과정을 거쳤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새로운 계량/비계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한 사업추진 전략에 있어 환경변화의 예측과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과 신규사업발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보완이 요구된다.
-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전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선정된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와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선정 과정에서 분석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등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밖에 관련법(‘한식진흥법’)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전략을 도출하며, 분석적 절차를 거쳐서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예산 배분을 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수립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 과정을 거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견지하면서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 및 목표(지표) 등이 수립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사업 모니터링 계획의 경우 세분화하여 수립·제시되고 있으나, 사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 추진 계획수립을 위해 다방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성과 목표 선정을 위한 체계적

검토 과정을 거쳤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 중장기 경영목표, SWOT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전략, 실행과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기관의 자원배분, 사업 모니터링 계획 수립 등 일련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

- 한식진흥원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근본적으로 한식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이다. 한식진흥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한식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동법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사업인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성과목표 달성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도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 한식전문인력 취창업 지원의 성과를 외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성과지표를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과 함께 한식진흥원의 발전을 유인하기 위한 지표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 모니터링 계획도 사업별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추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한식 해외확산 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단계별로 검토 및 선정 절차를 거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사업 선정과정에서 다방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와의 적합성 검토, 성과지표 개발 및 선정, 실행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서 분석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등 추진계획 수립 과정이 체계적이다. 또한 중장기 경영목표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추진 전략을 수립·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러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장기 로드맵의 연도별(기간별) 추진 내용이 크게 차별화되지 않으며, 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성과지표가 한식 해외확산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표인지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이고 적절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다방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성과 목표 선정을 위한 체계적 검토 과정을 거쳤다. 또한 성과지표 개발, 중장기 경영목표, SWOT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전략, 실행과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기관의 자원배분, 사업 모



니터링 등 일련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체계적 절차를 거쳤다.

- 실적 보고서 기술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목표(사업)와 사회적 가치와의 연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공정경제 등).
- 또한 분석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한식 해외확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채택된 2개 성과지표(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 한식 프로그램 수요자 수)가 지속적인 사업의 개선 및 성과 제고와 한식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거나 충분히 도전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사업 모니터링 계획도 사업별도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추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C/C/C”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 기반강화 사업의 경우 한식정보 노출 효과 제고를 위해 온라인 매거진, 오프라인 계간지를 신규 발행하여 콘텐츠 제공 경로를 확대하였으나, 오프라인 매거진(500부)의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로의 배포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어 김치 표기법 변경에 따라 농식품부 산하유관기관 김치 관련 콘텐츠 표기법 오류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해외한식당협의체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여 내실화를 제고하고 사업성과 및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차 협약 의무화를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예산 4억 4천 중 약 28%가 LA 도시에 집중되고 있어 한국 진흥이 실제 필요한 타국가 또는 도시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현지파트너 역할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음식 관련 관광 상품 소재 발굴 및 테마형 관광 상품 육성을 위해 우수음식관광 공모전(경진대회)을 개최하였으나, 선정된 수상작 31개 작품이 실제 음식관광상품과 연계되어 음식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40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으나,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음식 관련 관광 상품 소재 발굴 및 테마형 관광 상품 육성을 위해 우수음식관광 공모전(경진대회)을 개최하고 지방 거점공항 중심 지역 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한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 우수음식관광 공모전(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수상작 31개 작품이 실제 음식관광상품과 연계되어 음식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외국인 대상 국내 6개 지역 김치 원데이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40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으나,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체험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추진계획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관련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한식전문인력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사업 등의 수도권 쏠림 등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설명회, 기업탐방 등의 추진 방식을 변경한 점도 돋보인다.
-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책(사업) 수요자, 코로나19 등 관련 여건과 함께,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내용을 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세를 견지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 그러나 사업 규모 및 수혜 대상과 범위 등을 고려할 경우 한식산업의 규모와 중요성, 전 세계적인 관심 등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충분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대체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크게 기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사업 진행방식과 한식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해 수혜자 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이외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한국·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서 한식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 개발·제작 지원, 해외 한식행사 지원 등 국제 행사 연계 한식 홍보, 한국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외 수요를 조사하고, 밀키트를 활용한 교육 마련과 밀키트 패키징 다양화 등 수요자 맞춤형 개선을 추진하는 등 당면한 여건·환경을 고려하고, 사업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절감, 행정절차 간소화 등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적정하게 사업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해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체험·교육 및 전시·홍보 등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지·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한식산업 발전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의 사업·전략 마련 및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코로나19 등 관련 여건·환경의 변화와 함께 예산 절감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 한식 인식 제고를 위주로 추진되는 현재의 사업이 한식산업 발전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사업·전략이 마련된다면 한식진흥원의 한식 분야에 대한 기여가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륙별 비중을 안배한 해외 사업 배분 이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전략을 세우고 연차별 해외 사업 추진 지역 선정 등 일련의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코로나19가 완화될 경우 국내와 해외를 연계한 사업도 모색·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C/C/C/C”로 평가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식콘텐츠 활용도 제고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두 지표 모두 숫자적인 목표치는 초과 달성하였으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식콘텐츠 활용도 제고와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두 지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과 해결노력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대부분의 사업이 실적 달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한식 콘텐츠 활용성 제고의 경우, 양적으로는 충분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과 해결노력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한식체험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바 성과분석을 통해 달성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과 해결노력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식관광활성화와 한식문화관 운영품질 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바 성과분석을 통해 달성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제시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식진흥원의 기관 설립 목적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성과가 한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계량지표 지표(실적)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의 달성이 온전하게 한식진흥원의 사업의 성과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코로나19와 한식산업을 둘러싼 경제적·산업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량 및 비계량적으로 일정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성과목표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취창업 등의 경우 성과달성에 한식진흥원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모호하다. 또한 성과로 제시한 해외취업 4건 등 일부 실적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한식진흥원의 지위와 역할, 한식산업의 규모와 최근의 전 세계적인 한식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다소 충분하지는 않아 보인다.
- 대내외 여건이 대체로 양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한식 해외확산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2개 성과지표(한식프로그램 운영도시 수, 한식프로그램 수요자 수)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
-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함으로써 달성된 성과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제시된 성과목표와 실적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며, 기관이 목표로 하는 한식 해외 확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한식프로그램 운영이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한 점이 인정된다.
- 한식진흥원의 예산, 인력 등 조직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경우, 해외 한식 확산의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해외 한식프로그램 운영 도시 수와 수요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 및 수요자 수 등의 지속적인 확대가 반드시 내실 있는 해외 한식 확산 기반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향후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의 양적 확산 이외에도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 마련과 이러한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의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D/B/B”로 평가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자체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점검과 평가, 환류를 추진하였고 전년도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하여 환류 활동을 진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한식 콘텐츠를 배포(제공)한 후의 활용도에 대한 feedback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등 환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요자 의견, 자체평가 등을 연계하여 사업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 기관으로서 환류를 통해 사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환류체계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 및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환류의 대부분이 제한적이거나, 사업 외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질적인 사업 개선을 위한 환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시기 조정, 사업 사후관리와 기반 마련을 위한 DB 구축과 자체평가를 통한 비대면 교육 추진, 한식당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온라인 교육 추진 등 수요자 의견과 자체 평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환류 활동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2021년도 자체평가를 통해서 2022년도 환류계획도 이미 마련하여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 시기 조정 등 사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환류 활동 이외에도 사업 내용(교육 프로그램 등)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수요자 의견 조사, 수요생 DB 등의 기반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한식 해외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 및 유관 부서 의견, 자체 평가 결과, 외부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계획 수립과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통해 일부 사업 보완·개선도 이루어졌다. 또한 관련부서 협업, 수요자와 수요기관의 의견 수렴, 자체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실시하였다.
-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운영상의 개선 이외에도 한식해외 확산을 위한 사업의 근본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환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C/C/C”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 기반강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으나, 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는 사회적 가치 고려에 대한 사항이 잘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음식관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ESG 경영 기반 확립 중요성 대두에 따라 탄소 중립 정책을 반영한 한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공정경제,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등 주요 사회적 가치 항목이 기본적으로 밀바탕이 되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전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균형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사업을 지원·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한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과 취창업 지원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경제활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추진 사업을 다양화·다각화함으로써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높이 살 필요가 있다.
- 공정경제,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달성을 고려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조직·인력·예산, 기타 다양한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한식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들이 사업규모, 수혜대상 등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사업 추진의 목적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가치 달성에 기관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 한식 해외확산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정경제,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항목을 일부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한식진흥원의 사업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갖는지 의문이며,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 한식에 대한 경제적·산업적 접근의 중요성이 큰 시점에서 경제활력, 일자리창출, 공정경제 등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목표 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성과목표와 사회적 가치와의 적합성 검토 이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공정경제, 경제활력, 일자리창출)와 성과목표와의 일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의미있는 정도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D/C/C/C”로 평가한다.

## 6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한식진흥원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한식진흥기반 강화의 성과지표로 한식 콘텐츠 활용도, 해외 한식당 지원노력을 설정하였으며, 음식관광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한식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를 설정하였다. 전문인력 양성의 성과지표로 한식전문인력 교육 확산, 한식교육기관 교육 수료자 취·창업률 설정하였으며, 한식 해외확산의 성과지표로 한식 해외 인프라 구축을 설정하였다.
- 지표의 선정에 있어, 기존지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잡는 등 체계적인 지표선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사업 별로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들이 설정되었으며, 나름 유의미한 지표들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들의 경우, 측정산식 상 실적인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외부효과에 따른 성과왜곡 가능성이 상당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과지표명과 측정산식 간의 GAP이 있는 지표에 대해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 한식콘텐츠 활용도는 한식콘텐츠 제공건수로 측정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대표성 부분에서도 지적을 당할 여지가 크다. 또한 제공된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 해외 한식당 지원노력은 해외 한식 소비자 한식당 방문 만족도(지원도시-기타도시)로 측정하고 있다. 결과지표이며,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차이를 통해 해외 한식당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자 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효과성 분석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표로서는 관리하기는 쉽지도 않고, 공격당

할 여지가 크다. 즉, 기타도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만족도에 대한 조사설계는 어떻게 하였는지, 지원도시 및 기타도시에 작용한 외부효과 등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지표로서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역시 기타도시(비지원 도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원도시와 기타도시 간 초기상태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면 좋을 것이다.

- 한식체험 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한식문화관 주관 오프라인 한식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실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매년 실적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지표로 임계치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수혜 한식교육기관 교육생 취·창업률 역시 결과 지표이긴 하나 외부 효과에 의한 성과왜곡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취·창업률이 향상되고 목표를 달성했다라도 이것이 과연 한식진흥원의 노력으로 달성된 것이냐에 대한 논리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결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나 성과왜곡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 지표 간 가중치의 경우, 사업비, 인력, 정책중요도, 사회적가치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중치 선정 기준의 요소 간 중요도가 상이해 보이며, 정책중요도와 사회적가치 간의 중복적인 요소도 있어 보이므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현재 대부분의 지표에서 목표설정 방법의 체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쉬우며 보완이 요구된다.
-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상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설정 자체가 비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목표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목표설정 시 지표 별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자원적 요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또한 계획 대비 실적 형태의 지표인 경우, 단순히 실적달성률만으로는 성과의 난이도를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라도 무조건 도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계획 자체의 도전성에 대한 설득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추가로 6개 기관 공통적인 사항으로, 편람 상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 임계치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지표(성과대표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라도 매년 일정수준 이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지표로 대체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7 가점 지표

###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일부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기관의 일상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추진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 한식 스튜디오를 통해 자체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환경)을 갖추으로써 자체적으로 비대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해외 교육·체험에서의 밀키트 제품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 점이 인정된다.
- 다만 기관 자체적인 시설 등 기반 구축 이외에 한식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노력과 성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도를 통해 증대한 파급 영향 또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 기존의 직접 지원, 카탈로그 활용 등을 탈피하여 한식 포털내 VR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수요자 접근성을 개선한 점은 인정되나, 빅데이터 분석, 한식포털 개편이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을 위한 노력으로 분류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어떠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거나, 활용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제공의 확대 노력 이외에도 한식·한식산업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양질의 데이터 제공의 출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기능과 역할 정립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한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식 콘텐츠 이용(제공)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정보 제공과 활용의 양적 증가 이외에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적 보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해외 한식체험 활용을 위한 밀키트 개발·제작·보급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적으로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한식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관의 노력들이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으로 충분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식진흥원 「감사규정」 내 ‘적극행정 면책제도’관련 조항 신설로 혁신제품 구매에 따른 위험요인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일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 이외에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2점”으로 평가한다.

##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한식문화공간 입점 기관의 전대료·수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로 입점 기관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 국내외 한식당 대상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을 기울였으며,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화한 점이 인정된다.
- 한식진흥원의 기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의 자체적인 대응을 주를 이루었다.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높은 수준의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대부분의 추진 사례가 한식진흥원의 기관 자체적인 기반 정비로 한식분야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시도로서는 미흡하며, 한식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한국판 뉴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6점”으로 평가한다.

## 5.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b>4</b>	-	<b>3.10</b>	-	-
	(1) 전략기획	2	B	1.40	-	-
	(2) 경영개선	1	A	0.90	-	-
	(3) 리더십	1	B+	0.80	-	-
	<b>2. 사회적 가치구현</b>	<b>19</b>	-	<b>14.75</b>	<b>6</b>	<b>5.46</b>
	(1) 일자리 창출	5	A	4.50	2	2.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B+	1.60	1	0.63
	(3) 안전 및 환경	5	B/B+	7.05	-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B+	1.60	3	2.83
	(5) 윤리경영	5	C	3.00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b>3</b>	-		<b>1</b>	<b>0.98</b>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B+	1.60	-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0.80	1	0.98
	<b>4. 보수 및 복리후생</b>	<b>6</b>	-	<b>4.20</b>	<b>2</b>	<b>2.00</b>
	(1) 보수 및 복리후생	4	B+/C	2.80	-	-
	(2) 충인건비 관리	-	-	-	2	2.00
	(3) 노사관계	2	B	1.40	-	-
	<b>5. 혁신과 소통</b>	<b>2</b>	-	<b>1.60</b>	<b>2</b>	<b>1.36</b>
	(1) 혁신노력 및 성과	2	B+/B+	1.60	-	-
(2) 국민소통	-	-	-	2	1.36	
<b>경영관리 합계(35.85)</b>	<b>34</b>	-	<b>26.05</b>	<b>11</b>	<b>9.80</b>	
주요사업	<b>1.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b>	<b>3</b>	-	<b>2.70</b>	<b>8</b>	<b>8.00</b>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	-	-	8	8.00
	(2)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	-	2.70	-	-
	<b>2. 기업 성장지원 사업</b>	<b>10</b>	-	<b>7.80</b>	<b>14</b>	<b>14.00</b>
	(1)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	-	-	6	6.00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	-	-	5	5.00
	(3)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	-	-	3	3.00
	(4) 기업 성장지원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	7.80	-	-
	<b>3. 新인프라 구축 사업</b>	<b>2</b>	-	<b>1.64</b>	<b>6</b>	<b>6.00</b>
	(1)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	-	-	5	5.00
	(2)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	-	-	-	1	1.00
	(3) 新인프라 구축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2	-	1.64	-	-
	<b>5. 주요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b>	<b>12</b>	D/C	<b>5.40</b>	-	-
<b>주요사업 합계(45.54)</b>	<b>27</b>	-	<b>17.54</b>	<b>28</b>	<b>28.00</b>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	0.2	-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	0.6	-	-
<b>총계</b>				<b>82.19</b>		



1

## 경영관리

###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 (1) 전략기획(비계량)

#####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 경영환경 등을 고려한 핵심가치요소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외부 의견수렴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다만, 국민, 근로자 생명 등 안전관련 핵심가치는 보다 명료한 개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 경영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세부 내용에서 요구하는 국정과제와 기관의 전략과제 연계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다만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관리개념 및 과제도출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 환경분석,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가치체계 강화방향 도출 노력, 경영환경에 부합한 비전, 핵심가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치체계 구체화 노력, 가치체계 내재화 노력 및 내재화 수준 진단 노력 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SWOT분석 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제고 노력 강화.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의 의미가 명확히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 핵심가치 요소의 적절성, 충분성 검토(기존가치의 확장된 의미 부여 결과의 적절성 검토), 내재화 진단결과와 연계된 개선/강화 요소 식별 노력 강화가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비계량)

###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거시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 결과, 외부 의견을 고려한 핵심이슈 도출 등 기관의 신규과제 발굴, 기능조정 등의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경영개선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또한 고객 수요 맞춤형 지원, 대외협력체계 강화 등 국민공감 경영 이행 노력은 타당하며 시설인증 통합모델 개발·지원 노력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업무프로세스 혁신은 혁신 주니어보드 등 내부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추가하여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등에 대한 현 수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발전방향이 모색되는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다.
- 거시환경 및 내부역량 분석을 통한 미래 사업화 전략 고도화 노력, 직원 워크숍을 통한 내부역량 분석 노력, 핵심이슈를 고려한 기관의 대응방향(사업추진방향) 정립 및 사업조정, 신규사업 발굴 노력, 전년도 평가결과 및 자체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내외부 의견수렴 및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혁신과제 선정노력(40개 과제), 고객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 개선 노력, 보조금시스템 연동 절차 간소화 등 행정 간소화 노력, 입주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외 협업지원 노력, 시설인증 통합모델 개발, 지원 노력 등이 인정된다.
- 다만, 환경분석 결과와 연계, 쇠퇴하는 기능 또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조정 필요성 검토 기능 강화(사업단위 인력조정 노력은 수행 중임)가 요구되며 및 기관 업무 수행/사업수행 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수준 진단체계 정립 검토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로 평가한다.

### (3) 리더십(비계량)

#### ③ 리더십(비계량)

-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전반적으로 조직의 역량강화를 통한 업무성과 제고, 규제완화, 다니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둔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으며, 주요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 핵심가치 공유,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등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 다만 사회적 가치구현 분야의 당면/현안과제에 대한 기관의 대응 전략 및 체계는 기관이 수행해야 할 전 업무를 대상으로 성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가치체계 공유에 관한 체계는 본 지표에 구체적 성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 역할의 충분성에 대한 의견조사 등 이사회 역할 강화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현안과제별 추진과제, 실행방안 정립 노력, 대내·외 핵심가치 공유, 내재화를 위한 노력, 조직 및 인사혁신을 통한 구성원 동기부여 노력,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현안식별 및 해결 노력, 경영제언 환류 프로세스 정립,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확대 등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된다.
- 기관운영, 사업추진 등 기관의 모든 활동영역을 대상으로 한 현안과제 도출 및 대응 체계 가시화 노력 강화, 사회적 가치구현 분야와 연계된 당면/현안 과제 식별 및 대응 노력 강화,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간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검토기능 및 성과제시 노력 강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B+”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일반)	-	-	-	2.00	2.00

#####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평가편람에 제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0.5),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1.5), 총합계 2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체고용인원(정원) 108명 중 청년채용인원 20명으로 18.52%를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율(3%)을 6배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여 해당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경영환경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의 개선방향을 식별하고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고려한 실행과제의 도출 및 실행 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 정원증원 노력과 함께 투자유치 전문상담 시니어 전문가 활용,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타당하나, 유연근무제를 통한 구체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민간일자리창출을 위한 7대 일자리 핵심사업 추진 노력은 타당하며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견인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인식전환 및 내재화 노력은 보다 세부적 사항이 성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및 주요 실행과제 도출 노력,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자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노력, 고령친화산업화센터 등 신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시니어전문가 활용, 유연근무제 실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창출 전략에 따른 민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발 노력, 기업기술지원, 판로지원 등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견인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인식전환 및 내재화 노력 사항의 구체적 제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 제시 노력 강화(추가 제시사항 중 설문조사 분석 항목 중 기관이 생각하는 관련 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체계/실적 제시 검토), 유연근무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의 구체적 제시 노력 강화, 세부평가내용의 항목별 요구사항을 고려한 성과제시체계 강화(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등), 부분적으로 제시된 성과의 지표적합성 검토 기능 강화 등은 향후 개선될 사안으로 판단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A”로 평가한다.

##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일반)	-	-	-	1.00	0.63

####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3~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7), 단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총합계 1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0.7,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 확인 결과 법정 의무 고용인원 대비 62.86%를 고용하여, 지표 가중치 0.7점 만점에 0.44점을 획득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실적 조사결과 법정 고용률 대비 61.7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19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0.7,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에 0.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블라인드 채용 등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타당하다. 다만, 응시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설문조사 노력은 설문조사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 청년, 장애인, 지역인재, 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자율적 채용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 구성인력을 고려한 여성채용 확대 및 관리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직군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의견수렴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양성평등 임원임용은 '22년 정부기준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직무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 채용점검위원회(외부위원) 운영 등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응시자,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설문조사 노력,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채용형인턴제 신설 노력, 고졸 적합업무 발굴 노력, 여성직원 구성비율을 고려한 여성채용 확대 노력,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달성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설문조사 결과 보통 이하 항목에 대한 환류 방안 검토, 고졸적합업무 발굴 노력의 성과제시 필요성 검토, 고졸,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위한 가점제도, 홍보 등의 타당성 검토, 무기계약직, 별도직군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요소에 대한 직접적 의견수렴 방안 검토, 부분적으로 성과제시 사항의 지표적합성 검토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시설건축, 승용차 5부제 전면실시 등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친환경협의회 운영을 통한 식품물류분야 표준 제정 등의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지자체 협조, 입주기업 협업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 등도 수행되고 있으나 기관의 여건,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은 정부정책, 기관운영(직원 행동양식 및 마인드 포함), 주요사업 추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응체계의 정립 등 효과적 활동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 고유사업 관리, 경영관리 등 전략과제별 실행과제 도출 노력, 지자체 협조, 입주기업 협업 등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노력, 폐기물 관리 법적이행 사항 준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환경보전 측면에서 기관의 여건, 특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내용의 성과제시 필요성 검토, 환경보존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종합대응체계 정립 검토, 기관 구성원들의 직장, 가정에서의 생활양식 변화를 통한 환경보존 활동의 필요성 검토,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보전 관련 자율실천 확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인요인 제공 타당성 검토(산업단지에 대한 기관의 환경관리 업무는 없음)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환경부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 방향에 따라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한 성과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관리 기반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및 예산 증액 노력은 타당하며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의 향상 노력은 타당하나, 부족분야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 및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성과관리의 체계성, 충분성 제고를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의 세부 평가내용/요소 및 재난유형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내외 여건변화 요소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향 도출 노력, 재난안전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강화 등 추진전략을 고려한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정립 노력, 안전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보강, 예산증대, 교육확대 노력, 지역주민, 외부고객 등 국민안전권 보장을 위한 안전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개선 노력 및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 노력, 법적 시설물 관리 위반건수 0건 등 시설물 안전관리 노력, 개인정보보호 매뉴얼 개선, 교육을 통한 정보보안 인식제고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 강화 노력,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을 고려한 재난관리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근로자 내부제안제도 운영 필요성 검토(또는 안전 제안제도 활성화 성과 제시 필요성 검토), 내부근로자, 취약근로자 안전관리를 노력의 충분성 검토, 안전관리 내재화 수준 판단 및 관리방안 검토,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을 고려한 재난관리종합발전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B+”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총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	-	-	3.00	2.83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3
여성 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물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기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물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0.5

-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확인 결과, 김천 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 평균 구매금액 실적의 120% 초과하여 지표 가중치 0.8점 만점에 0.8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1.33%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09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총

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재정 조기 집행 실적 확인 결과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88.01%를 달성하여 0.3점 만점에 0.4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6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지역농산물 구매, 중소기업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은 생산품 구매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평가하였다.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방향 도출을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지자체의 니즈파악을 토대로 실행과제를 선정한 프로세스가 명확하다. 관련 핵심사업 연계, 사회공헌, 지역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전략과 실행과제의 연계성 또한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 핵심사업 연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사회공헌을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 및 이웃사랑 실천, 지역일자리를 위한 추진성과를 확인한 결과, 기관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성과 또한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전년 지적사항이던 단계별 지원계획의 경우 현재 초기단계로 보이나 상생협력관련 전략이 구체화가 되어 있어 '22년 성과가 기대된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검토한 결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사업 자체가 기업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추진활동 및 성과가 명확하다. 글로벌식품존 규제완화를 위한 해소노력,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기업기술애로 및 정보제공 등은 긍정적이며, 식품벤처센터 임대료 감면, 시제품제작 수수료 할인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기업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관내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벤처창업기업 및 농식품기업의 판로개척 또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여건이 된다면 확대할만한 우수한 지원정책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스개발, 성장촉진 등 기술제도적 지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가장 특화된 기관으로 판단되나 대부분 사업정책과 연계된 성과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관 내 다양한 지원정책 아이디어도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 공정경제 조성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행정서류 간소화, 청렴거래 문화조성 등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은 기관내에서 기준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19건의 공개경쟁 외부심사위원 비율을 확인한 결과, 모두 50%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문제가 없다.
- 사회적 경제기업 수요 현황파악, 유형별 기업정보 발굴 등이 '22년 1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22년에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지원가능요소 식별 노력 강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이용 편의성 제공 등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 편의성 제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제시한 안전대피장소, 구급약대피 등은 인프라구축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진흥원의 위치가 전북 익산에 있어 어려운 조건임은 이해하나 기관내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실천과제, 추진체계, 평가환류 등 윤리경영 전략체계는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21년에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해 국민이 함께 참여가능한 윤리경영체계를 마련한 것이 긍정적이다.
- 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외부면접위원, 감사담당자 절차 등을 개선하여 1건의 부정발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 채용관련 투명한 기관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제재조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사업의 감사를 실시하여 8건을 제재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다양한 윤리경영기반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 갑질관련 내부설문조사 응답비율이'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환류활동을 함께 실시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 분기별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지침에 맞춰 운영한 것이 확인되었다.
- 내부견제시스템 또한 자체, 외부위원 등을 임명해 활동을 실시하는 등'20년에 비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자체청렴도 평가 또한 '21년에 시행해 1건의 추진성과를 이루었다. 관련 체계는'21년에 구축이 되어'22년 이후 안정권에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반적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윤리경영 체계는'21년 구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어 고무적이다. 보고서에 적힌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체계구축으로 인한 '22년 기관의 윤리체계구축이 더 기대되며, 다음 몇가지 사항을 보완해 기관운영을 실시하기를 권장한다.

1)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 갑질신고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였다. 현재 신고건수는 제로이나 실제 워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질행위 등 부패방지 점검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다양한 마련이 필요하다.

- 2) 고충처리신고관련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제시한 내용은 형식적인 프로세스로 보인다. 신고기능이 활성화가 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기관운영사례이다.
- 3) 집단내 괴롭힘 자진신고기간을 일주일만 운영하였는데 기간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윤리경영관련 사례공유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③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1년에 조직에 대한 진단 용역을 통해 부서별 기능을 통폐합하였다. 부서별 기능 통폐합에 따른 후속진단을 통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특히 업무량 분석 등을 기반으로 부서 간 업무량 편차, 부서 내 업무량 편차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기피 부서 및 보직과 관련하여 커리어패스 설계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21년에 교육 수요조사 및 외부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일부 직위에 대해서는 필요 전문역량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인사이동 시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조금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보인다. 향후 직위별/직책별로 요구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現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 파악을 통해 전문성 부족분야 등을 도출하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구성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① 주요 사업 업무 및 본부의 지원/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각 분야를 세

분화하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 영역 도출, ② 전문성 영역 별 전문성 등급(ex. Level 1~5, 상/중/하) 및 등급 판단기준 설계, ③ 분야 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수준 설정, ④ 분야 별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 평가, ⑤ 필요한 전문성 수준과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의 gap분석을 통해 전문성 확보 필요분야 도출 및 확보 추진 등)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업무편람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사업 별로 목적, 개요, 기관 별 수행업무, 추진절차 별 세부내용, 참고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절차 별 세부내용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 현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내부 성과평가체계는 조직(부서)평가 및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부서평가는 팀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1개 팀을 상대평가하고 있고, 감사팀의 경우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적절해보이나, 향후에는 부서기능을 토대로 관리/지원 기능을 하는 부서와 사업수행 부서를 구분하여 각각 상대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조직평가 지표는 공통 지표(예산운영/정보보안/혁신노력/사회적가치) 20%, 고유지표 50%, 비계량 지표(계획/추진활동/성과수준/환류활동) 30%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간 고유지표의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성과평가위원회(외부위원 4~5명, 내부위원 2명)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평가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조직 평가의 결과는 개인평가 결과에 30%~60%까지 반영되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 개인평가의 평가기준은 역량평가(리더십, 협조성, 직무능력)/성과평가(개인KPI)/조직평가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반영되는데, 성과상여금이 100~300% 3배 격차로 상당히 차등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 평가체계 및 결과의 환류 수준을 고려할때는 성과중심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평가환류가 강한 상황에서 부서 고유지표 난이도의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가에 대한 내부구성원의 수용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며, 업무특성 상 투입에 따른 성과차이가 크지 않은 업무인 경우, 성과상여금 차등폭에 대한 불만도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외에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예산편성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분석, 과거 편성 대비 증감이 큰 애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경영방침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2021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예산총액은 649.94억이며, 집행액은 452.96억 원으로 69.6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이는 과거 보다 저조한 수준의 집행률로 확인된다.(’19년 81.79%, ’20년 73.52%). 다만 원인행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97.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구축 등에서 집행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낮아졌다. 불용은 15.94억, 사고이월은 181.04억으로 사고이월은 대부분 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137.39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인정된다. 불용은 장비구축 낙찰차액 3.22억, 투자유치 및 홍보에서의 집행잔액 0.83억, 기업기술지원 집행잔액 2.02억, 기관운영관리 집행잔액 5.75억이다. 세부 항목 확인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불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와 유사한 사유로 발생하는 이불용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 연말 예산집행이 집중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을 확인하였고, 3분기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45.9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집행률

을 보인다. 원인행위 기준으로 보면 2분기말 38.34%, 3분기말 69.4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다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 예산 편성 및 조정통제는 예산기획팀이 예산 집행은 인사재무팀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 예산집행 모니터링 관련해서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부진사유를 작성하도록 하여 매월 경영진 회의 때 공유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주기 및 후속조치는 저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B+”로 평가한다.

##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목표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	97.64%	98.11	1	0.98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97.64%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98점을 획득하였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및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평가결과반영,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합리적 보수체계를 위한 직무급제 전환은 초기단계이나, 전년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 점이 인정된다. 현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21년 외부용역을 통해 직무급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노사합의를 통한 단계적 추진, 공감대 확보 등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다.
- SME기반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기술서(118개)를 도출하고 직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직무평가결과를 5레벨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직무가 실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적합한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노사간 의견수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사공동TF 등 객관적 직무평가를 위한 프로세스가'21년에 구축한 것으로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도입한 체계를 실제 운영해보고 부족한 부분, 잘 되고 있는 점 등을 분석하여 '22년 경평보고서에 제시하길 바란다.
- 특히 SME기반의 경우 고연차직원 또는 직무전문가 선발로 실시하는 기법이어서 객관성확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구성원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꾸준히 구성원의 니즈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 근로문화, 보수체계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낮은 지표에 대한 환류계획(신입직원 차등인상), 퇴사자의 니즈파악도 실시하였다. 관심있게 본 것중 하나는 동종업계 대비 임금,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직원의 사기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힌 부분인데, 임금이란 부분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환류부분에 대해 기관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일 것이며, '22년 활동을 기대한다.

- 인건비 관리,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맞춰 준수하였다. 전체 복리후생비 규모 및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평균수준으로 보이며, 집행규정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직과 공무원직의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다. 전년 지적사항이던 임원의 높은 복리후생비도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 임금피크제 제도운형을 검토한 결과, 정부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제도가 계획되어 있다. 되도록 최소 3년 이상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권장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지문성과 등을 확인했는데, 관련 퇴직자 역량강화 교육계획, 실시 등도 체계적으로 제시해주실 바란다.
- 기관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이 '20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다만 타기관에 비해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과 같은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1년 신규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C"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0.9% 이하	0.79%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79%로 기준치 0.9%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가 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외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내용 등이 전년에 비해 구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사협력을 통한 조직생활 개선, 신설된 노사공동노력(복리후생, 일가정양립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신입채우개선 등의 활동 등의 체계가 '21년에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어 타기관과 활동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현재 제시한 활동들, 특히 노사실무자협의체, 온라인 인사상담, 노사공동TF 등 '21년 시작한 활동들이 체계화가 되어진다면 '22년 가장 앞서가는 기관이 될 것이다.
-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다. 노사협의회 주요 상정안건과 추진결과도 적절하다.
- 기관 연차사용률은 '21년 92.67%로 전년대비 4.2%p 오른 것이 확인되었다. 연차를 못 쓴 직원을 위한 연차저축제 같은 일가정양립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물론 연차저축제의 시행은 연차를 못 쓴 직원을 위한 것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되도록 95% 이상 연차를 활용하도록 독려하기 바란다.
- 고충처리관련 위원회의 역할, 절차 등 프로세스가 확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적당하나 현재 3명 모두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되도록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비슷한 맥락이나 인권침해관련해 프로세스정립→직원니즈 파악→처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비전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이며, 3개의 전략은 식품산업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시한 16개 혁신전략은 전년에 비해 연계성이 명확해 졌으며, 기관내에서 실행가능한 혁신전략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제시하길 바란다. 연초 또는 전년 말에 수립한 전략을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기에는 환경적 변화, 인력의 구성, 예산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100% 달성하기 어렵다. 경영보고서의 전략만을 검토해보면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과달성, 보통, 미흡, 전략변경 등의 내용을 간략히 구성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하였는데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 검토, 적용, 실제사례 등의 다양한 활동, 간략한 성과평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시한 16대 혁신 전략 중 대부분은 경영지표와 연관이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확인 불가능한 부분도 존재한다.
- 중점추진과제로 시설장비지원, 식품창업 전문교육 및 시제품제작지원을 제시하였는데 기관특성에 맞는 중점추진과제로 적절하다. 다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경우 양적인 성과제시와 더불어 질적인 성과제시도 가능할 기관으로 판단되는 바, 중점추진과제의 질(효과성)적인 측면제시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성과부분을 검토한 결과, 기업부담 완화, 현장중심의 소통, 전략제시 등의 추진성과를 제시하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 판단된다. 조직, 개인 내부평가와의 연계, 혁신활동 참여시 인사평가평정 반영, '21년 신설된 혁신창안상 등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체계가 인상적이다.

-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다. 핵심고객, 이해관계자별 소통전략과 채널구축이 명확하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 신입직원의 입사후기 영상을 공유한 아이디어는 국민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 중 한가지 일 것이다.
- 사이트 표기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유형별 점검, 성과 및 결과공유 등이 적절하며, 내부혁신아이디어의 경우 60건 중 40건을 선정해 기관 혁신과제에 반영한 부분이 고무적이다.
-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강사초빙, 관련 제도안내, 콘텐츠 공모안내 등 전년에 비해 다양한 활동을 한 점이 확인되었다. 사례공유, 기관의 적극성 부분에서 전년보다 개선되어 긍정적이다. 적극행정사례의 경우 외부의 눈(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선정하기를 권장하며, 다양한 사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직원에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정립이 된다면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면책제도 등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
-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현재 운영성고가 없다. 국민의 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접근성 제고, 다양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B+”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2) 국민소통(계량)

① 고객만족도(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95.77	95.77	1.00	0.96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의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를 편람상 제시된 비율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5.77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96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5.77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91.55점으로 산출되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는 100.00점으로 산출되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전년도 고객만족도 지수가 80점 이상인 보통 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지수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전년대비 향상도를 6: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점 95.77점을 획득하였다.

##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9.0	0.40	1.00	0.00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9.0점이 부여되어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40점을 획득하였다.



## 2 주요사업

### ① 클러스터 활성화사업

#### (1) 분양기업 유치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분양실적/분양목표)×100	목표 대 실적	132,000	241,022	100.00	8.00	8.00

나. 평가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 노력을 통한 분양면적 목표 달성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분양성과 목표치 132,000m<sup>3</sup> 대비 실적치 241,022m<sup>3</sup>를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8점 만점 중 8.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글로벌식품존의 입주제한을 완화하기 위해노력한 점과 지자체, LH, 산단공과 협력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실적을 도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분양목표의 183%인 241,022m<sup>2</sup>의 실적치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향후 신규 투자수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로드맵을 확립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기업 성장지원 사업

### (1) 장비 지원 활성화 성과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비가동률	목표 대 실적	43.60%	44.67%	100.00	6.00	6.00

#### 나. 평가내용

- 기업의 R&D, 제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지원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운용률 목표치 43.60% 대비 실적치 44.67%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6.00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관리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상 가동률 관리장비는 총 180종으로 전체 보유장비의 23.6% 차지하며, 장비가동률 산출을 위해 “실질가동시간”은 시험분석, 계측, 교육 등을 위해 장비를 가동한 시간으로 정의하여 '21년 총 실질가동시간은 114,978시간, 총 보조가동시간은 37,568시간으로 산출되고, 실질 가동시간 75%, 보조 가동 시간 25%로 구성되어 타당한 운영을 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타 업체장비 수수료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수혜기업들은 평균 36.12%의 장비사용 수수료 절감이 되었고, 연구개발 및 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장비사용 수수료 감면으로 인한 수혜기업 347백만원 경제적 이익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21년 장비활용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규모는 28.3억 원으로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효과는 각 21.1억 원 및 7.2억 원으로 추산되며, '21년 약 21.1억 원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식품관련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등 자체구매 및 전문가 배치가 불가능한 사업장 대상 고품질 장비 및 관련 전문가 유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14년부터 추진된 장비 도입 사업이 22년에 완료 됨에 따라, 이제 부터는 장비의 활용 수준을 넘어서 좀 더 부가가치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장비 활용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2) 비즈니스 역량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비즈니스 역량 강화 실적	목표 대 실적	49.57	60.03	10.00	5.00	5.00

나. 평가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판매채널, 각종 홍보 등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실적 목표치 49.57 대비 실적치 60.03을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소비자교류 참가가능 기업 수 대비 참가기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오프라인 박람회 취소 등으로 당해연도 소비자교류 참가건수가 3년평균 소비자교류참가건수 대비 낮게 산출되어 성과가 감소하였다.
- 푸드마켓'은 식품기업의 온·오프라인의 상품 전시·판매 및 참여기업의 정보공유를 통한 신규비즈니스 창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외부 기업과의 연결통로로서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기업뿐 만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연계 생산된 제품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의 연계성(연구·인증지원 등)을 가진 기업을 푸드마켓 참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 간의 B2B 거래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또한 긍정적이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박람회 참가건수는 대형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교류로 통합운영 된 점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대응인 점에선 긍정적이며, 다만 22년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소비자 교류'는 '박람회'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온·오프라인상에서 행사 및 홍보활동 등도 포함되므로 식품기업의 판로확대 및 기업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서의 기업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 (3)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목표 대 실적	314.08	437.74	100.00	3.00	3.00

#### 나. 평가내용

- 청년식품창업 Lab 운영 사업을 통해 창출된 창업 연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청년 창업·사업화 연계 성과 실적 목표치 314.08 대비 실적치 437.74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3.00점 만점 중 3.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정부는 5대 미래 유망 식품분야\*를 집중·육성하는 내용의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본연의 역할 강화와 정부 정책 적극 이행을 추진하여, 미래유망식품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2021년 3월에 HMR산업화지원센터 구축과 고령친화산업화센터 1호 기관 지정과, 4월에 기능성식품 분야의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구축사업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매년 지원팀 수 증가에 따라 창업 성공률은 59%를 유지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창업 성공률 65%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식품창업 전문교육, 액셀러레이팅, 마케팅지원, IR데모데이 및 투자연계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 최근 2년간 보육기업의 창업실적을 성과 산출 근거(산식)에 반영하고 있는 바 旣 보육기업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증가에 따라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22년의 경우 창업 예산 및 지원 목표 팀 수가 2배가량 증가하였고, 팀별 여건에 따라 창업실적 증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③ 新인프라 구축 사업

#### (1)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성과	목표 대 실적	64.2%	64.2%	100.00	1.75	1.75
		45.0%	45.0%	100.00	1.50	1.50
		32.0%	32.0%	100.00	0.75	0.75
		14.2%	14.2%	100.00	0.60	0.60
		8.7%	8.7%	100.00	0.40	0.40

##### 나. 평가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연계 사업추진 공정률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新인프라 구축 이행률 실적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의 경우 구축 진척도 목표치 64.20% 대비 실적치 64.20%로 100.00%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1.75점 중 1.75점을 획득하였다. 기능성식품제형센터의 경우 구축 진척도 목표치 45.00% 대비 실적치 45.00%로 100.00%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1.50점 중 1.50점을 획득하였다. HMR기술지원센터의 경우 구축 진척도 목표치 32.00% 대비 실적치 32.00%로 100.00%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0.75점 중 0.75점을 획득하였다.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경우 구축 진척도 목표치 14.20% 대비 실적치 14.20%로 100.00%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0.60점 중 0.60점을 획득하였다. 기능성원료은행의 경우 구축 진척도 목표치 8.70% 대비 실적치 8.70%로 100.00% 달성하였고, 지표가중치 0.40점 중 0.4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연계 사업추진 공정률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5가지 新인프라 구축 이행률은 목표치 164.1 대비 실적치 164.1로 100% 달성하여, 지표가중치 5.00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 지표는 기업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므로 현재 구축 중인 5개 시설의 인프라 구축 이행률은 해당 사업의 대표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해당지표는 대외 환경변화에 민감한 건설 기반의 성과지표로서 관계기관, 건축사, 하도급 등 대외 환경에 의한 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개 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도전적인 지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 안전사고 예방률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안전사고 예방 실적	목표 대 실적	100%	100%	100.00	1.00	1.00

### 나. 평가내용

- 인프라 구축 공정 과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예방실적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0%로 100%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점 중 1.00점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인프라 구축 공정 과정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안전사고 예방실적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0%로 100%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00점 중 1.00점 획득하였다.
-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 이슈사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업지원시설 기반 구축과 국민의 생명보호 및 산업 안전, 사회적 가치를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표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인프라 구축 공사 시 발생한 안전사고는 ZERO로 목표치 100%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이 기관의 중장기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어 있고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의 연계된 성과목표 및 실행과제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산업단지 분양률이 50%를 초과하는 상황에 예산과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선택과 집중형 투자유치 전략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
- 기관의 주요사업인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은 기관 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본원적 역할에 부합하는 경영목표이나 향후 투자유치 실적보다 착공율, 준공율 등 실질적 안정화와 클러스터의 활성화 관점의 지표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체적으로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대상 정책 집단인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세분화도 필요하다.
- 전담부서가 부처별 정책 수요, 연구개발사업 등 일정을 상시 모니터링, 추진 가능성 검토 후 수행부서에 공유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는 DB화하여 관리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실사가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토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 성과지표가 주로 과정 지표로 제시 되고 있는데, 향후 결과 지표화될 수 있는지가 향후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 사업화 이후 3년, 5년 생존률, 매출 증가율 등의 지표구성 가능 여부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 기관의 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관의 전략 목표와 잘 일치하고 있다.

- 기관은 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와 거시적 환경분석을 통해 제시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비계량성과 지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신인프라 구축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신인프라의 가동률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량/비계량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B/A”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한 ‘앵커기업 투자유치 TF’ 구성하여 글로벌식품존 규제완화를 통해 앵커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달성하였다.
- 임대용지의 분양전환 수요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용도전환 성과는 기관의 적극 행정과 규제개선 주요 성과로 보인다.
- 착준공 정책자금 연계지원과 분양기업의 착준공 모니터링 강화 및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확대 노력으로 이탈기업 감소 효과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 연장, 전북도 투자보조금 지급기준 완화 등 투자여건 개선 노력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 애로해결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 입주기업 중 영세기업이 많으므로 산업단지의 특성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스타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매년 지원팀 수 증가에 따라 창업 성공률은 59%를 유지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창업 성공률 65%를 목표로 설정하고, 식품창업 전문교육, 액셀러레이팅, 마케팅지원,



IR데모데이 및 투자연계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분 류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팀(팀수)	124	4	21	23	30	46
지원인원(명)	274	10	51	49	61	103
<b>창업·사업화 실적(팀수)</b>	<b>73</b>	<b>1</b>	<b>14</b>	<b>12</b>	<b>19</b>	<b>27</b>
<b>창업성공률(%)</b>	<b>59%</b>	<b>25%</b>	<b>67%</b>	<b>52%</b>	<b>63%</b>	<b>59%</b>

- 위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원 팀수, 인원의 증가세 유지는 긍정적이며, 창업 성공률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 창업 성공이후의 3년, 5년 생존률 등 결과 지표 개발이 요청되며, 지재권 등 관리 방안의 제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 기관은 '신인프라 구축 사업' 집행과정에서 고객의 수요조사에 기반한 인프라 설계의 합리성을 확보하였고, 핵심기능별 수요대응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고객 친화적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노력에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녹색건축인증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
- 건설안전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작업 허가제와 작업중지 요청제 등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확보 노력과 불공정행위 차단으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 활용 실적의 2,679%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범국민적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사고에 대응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기관의 신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하도급 등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A/B"로 평가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계량 성과지표인 ‘분양기업 유치실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183%의 실적을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탈기업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과 노력에 따른 이탈율 감소와 분양기업 사후관리를 통해 착공기업의 추가분양 증가 등 산업단지 안정화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율이 65%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주기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체적으로 계획 대비 성과 달성은 긍정적이며, 다만 성과의 원인 분석이 차분히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재권 등에 대한 제도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실적기준	합 계		지재권출원		지재권등록		대회수상		제품생산		창업		보육기관 입주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20년 말	90.5	49	6	12	5	5	4.5	3	55	22	18	6	2	1
'21년 말	149	86	14	28	5	5	7.5	5	87.5	35	27	9	8	4

- 20년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나은 성과를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 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 지재권 활용 및 실시 방안 등의 면에서 다른 공공 기관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22년은 특별 여건에 따라 창업실적 증가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를 줄여 나가는 조직적 노력이 요청된다.
- 신인프라 건설품질 고도화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강화와 관리방식 개선으로 1,328백만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점과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존 기업지원시설의 스마트공장 인증과 디지털 전환의 노력으로 품질안전 선도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미래 수요대응 기업지원 기능이 강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A/A”로 평가한다.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인 식품기업과의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추진하여 환류를 진행하고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개선 조치도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단지의 개념이 단순 제조형태에서 점차 융복합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국가 식품클러스터만의 특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전 년도의 외부 지적 사항들에 대한 반영 노력이 이루어져서 전사 전략방향 공동 발굴로 역량 집결 및 실행력 강화와 경영전략 및 실행과제 도출로 연계성 제고 및 내재화 추진하였고 핵심가치 재해석 및 내재화로 안전·윤리 등 사회적가치 인식 향상을 도모하였다.
-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에 관한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핵심가치의 재해석으로 의미 구체화 및 내재화를 추진하고, 노사와 상생·소통을 강화하여 추진하였고, 비효율 요소 및 발전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중장기 방향과 KPI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및 기능조정 강화를 추진하였다.
- 전략과제-실행과제-부서별 KPI 간 연계성 강화 필요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대외변화 및 내부역량 SWOT 분석, 전략과제와 전략방향 재수립, 부서 KPI와 전략과제 연계성 제고를 추진하여 긍정적이다.

- 경진대회(제안제도), 인식개선 교육, 정책 동향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전사적 역량 결집하였다.
- (인센티브 강화) 제안의 정책반영 등 공이 인정된 조직에는 조직평가 가점, 개인에게는 포상(창안상), 전보(기획기능 부문) 우대 등 방안 마련 등 추가저진 제도 개선 노력이 요청된다.
- 기관은 PDCA 관점에서 자체 사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계획, 실행과 운영, 점검과 평가, 환류를 추진하고 있다.
- 전년도 자체평가 권고내용으로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단계별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B/B”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되며, 투자 규제개선과 투자유치 활동 전개, 분양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여성에 대한 유리친장 해소 등 대표성 제고 요구 및 일·가정 양립의 사회 환경조성 요구에 부응하여 21년도 여성관리자 목표치 달성 완료하였고, 채용면에서도 사회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 장시간근로개선을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추진(노사발전재단 협업)하여,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일터혁신 의제를 발굴하였다.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수면에서 20년 848명 대비하여, 21년에 1,134명으로 전년도 실적의 34% 수준 상향된 실적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 사회형평적 채용확대로 소부문 정부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였다.
- 장애인 관련 기관들로부터의 구매 등 일부 지표가 미달성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다른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컨설팅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내역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정책 내용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지표별 “국민안전”, “근로자 안전”, “지속가능 환경조성” 등 사회적 가치와 연계성을 적절히 제시하였다.
- 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안전경영책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을 실현하였고, 건설공사 하도급 상생 노력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B/A”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클러스터 활성화의 성과지표로 분양기업 유치, 장비지원 활성화를 설정하였으며, 기업성장지원 강화의 성과지표로 비즈니스 역량강화, 창업·사업화 연계를 설정하였다. 인프라 구축의 성과지표로는 기업지원 新 인프라 구축,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설정하였다.
- 지표의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별로 성과지표 POOL을 구축하고, PI연계성 및 SAMRT 검증을 실시하는 등 지표선정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성과목표 별로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들이 설정되었으며, 나름 유의미한 지표들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들의 경우, 성과대표성 및 책임과권한의 적합성 부분에서 한계가 있거나, 성과왜곡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 분양기업 유치지표는 분양 목표 대비 분양실적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21년 말 기준 분양 가능한 면적 대비 분양된 면적이 65.2%로 향후에는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클러스터 활성화'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이므로 향후에는 분양 실적 외에 클러스터의 기능적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
- 장비지원 활성화는 장비가용시간 대비 장비가동시간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총 보유 장비 740여 중 중 3천만원 이상되는 180여 종의 장비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표차제는 큰 문제는 없으나, 장비에 따라 수요에 차이가 클 것이라 보여지며, 이에 따른 성과왜곡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장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가동률을 관리해나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 비즈니스 역량 강화는 푸드마켓 운영지원 성과 40%, 소비자교류지원 성과 60%로 측정하고 있다. 각각의 세부측정산식은 지수화되어 있는데 푸드마켓 운영지원 성과는 3년 평균 대비 오프라인푸드마켓 참가기업수가 40%, 3년 평균 대비 온라인푸드마켓 참가기업수가 60%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교류지원성과는 3대 평균 대비 소비자 교류참가건수에 지원사업 적절성이라 해서 행사개최 건수를 곱해서 산출하고 있다. 소비자교류지원 성과의 경우 측정산식에서 성과왜곡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표의 경우 향후 참가기업 건수가 아닌, 참가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창업·사업화 연계 지표의 경우, 청년식품창업Lab팀수 대비 창업실적건수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 역시 측정산식의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또한 현재 창업실적 안에는 창업건수 외에도 상표출원과 같은 지재권 출원/등록 건수, 창업대회 수상건수, 보육기관 입주건수 등을 다 포함시켜 지수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왜곡 가능성이 있으며, 지표명과 산식 간에 gap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에는 창업 건과 사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 기업지원 新인프라 구축과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 지표의 경우, 공기준수율 및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건수로 측정하고 있다. 성과대표성 및 책임 및 권한의 적합성 등에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표를 다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지표 간 가중치와 관련해서도 향후 가중치 설정의 근거를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분양기업유치, 장비지원 활성화, 비즈니스 역량강화, 창업·사업화 연계 지표 등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10~12%를 상향해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新 인프라 구축 이행률은 100%, 안전사고 발생은 0건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설정 자체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목표설정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목표설정 방법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목표설정 시 지표 별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자원적 요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또한 계획 대비 실적 형태의 지표인 경우, 단순히 실적달성률만으로는 성과의 난이도를 판단하기 어렵기때문에 100%를 목표로 설정했다더라도 무조건 도전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계획 자체의 도전성에 대한 설득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추가로 편람 상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 임계치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지표(성과대표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라도 매년 일정수준 이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지표로 대체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⑥ 가점 지표

###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시행에 따라 기관이 추진한 공공플랫폼 구축과 고령친화 식품우수지정제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나, 향후 신규사업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2년 예산 내 신규사업(3건)을 반영 및 증액하여 ① 푸드파크 기본구상 예산 200백만원 확보, ② 마켓테스트사업 375백만원 확보, ③ R&D지원센터 타당성 200백만원 확보한 점, 벤처창업지원 예산 '21년 比 2배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화센터 지정을 통하여 고령친화 정책·제도 정비, 기술개발 및 사용화 지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역할을 수행하여 추진되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이 8개社, 27제품 지원으로 이루어졌고, 원료정보중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농협경제지주), 중계공급센터 위수탁 계약 체결(농협물류) 한 점 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므로, 후속 조치·제도기반 마련 및 지속 추진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 및 평가기관 지정 운영/가이드라인 구축, 성적서 발급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스마트 산단 조성 및 친환경 그린 신기술 확산, 식품산업의 디지털화 핵심기술인 스마트 HACCP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역할을 주도하여, 입주기업 대상 스마트HACCP 인증지원을 위한 식품인증원 협력 과제 발굴하고, 입주기업 스마트HACCP 도입 지원 기반 마련을 한 점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 운영 고도화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스마트그린산단전환 가속을 위한 홍보 강화를 스마트HACCP 제도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케 되는데, 이의 효과성을 확보키 위한 준비가 요청된다.

- 친환경 미래기술 확산으로 ESG 식품산업의 친환경 분야 이슈 확산, 친환경 과제 발굴 및 해결, 친환경 포장 네트워크 구축이 잘 추진되었다.
- 해외 기능성 원료·소재·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고, 건강기능식품 기업 대상으로 정보제공, 원료개발, 원료 실증지원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도움을 준 점은 인정되나,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해외 원료 동향 정보제공으로 해외원료 정보 및 개발 동향 제시하고 신규 기능성 개발 세미나 개최로 제품개발 가이드 제공하며, 기능성식품 개발 지원으로 원료의 실증 및 컨설팅 지원 등 3대 전략이 잘 제시되었다.
-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 실증지원이 이루어졌고, 특허등록 5건, 논문게재 6건, GLP 독성평가 ,보고서 10건, 수출 1건, 기타 9건이 기술지원 결과로 도출된 원천기술 이전(2개社, 2건)이 실적으로 제시된 점은 가시적 성과로 긍정적이다. 다만, 상품화와 지재권 실시권 등 제도적 보완이 지속 요청되며, 타 공공기관들의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이 요청된다.
-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력양성, 청년창업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식품산업 성장에 요구되는 신 인프라를 구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2점”으로 평가한다.

##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진흥원 내부적으로는 코로나대응회의, 경영회의를 통한 성과점검과 코로나19 예방점검반 별도 구성, 운영되어 주요 시책을 추진하였고, (외부) 입주기업,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추진되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통분담을 위한 수요 중심 지원사업 추진, 입주기업과 함께 안전한 FOODPLIS 조성,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 강화를 잘 추진하였다. 임대료 감면(35%→50%), 연체이자감면(5%) ,부담금 감면 등 입주기업 경영애로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제도 신설로 고용유지 기여한 점과 비대면,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판로지원 강화가 주요한 추진실적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코로나가 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후의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및 지침에 대응하여 계약기준 완화, 대금지급 기간 단축, 계약보증금 감면 등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예산 집행률을 높인 점이 인정된다. 계약관련 지침 개정 등 정부정책 적극이행 기준 마련과 공공구매 추진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수주기회 확대 계약금 조기집행 및 선금지급 확대 등 위기극복 지원 등 공공 기관으로서의 시책을 표준화하여 잘 추진하였다.
- 지역사회 안전예방 구심 역할 강화로 인근지역 재난대피시설 최초지정, 고객 안전사고 및 임직원 코로나 감염 “0”,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실현을 추진하였고, 침수피해상가 성금기탁(9월)의 6건도 제시되었다.
- 한국판 뉴딜 2.0 연계 미래사업 추진전략,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발전방안 수립하고, 공공혁신플랫폼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포스트R&D사업으로 개편으로 실무형 인재육성 체계 구축, 창업실증지원 및 마케팅·판로개척 등의 실적을 제세하였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그린, 휴먼 정책을 위해 공유플랫폼 구축, 식품산업 비대면 디지털화,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이라는 3대 방향을 수립하고 연도별 로드맵과 추진체계를 제시하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인재양성, 스타트업, 판로마케팅 등의 사업은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대학,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체계로 통해 중복성 있는 사업을 방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혁신플랫폼 사업 수주(30억) 취업연계 166명, 고용유지 52명 지원, 창업Lab 창업연계 46팀 달성 및 국내외 판로 개척 1,348억원 달성 등 제시된 긍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 다만 한국형 뉴딜 정책이후의 연계 사업화에 대한 구상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6점”으로 평가한다.



## 6. 축산환경관리원

### ❖ 축산환경관리원 취득점수 총괄 요약표

평가 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 관리	<b>1. 경영전략 및 리더십</b>	4	-	2.50	-	-
	(1) 전략기획	2	C	1.20	-	-
	(2) 경영개선	1	C	0.60	-	-
	(3) 리더십	1	B	0.70	-	-
	<b>2. 사회적 가치구현</b>	19	-	10.40	6	4.00
	(1) 일자리 창출	5	D+	2.50	2	2.00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	D	0.80	1	0.00
	(3) 안전 및 환경	5	C/B	3.60	-	-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	D+	1.00	3	2.00
	(5) 윤리경영	5	D+	2.50	-	-
	<b>3. 조직·인사·재무관리</b>	3	-	1.90	1	1.00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	2	C	1.20	-	-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0.70	1	1.00
	<b>4. 보수 및 복리후생</b>	6	-	2.80	2	2.00
	(1) 보수 및 복리후생	4	D+/D+	2.00	-	-
	(2) 총인건비 관리	-	-	-	2	2.00
	(3) 노사관계	2	D	0.80	-	-
	<b>5. 혁신과 소통</b>	2	-	-	2	0.83
	(1) 혁신노력 및 성과	2	D+/C	1.10	-	-
	(2) 국민소통	-	-	-	2	0.83
<b>경영관리 합계 (26.53)</b>		34	-	-	11	7.83
주요 사업	<b>1. 축산환경 관리사업</b>	6	-	5.40	12	12.00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	-	-	-	7	7.00
	(2)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	-	-	5	5.00
	(3) 축산환경 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6	-	5.40	-	-
	<b>2. 자원순환 활성화사업</b>	5	-	3.90	10	10.00
	(1)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	-	-	-	6	6.00
	(2)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	-	-	4	4.00
	(3)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5	-	3.90	-	-
	<b>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b>	4	-	2.80	6	6.00
	(1)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실적	-	-	-	4	4.00
	(2) 교육·컨설팅 만족도	-	-	-	2	2.00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4	-	2.80	-	-
	<b>4.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b>	12	C/C	7.20	-	-
	<b>주요사업 합계 (47.30)</b>		27	-	19.30	28
가점	혁신성장 가점	1	-	0.20	-	-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3	-	0.30	-	-
<b>총계</b>		<b>74.33</b>				

1

경영관리

① 경영전략 및 리더십

(1) 전략기획(비계량)

① 전략기획(비계량)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과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 등 핵심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과 성과,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전략 수립 및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관의 가치체계 검토노력이 수행되고 있다. 다만 국민·생명 안전에 연계된 핵심가치 요소(윤리의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을 고려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구현을 위한 기관의 구현전략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기관의 접근개념, 주요과제 도출체계 등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환경분석을 통한 현 가치체계의 타당성 검토 노력, 핵심가치 인식수준 진단 등 가치체계 내재화를 위한 노력,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혁신추진과제 선정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swot 분석의 타당성 제고 노력 강화(비전달성 및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 측면에서 역량관점의 강·약점 도출 체계 정립), 기관 내·외에서 국민·근로자 생명, 안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 핵심가치요소의 적절성, 충분성 검토, 사회적 가치구현 관련 기관의 전략과제 구체화 방안 검토(주요사업을 통한 일부 사회적 가치구현 노력은 수행 중), 가치체계 인식수준 진단결과와 분석 및 환류기능 강화(단계별 발전목표 설정 검토),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 도출체계 구체화 노력 강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경영개선(비계량)

### ② 경영개선(비계량)

- 기관의 기능조정·신규사업 발굴 및 경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실적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을 통해 기능조정(쇠퇴하는 기능·사업 정비 등)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혁신 노력과 성과, 경영평가 및 컨설팅 결과 등에 따른 경영개선 계획 수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업무프로세스 혁신(절차 간소화 등)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 및 고객의 의견을 고려한 미래 대응 핵심이슈, 신규과제 도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사업의 조정노력도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미래 대응 핵심이슈와 연계하여 업무/조직 기능의 축소, 유지,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 노력이 체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현재 신설조직 존재).
- 내부 자체진단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은 타당하나, 진단결과 문제점 또는 개선필요 사항과 개선방향을 연계하여 성과가 제시되도록 발전이 필요하며 내·외부 의견 수렴, 자체 진단절차 정립 등을 통한 기관 업무/사업 수행의 효율성 수준 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체계정립이 필요하다.
- 환경분석을 통한 미래 핵심이슈 도출 및 신규과제 도출 노력(사업 조정 및 사업별 인력 조정 포함), 외부전문가 평가 및 자체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 경영관리, 주요사업 분야별 경영혁신 노력, ICT 기술활용을 통한 잠재적 축산악취 선제적 예측·대응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자체경영진단은 기관 임무 분야별/기능별 요소별 문제점 또는 목표 대비 현 수준이 파악될 수 있도록 수행되고, 그 결과 및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내부 의견수렴 절차 정립, 미래 대응 핵심이슈 및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한 하부 조직 기능 적절성 검토 강화(정원 증원 노력이 필요한 부분 포함), 기관 업무수행/사업수행 방법 등에 대한 효율성 수준 진단체계 정립 검토(내부위견수렴제도 포함)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3) 리더십(비계량)

#### ③ 리더십(비계량)

- 기관의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구성원 동기부여, 이사회 운영 등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이 당면한 문제, 주요 현안과제 해결, 기관의 설립목적과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 제고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등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이사회 활성화와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공공기관으로 기관의 지위가 변경된 후, 소통, 내부 만족도 조사 등 조직 내부의 갈등요소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둔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으며, 임무 전문성을 위한 자기계발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관이 당면한 주요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핵심가치 공유, 혁신마인드 내재화를 통한 동기부여 등이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 다만, 기관운영, 사회적 가치구현, 주요사업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당면, 현안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는 제도의 정립 등 관리 및 성과제시체계 발전이 요구된다.
-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등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을 수행 중이며, 기관 구성원 의견수렴 등을 통한 활성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정부정책,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주요사업 선정 노력,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인력 등 선제적 자원확보, 축산환경실태조사 등 실행력 제고 및 부서평가, 혁신사업추진단 운영 등 성과관리 노력, 정부 예산심의 대응전략, 기관 역할확대 등과 연계된 이사회 경영제언 반영 노력, 축산악취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노력, 변화혁신 역량 강화 등 핵심가치 공유 노력, 이사회 경영제언 적극 수렴, 이사회 현장 참여 및 사업자문 활성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이 당면한 문제 등 세부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제시 노력 강화(평가편람 상 본 지표는 기관운영,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수행 등 기관의 모든 업무/기능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기관이 임무수행시 농림부, 환경부의 의견 조정, 지역주민 갈등 해소 노력 등 기

관의 주요사업의 수행,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한 사항의 성과제시 적절성 검토(이와 같은 개념의 당면, 현안 문제 도출 개념 및 절차 정립 검토 포함), 전략목표 또는 주요사업별 현재 운영중인 KPI의 적절성, 충분성 등에 대한 검토 기능 강화, 이사회 역할의 충분성에 대한 기관 구성원등의 의견 조사 필요성 검토, 가치체계 내재화 프로세스의 성과제시 필요성 검토, 부분적으로 성과제시 사항의 지표적합성 제고 노력 강화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장의 리더십을 “B”로 평가한다.

## 2 사회적 가치구현

### (1) 일자리 창출(계량·비계량)

#### ① 일자리 창출(계량)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목표부여 (일반)	-	-	-	2.00	2.00

나. 평가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래 항목은 평가편람에 제시된 가중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0.5),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1.5), 총합계 2점).
-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누적 대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 0.50점 만점에 0.50점을 획득하였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은 전체고용인원(정원) 4명 중 청년채용인원 4명으로 9.09%를 달성하여 1.50점 만점에 1.5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율(3%)을 3배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여 해당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② 일자리 창출(비계량)

- 일자리 창출(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포함)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퇴직자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이외에 정·현원 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및 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과 성과, 핵심사업 및 조달 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혁신적 노력, 협력·공유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통한 지속가능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 다만 체계적 성과제시를 위해서는 세부 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내용에 적합한 성과활동의 식별, 관리, 성과분석 등이 필요하며 각각의 세부평가내용에 적합한 구체적 성과가 제시되도록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체계 정립 노력,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가축분뇨 처리시설 발굴 확대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축산환경실태조사 등 신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일자리 창출 분야 세부평가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전략체계도 정립 필요성 검토, '고용의 질' 개선에 관련된 전략 목표 및 전략과제 도출 필요성 검토,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정립 필요성 검토, 다양한 근무형태별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필요성 검토(일자리 창출 부분에서의 다양한 근로형태는 일자리 창출 효과의 가시화가 필요), 주요사업별 민간 일자리 창출 성과 또는 기대 성과의 구체적 제시, 성과제시의 명확성, 체계성 제고 노력 강화, 성과제시 사항의 지표적합성 제고 노력 강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비계량)

①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목표부여 (일반)	-	-	-	1.00	0.00

나. 평가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과 보호 등 사회통합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아래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장애인 의무고용(0.3~0.7),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0.3~0.7), 단 법정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기관은 0.7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함. 총합계 1점).
-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관으로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사항이 없는 지표 발생 시 가중치 부여 방안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0점,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지표 가중치 1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 국가유공자 채용실적은 0명으로 나타나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점수를 0점처리 하였다.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5점으로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한 후,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계량) 지표 가중치 1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또한 0점으로 산출되었다.

②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비계량)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노력과 성과, 청년·고졸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 여성 인력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고졸자, 무기계약직, 별도 직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적절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임원 임명에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과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청년(지역인재 포함) 채용, 여성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세부 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세부 요소별 기관의 대응 노력 및 성과제시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성과의 지표적합성 제고를 위한 검토기능도 강화가 필요하다.
- 또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전반적인 성과제시 내용의 타당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블라인드 채용 강화,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노력, 청년, 비수도권 인재 채용 노력, 여성 전문가 육성 등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내부직원의 의견조사 필요성 검토, 타 기관 벤치마킹 필요성 검토, 평가내용에 제시된 고졸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 노력의 타당성 검토, 고졸 적합업무 발굴 노력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 강화, 일반직, 기간제를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차별 요소, 처우수준 만족 등 의견조사 기능 강화(남성, 여성 구분),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구체적 노력 강화, 성과제시사항의 지표적합성 제고 노력 강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3) 안전 및 환경(비계량)

#### ① 환경보전(비계량)

-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기관의 주요사업 수행관점에 중점을 둔 환경보존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의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

- 다만 기관의 여건,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존 노력은 정부정책, 기관운영(직원 행동양식 및 마인드 포함), 주요사업 추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종합대응체계의 정립 등 효과적 활동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탄소중립 선도 노력, 기관의 주요사업 연계 축산환경 관리 개념 정립 노력(PDCA)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환경보전 측면에서 기관의 여건, 특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내용의 성과제시 필요성 검토(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자체와의 협력/협약 등 포함), 환경보존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관의 종합대응체계 정립 검토, 기관 구성원들의 직장, 가정에서의 생활양식 변화를 통한 환경보존 활동의 필요성 검토, 성과제시 내용의 지표적합성 제고 노력 강화, 타 기관 벤치마킹 강화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환경부 평가결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과 녹색제품 구매실적 모두 만점을 획득하여 0.5점을 획득하였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비계량)

-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환경분석을 통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 재정립 등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위험요소 식별 노력도 수행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건설과정 실시설계 강화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수행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타당하다.

- 다만 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상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요소를 식별하고, 재난유형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재난유형과 안전관리 대상을 연계한 관리체계 정립 개념).
-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안전경영체계 수립 노력, 위험요소발굴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 축산업 사업장 점검 강화를 통한 현장종사자 안전체계 확립 노력,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한 직원 안전관리 노력(출장업무수행), 가축분뇨처리 시설용량, 처리공정, 가동을 등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노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노력, 사이버 외부침입 위기관리 숙달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외부환경 분석 범위 확대 검토, 성과제시 사항의 구체성 제고, 안전관련 투자, 예산, 조직, 인력 등의 변화 등 평가내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성과제시 필요성 검토(각 세부사항도 동일관점에서 검토), 재난 유형별 예방, 대응 복구 측면의 관리체계 정립 필요성 검토 측면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안전 및 환경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B”로 평가한다.

#### (4)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①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필수선택지표· 기관자율선택지표 충족 여부	목표부여 (일반)	-	-	-	3.00	2.00

###### 나. 평가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을 위한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생과 협력을 위한 항목은 각 가중치 범위 내에서 기관이 설정하였다.



항목	자체평가 기준	기관별 실적 (비율, %)	가중치
지역농산물 구매	1인당 지역농산물 평균 구매금액(정원기준)	구매실적	0.4~0.8
중소기업생산물품	구매총액의 50%		0.3~0.5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총액의 3%		0.2~0.3
여성 기업생산품	구매총액의 5%		0.2~0.3
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의 1%		0.3~0.5
기술개발생산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의 10%		0.2~0.3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자활용사촌 생산 가능 품목 총 구매액의 7%		0.2~0.3
온누리상품권	경상경비의 1%		0.2~0.3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100% 집행	집행실적	0.3~0.5

-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확인 결과,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발생하지 않아 지표 가중치 0.8점 만점에 0점을 획득하였다. 중소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50%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공사 제외)의 3%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확인 결과, 기준치 총 구매총액의 5%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3점을 획득하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조사결과, 기준치 총 구매금액의 1% 이상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5점 만점에 0.5점을 획득하였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 확인 결과, 경상경비 대비 0.82%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0.3점 만점에 0.25점을 획득하였다. 획득하였다. 재정 조기 집행 실적<sup>3)</sup> 확인 결과 상반기 집행계획 대비 52.60%를 달성하여 0.3점 만점에 0.16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평가편람에서 요구하는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평가는 법정기준치 또는 권장비율 준수 수준을 기준으로 6개 기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구매대상별 배점은 기관이 설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실적은 부처평가 결과를 준용하였다.
- 중소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생산품, 여성기업 생산품, 장애인생산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목표는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지역농산물 구매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재정 조기 집행의 경우 상

3) 상반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상반기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 상반기 집행계획 = '21년 6월까지의 농림부 누적 교부액 + '21년 환경부 교부액

반기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재정 조기 집행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류한다. 다만 향후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 ②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비계량)

-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평가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 기관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축산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점이 긍정적이다. 협의체 구성원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 축산과, 환경과, 축산농가, 축산환경관리원, 지역주민 등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성과 또한 대외적으로 홍보해 축산인식 개선효과를 제고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재(축산환경컨설턴트)양성을 실시하고 예산 또한 140백만원을 절감하였는데 관련 양성교육은 기관의 사업특성과 직결되므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컨설턴트 교육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제시했는데, 이는 교육 후 취업과 직결되는 직접효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아닌 일자리창출 “기대”에 가까우므로 향후 경평보고서에는 명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협력·위탁업체 적기 자금결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검토한 결과, 정부권고사항에 맞춰 '21년 선금지급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1년 선금지급건수는 총 8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5건이 2주 후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최장지급기간은 35일로 나타났는데, 되도록 1~2주내에 선금을 지급하기를 권장한다. 공개경쟁 시 외부평가위원 비율을 확인한 결과 50% 이상을 준수하였다(2건 확인).
-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이용 편의성 제공 등 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 편의성 제공 가능성 검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유형별 지원 필요사항 식별 및 지원강화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전반적으로 기관의 업무특성과 연계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세부평가내용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기관의 역량을 고려한 항목별 추진방안 및 추진성과 관리방안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의 업무 특성 및 역량과 연계한 지역사회발전, 가시적인 성과와 기대효과, 환류 등 경영에서 요구되는 전반적 사항에 대한 노력 세부항목에 대한 성과제시, 기관의 노력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5) 윤리경영(비계량)

-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준법·윤리 경영체계의 구축·운영 및 준법·윤리경영 위반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내부건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성과,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검토하였다. 국가위상 실추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는 감점요인으로 검토하였다.
- 기본적인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다.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감사팀 신설, 윤리경영 협의체, 청렴시민감사관(외부, 5인) 등의 조직과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갑질근절 신문고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부패 모니터링 →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실행체계 또한 구축되어 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전문시스템을 활용, ip추적방지를 통한 시스템 또한 흥미롭다.
- 윤리경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전직원 부패교육 등을 실시하고 내부건제시스템, 인권경영체계 또한 구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긍정적이다.
- 전반적으로 축산환경관리원의 윤리경영체계는 '21년 구축단계로 보이며, 실제 환류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 성과는 조금 부족한 편이다. '21년이 체계구축을 위한 한해였다면 '22년에는 윤리경영-환류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된다.

- 다음 몇가지 사항이 '22년에 보완되기를 바란다.

- 1) 기관 내 갑질, 부정부패 신고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였다. 현재 신고건수는 제로이나 실제 워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갑질관련 내외부 조사를 실시한 점이 긍정적이며, 보완사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련 액션플랜도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의 경우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화조사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3) 윤리경영, 고충상담프로세스 절차 등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실제 활동은 타기관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더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 특히 고충상담의 경우 상담이 들어올 경우 어떤 외부위원을 통해 상담,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 4) 사람중심 인력경영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는데, 분기별 1회 운영되어야 하는 노사협의 회 외에 인권교육, 갑질, 고충상담 등 관련 21년의 활동이 미비한 편이다.'22년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
- 5) 중요기록물에 대한 공개청구가 0건이라는 것은 실제 운영이 되고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기록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침 또한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6)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단계적 추진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방지법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 홍보도 실시되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윤리경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③ 조직·인사·재무관리

#### (1) 조직·인사 일반(삶의 질 제고)(비계량)

-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및 인적자원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핵심 업무를 고려한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 설정 및 적절한 인력 배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출연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조직 개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력운영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성과,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 인력운용 계획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략방향과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인력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충원 소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들에 대한 업무량 및 직무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조직이 얼마만큼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이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신규사업 인력 충원과 관련된 요구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조직 최적화를 위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서간, 개인간 업무량을 분석하고, 부서 간 업무량 편차 및 부서 내 업무량 편차를 줄이는 등의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1년 11월에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결과물을 살펴볼 때, 활용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활용성 부분을 고려하여 분석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구성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향후 직위별/직책별로 요구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역량의 범위 및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現 구성원의 전문성 수준 파악을 통해 전문성 부족분야 등을 도출하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구성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

가 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① 주요 사업 업무 및 본부의 지원/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각 분야를 세분화하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 영역 도출, ② 전문성 영역 별 전문성 등급(ex. Level 1~5, 상/중/하) 및 등급 판단기준 설계, ③ 분야 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수준 설정, ④ 분야 별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 평가, ⑤ 필요한 전문성 수준과 현재 구성원 전문성 수준의 gap분석을 통해 전문성 확보 필요분야 도출 및 확보 추진 등).

- 업무별 프로세서라는 매뉴얼을 통해 각 업무 별로 목적, 내용, 추진방법, 일정, 기대효과, 프로세스, 추진상의 노하우 등을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다. 특히 축산환경관리원은 모든 인력이 모든 직위에 순환배치 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직위별 필요 전문영역에 대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및 매뉴얼의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특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커리어패스 등의 설계를 통해 전문성 확보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축산관리원의 내부 성과평가체계는 부서평가 및 개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부서평가는 환경분석의 적절성/계획수립의 적절성/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절성/추진계획 실행의 적절성, 사업실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로 구분되어 있다. 부서별로 KPI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부서평가 결과는 개인평가 시 반영되고 있다. 개인평가는 근무실적(부서/개인), 역량(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조직기여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은 현재 등급간 가중치가 5% 차등으로 매우 적으며, 성과중심적 조직운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이 외에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인정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계량)

### ①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건전한 재무구조 및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한 재무예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검토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예산편성 시 예산담당부서에서 타사업과의 중복성, 과거 대비 증감이 큰 내역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既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좋을 것이다. 또한 편성 예산과 기관경영방침과의 부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차원에서의 검토가 아닌, 기관장 및 부서장들로 구성된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2021년 축산환경관리원의 예산총액은 60.29억이며, 집행액은 60.29억으로 100% 예산 집행률을 달성하였다. 19년부터 계속 100%의 예산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다.
-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3분기 말 시점의 예산집행률이 약 66% 수준으로 연말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고, 비교적 계획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된다.
-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조정통제, 지출관리가 경영지원팀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편성 및 조정통제, 지출관리에 대한 기능을 이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예산집행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하반기는 월단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의 주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모니터링 후 파악되는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체계를 구분한 필요가 있으며(예 : 중요도 하\_담당자 알림, 중요도 중\_해당부서 부서

장 알림, 중요도 상\_실장 혹은 기관장 알림 등), 특성에 따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예산 운영·성과를 “B”로 평가한다.

## ② 재무예산 운영·성과(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사업비 집행액 사업비 예산현액	목표 대 실적	100.00%	100.00%	100.00	1	1.00

###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비 집행률 실적 조사결과 목표치 사업비 예산 현액 100% 대비 100.00%를 달성하였고,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1.00 점을 획득하였다.



#### ④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1) 보수 및 복리후생(비계량)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및 합리적인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직무 중심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분석 등 사전절차 이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 설정 노력 및 성과, 합리적인 직무평가결과반영,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규정에 따른 편성 및 집행,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다.
- '21년 첫 기타공공기관 평가기관으로 전년도 경평지적사항은 없다. 직무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을 위해 기관 내에서 '21년 11월 내부 자체분석을 실시해 직무평가모델을 제시했는데, 관련 모델이 기관의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합리적 보수체계를 위한 직무급제 전환을 초기단계로 보기 힘들며, 재정비를 실시해 '22년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둘째, 합리적 직무구분, 직무별 중요도, 난이도 등의 설계에 대한 기관의 체계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된다. 직원 의견수렴, 노사 등 공감대 형성수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타기관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중심으로 벤치마킹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보수체계 포함) 구성원의 니즈파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환류계획 또한 제시가 되어야 한다. '21년 기관의 퇴사자는 1명밖에 없었으나 퇴사자에 대한 니즈파악을 실시한 후 보완계획을 세워야 한다.
- 기관의 사업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 바 '22년 체계적인 직무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편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에 제시한 내용으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의료비, 건강검진비, 기념품 등, 경조사비,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관련지침 및 내부대상자가 있었는지는 등 정 부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2년 경평보고서에 관련 내용도 함께 제시하길 바란다.

- 임금피크제 제도운영을 검토한 결과, 실제 시행되는 시점이 '22년인 것이 확인되었다. 임금피크제의 정부권고사항, 로드맵 등 세부계획되어 있고 대상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22년에 제시하길 바란다.
- 복리후생비를 검토한 결과,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정규직·기간제 고용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관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을 위해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타기관의 사례를 확인한 후 직원이 필요로 하는 비금전적 복리후생이 무엇인지 파악해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D+”로 평가한다.

## (2) 총인건비 관리(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평가연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전년도 총인건비	목표부여 (일반)	0.9% 이하	0.72%	100.00	2.00	2.00

### 나. 평가내용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은 0.72%로 기준치 0.9% 이하를 달성하여 지표가 중치 2점 만점 중 2점을 획득하였다.

## (3) 노사관계(비계량)

-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노사 간 협의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이 상호 협력과 참여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 노사관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를 검토하였다.

- 노사협의회는 3월, 6월, 9월, 12월 등 4차례 실시하였으며 모두 분기 내 운영하였으며, 기관의 연차사용률이 97%로 높은 편이고 자유게시판이 활성화 되어 있다.
- 전반적으로 노사간 협의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공감대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의 실질적 향상과 구체적 성과 등 경영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재검토 및 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노동조합이 별도 조직되어 있지 않으나 매분기별 (4회/년) 근로자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차년도 평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의견수렴에 대한 분석 및 결과 환류에 대한 다양한 안전제시내용을 명시하기 바란다.
- 노사관계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와 채널별 피드백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보면 소통채널 다변화, 대상확대, 방식개선 등이 '22년에 개선된다고 적혀있는데, 소통채널 운영의 목적 자체는 기관내, 직원간 애로사항 해결 등이므로 도출된 안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22년 추진활동을 기대한다.
- 노사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교육대상별(경영진/노무관계자/직원 등)로 실시해야 하며, 고충처리, 인권침해 등 직원의 니즈와 외부위원 위촉,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한다.
- 일가정양립을 위한 추진성과가 일반적이다. 실제 직원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한 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가족친화문화, 일가정양립제도 등을 위해 원장님, 본부장님 중심의 간담회를 확인하였다. 전직원 설문조사, 자유게시판을 통한 니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계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D"로 평가한다.

## 5 혁신과 소통

### (1) 혁신 노력 및 성과(비계량)

- ‘혁신 노력 및 성과’ 지표는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 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 축산환경관리원의 비전은 세계최고의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이며, 축산환경 관리체계 구축, 산업성장 동력확보, 축산환경개선관리효율화 등 3개의 전략, 9개의 혁신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관련된 9개의 혁신과제를 검토한 결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혁신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도 제시하길 바란다. 연초 또는 전년 말에 수립한 전략을 계획대로 모두 실행하기에는 환경적 변화, 인력의 구성, 예산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100% 달성하기 어렵다. 경영보고서의 전략만을 검토해보면 모두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성과달성, 보통, 미흡, 전략변경 등의 내용을 간략히 구성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 프로세스(배경→추진과제 선정 프로세스→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실적→환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추진과제 프로세스 및 자세한 내용, 기관차원(규모, 업무 등을 고려)에서 제시한 추진과제가 왜 적절한지, 향후 기대효과 및 환류는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한 결과, 다양한 관점에서 혁신성과를 창출하려 노력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기관 혁신과 직결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이다.
- 제시한 혁신추진조직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각 조직간 주요역할,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 시기 및 주요성과, 환류계획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대내외 혁신네트워크 또한 내외부의 구성원, 추진성과 및 모니터링 시기, 구성원과의 공유 등의 시스템이 명확히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혁신활동에 의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직원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팀, 개인의 내부평가와의 연계, 승진 등 인사반영에 활용하는 방안,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22년에 구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관련 활동이 기대된다.
- 임직원, 협력기관, 지역주민, 축산농사,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추진내용과 성과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주민,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의 경우 더욱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인스타, 카카오, 홍보자료 등). '22년에 축산환경국제포럼이 계획되어 있는데, 관련 포럼내용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보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답변률과 답변기간을 확인한 결과, 모든 민원에 대해 2주안에 답변한 것이 확인되었다.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적극행정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직원교육, 사례전파가 실시되어야 한다. 적극행정의 경우, 유형을 나누어 선별(행태적(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 규정의 해석(불합리한 규정과 관행을 개선) 등)해 직원에 전파하기를 권장하며, 소극행정 또한 유형(적당편의, 업무행태, 탁상행정)을 구분해 전파하기를 권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현재 부처에서도 사례가 나오기 쉽지않은 만큼 사례발굴보다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관의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① 혁신계획의 적정성,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추진체계 구축, 혁신 문화 조성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D+”② 국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참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국민소통(계량)

### ① 고객만족도(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목표부여 (일반)	100.00	82.80	82.80	1.00	0.83

#### 나. 평가내용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나타난 고객만족도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하여 산출<sup>4)</sup>하였다. 2021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81.40점을 받아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83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2021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1.40점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고객만족도 지수는 82.80점으로 산출되어 평점 82.80점을 획득하였다.

### ② 경영정보 공시(계량)

####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공시자료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일반)	경영공시 별점 0	별점 23.0	-	1.00	0.00

#### 나. 평가내용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획재정부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 배점 기준'을 활용하여 득점을 산출하였다. 2021년도 경영정보공시 점검결과에서 종합 별점 23.0점이 부여되어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0.00점을 획득하였다.

4) 축산환경관리원은 '20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1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21년 고객만족도 지수만을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 실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 2 주요사업

### ① 축산환경 관리사업

#### (1)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실적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농식품부에서 검증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수	목표대실적	1,050	1,635	100.00	7.00	7.00

나. 평가내용

- 농가 스스로 가축 사양관리 강화, 악취발생 저감 등 축산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축산농가 5천호를 '22년까지 육성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로, 조성실적 목표를 100%를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7.00점 만점 중 7.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1,635호)를 달성하고 축산환경개선 대상지역에서 30개 지역관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농장 환경관리가 미흡한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축산환경 관리사업의 주요 목표이므로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개발해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단기 이행실적 건수 /환경개선 대상 농가 단기 이행사항 지정 건수	목표대실적	60.0%	79.90%	100.00	5.00	5.00

#### 나. 평가내용

- 환경개선 대상농가의 단기 이행사항을 지정하고, 농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치(60.0%)를 상회하는 이행률(79.9%)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5.00점 만점 중 5.00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농가가 환경개선사항을 잘 이행하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행률 목표는 난이도에 따라 이행이 어려운 항목과 상대적으로 이행이 수월한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 (1)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하향지표)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연도 c등급 시설 개소 /전체 공동자원화시설 개소	목표대실적	20.0%	17.86%	100.00	6.00	6.00

나. 평가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시설 가동률 제고 등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정된 지표로, 목표치 20.0%를 하회하는 실적(17.86%)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6.00점 만점 중 6.00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초기에 건축된 공동자원화시설의 규격과 성능 등에 하자가 많은 현 상황에서 적극적인 개보수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성능과 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C등급 비율을 설정함에 있어 (절대기준 또는 상대기준)의 이슈가 있지만, 부실시설의 개보수 독려를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절대기준 설정에 타당함이 있다. 다만, 20%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축산환경관리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 (2) 경축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점
당해년도 참여농가 전체 화학비료 절감실적(백만원) /전년도 참여농가 전체 화학비료 사용실적(백만원)	목표대실적	15.00%	71.72%	100.00	4.00	4.00

#### 나. 평가내용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농가의 화학비료 절감률 조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치 15.0%를 상회하는 실적(71.72%)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경종농가가 화학비료 대신 가축분퇴비 사용을 촉진하여 경축순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 사업의 의미가 분명하고 지표의 설정과 측정식도 타당하다.
- 경종농가가 화학비료를 선호하고 가축분퇴비의 불확실성과 불편함에 의문을 가지는 현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의 사용지역과 대상작목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수도작 이외에 원예농가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크다.
- 시비처방 등 과학적인 근거마련과 매뉴얼 확보 등 후속작업에도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 화학비료 가격의 계절성과 변동성 때문에 지표측정에 노이즈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절감액 대신 절감량(Kg 등)으로 산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 3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 사업

#### (1)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실적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당해연도 신규 등록인원	목표부여 (편차)	40	50	100.00	4.00	4.00

나. 평가내용

-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이용 등 축산환경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하여 설정된 지표로, 21년 목표치 40명을 상회하는 실적(50명)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4점 만점 중 4점을 획득하였다.

다. 평가 의견

- 축산환경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축산환경에 교육을 통해 지식과 역량을 향상 시킨다는데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다.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축산환경 컨설턴트가 당장 현장농가의 컨설팅을 수행하기 보다는 국가전반적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전문인력 풀을 확보하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양질의 축산환경컨설턴트가 배출되고, 고품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가 확보, 확산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의 개발과 전파와 관련한 지표개발도 검토해보기 바란다.

#### (2) 교육/컨설팅 만족도

가. 평가개요

측정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점	배점	득 점
당해연도 신규 등록인원	목표부여 (편차)	80.00	81.40	100.00	1.00	1.00

#### 나. 평가내용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가기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1년 목표치 80.0점을 상회하는 실적(81.40점)을 달성하여 지표 가중치 1점 만점 중 1점을 획득하였다.

#### 다. 평가 의견

- 만족도 지표의 2021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전년도 실적치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만족도 지표는 의도적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 주기 바라며, 보완 지표가 없는지 (예, 교육프로그램 콘텐츠와 관련한 복합지표) 개발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 ④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업별 성과목표 정의,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주요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별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성과지표 중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 목표를 국정과제 계획에 따른 연차별 목표와 부합되게 설정한 것은 우수하다고 인정되나 농장 환경관리가 미흡한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축산환경 관리사업의 주요 목표이므로 이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국정과제와 연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 목표를 국정과제 계획에 따른 연차별 목표와 부합되게 설정한 것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설립 초기기관으로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내용 사업화하였으며, 적절한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의 내용과 성과관리가 빠른 속도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나, 타 기타공공기관에 비하여, 재무/예산/조직/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하므로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과 인력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1년 민간자격시험을 도입하여 자격제도의 효용성을 높였으며,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축산종사자 교육을 계획에 따라 실시하였다.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 목표치 및 실적 치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21년 40명, 22년 90명(누계), 23년 150명(누계)).
- 교육컨설팅 만족도를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 연도별 이상향 목표치(80→83→86)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자의적, 의도적 목표치 측정 우려가 있어서 보완이 요구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A/B”로 평가한다.

##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활동 실적의 적정성, 주요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운용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변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환경 개선 대상지역 관리, 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 및 처리기술 평가,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관리 및 점검, 축산환경건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 현안중심 연구과제 수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인력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 국정과제(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로 농가 현장평가를 수행하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노력이 인정된다.
- 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고 실적도 양호하지만, 축산현장과 축산농가에서 축산환경관리원이 추진하는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더욱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고 경종농가에게 순환하는 모델과 실증을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경종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C등급 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가동률 제고 등 운영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 농가와 현장의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고,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과학적 근거 확보와 시간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급, 2급, 3급의 등급제 도입과 문제은행 제도 도입 등 제도의 안착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A/B”로 평가한다.

### (3)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계획대비 성과목표 및 목표치 달성도, 기관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달성 기여도 등을 검토하였다.
- 성과지표 및 성과 수준을 높게 설정한 도전성은 인정되나 가용인력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성과 수준 조정이 불가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신생기관의 특성상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국민 참여 지역협의체 30개소 운영, 축산관련기관 통합 농가 점검 1138호, 자원화조직체 가동률 부진시설 약 10% 감소, 축산환경자격제도 시행 등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된다.
- 사업초기단계로 처음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를 고려하면 성과의 적정성과 목표치 달성도 양호하다.
- 탄소중립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경축순환농업 등으로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방식 다양화 보급을 위한 방향성 확대는 긍정적이다.
- 탄소중립에 대한 현장농가와의 시각차가 크고, 충분한 사업예산과 규모가 부족하므로, 예산/인력의 확보와 농가와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지표 및 만족도 지표의 목표치 양호하고 달성치도 양호하다. 다만, 지나친 양적목표치 상승은 질적 하락으로 연결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성과 수준의 적정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B/B”로 평가한다.

#### (4)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평가와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외부 지적사항과 연계한 환류 활동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 2020년 기타공공기관에 신규지정되어 최근 5년간 국회·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등 환류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 한편 각종 외부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과를 평가·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환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21년 기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빠르게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별 환류 활동 수행의 적절성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B+/B/B”로 평가한다.

#### (5)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집행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를 검토하였다.
- 축산환경컨설팅 민간자격제 시행을 통해 양성한 현장 전문가 16명을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위원으로 위촉·활용한 것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다.
-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은 사업철학과 취지 자체가 사회적 가치 증진과 맞닿아 있다. 축산악취와 축산환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슈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사업을 갖추어 가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이다.
- 축산악취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증가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국민 대상 축산환경 바로 알리기등 사업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 및 교육은 축산환경위해요인을 해결하여 국민적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으로의 의미가 매우 크다.
- 축산인의 경제적 편익과 국민의 사회적 편익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갈등관리가 본 기관 미션의 핵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계획의 수립과 집행, 성과 환류가 관리되고 있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주요사업 추진계획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 여부의 노력과 성과를 “A/B/B”로 평가한다.

## ⑤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 (1)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 기관의 사업비중 및 정책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 배분의 적정성, 투입(Input)·과정(Process)지표보다는 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 중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지표설정 노력, 평가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검토하였다.
- 축산환경관리원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는데 축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지표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실적, 농가 환경개선사항 이행률을 설정하였으며,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의 성과지표로 자원화조직체 운영활성화, 경축순환농업 체계 혁신을 설정하였다.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사업의 성과지표로 축산환경 전문인력 양성, 축산환경 교육·컨설팅 확대를 설정하였다.
- 지표의 선정에 있어, 주요 사업 별 논리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지표POOL을 구축하고 SMART 검증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표선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 주요사업 별로 목적에 맞게 성과지표들이 설정되었으며, 나름 유의미한 지표들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부 지표들의 경우, 성과대표성에 제한이 있거나 성과왜곡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실적은 전체농가 중 깨끗한 축산농장 평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농장의 수로 측정하고 있다. 이 지표의 경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축산환경관리원의 노력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제한된다는 부분에서 성과대표성이 부족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해에 우수한 상태의 농장들이 얼마나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표의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인정하지만 이를 축산환경관리원 노력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제한되며, 지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농가환경 개선사항 이행률은 단기 이행사항 지적건수 대비 단기 이행실적 인정건수로 측정하고 있다. 지적사항에 대한 자의성, 이행 인정기준에 대한 모호성 등으로

인해 성과왜곡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장의 악취수준을 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보인다.

- 공동자원화시설 C등급 비율은 전체 공동자원화시설 개소 대비 해당연도 C등급 시설 개소로 측정하고 있다. 역시 C등급 부여의 자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자원화시설 등급 평가기준을 살펴본 결과, 정량적 기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일부 해소되긴 하나 일부 기준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축순환농업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은 참여농가의 전년도 화학비료 사용실적 대비 참여농가의 해당연도 화학비료 절감실적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측정산식이 실제 측정한 방법과 일부 상이하고 화학비료 구매비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일부 성과왜곡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화학비료 구매 비용은 해당연도의 지자체 지원, 화학비료 금액 변동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 축산환경컨설턴트 양성실적은 해당연도에 시험에 응시한 인원 중 최종합격되어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인원의 수를 의미한다. 컨설턴트의 필요성/활용성은 인정되나, 지표의 난이도 부분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증 취득 인원 수와 축산환경관리원의 노력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 교육·컨설팅 대상자 만족도의 경우,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양호하나, 조사설계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표구성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부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이나, 전반적으로 산출/결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지표 간 가중치와 관련해서 향후 가중치 설정의 근거를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의 설립목적과의 연계 등 지표의 대표성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2) 목표 수준의 도전성

- 주요사업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목표 수준의 도전성을 평가방식, 산식구성 및 목표치 설정,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목표의 도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신규지표들의 경우, 유사사업 및 시범사업의 실적들을 기반으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지표(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농장 환경개선사항 이행률, 경축 순환농업 협력사업 참여농가 화학비료 절감률,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실적)에서 목표와 실적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부분이 있으나 적절한 목표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이 인정된다.
- 향후에는 목표설정 시 기존 실적값을 기반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자원적 요소들을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목표설정 근거 역시 현 수준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 추가로 6개 기관 공통적인 사항으로, 편람 상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적 임계치에 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편람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지표(성과대표성도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라도 매년 일정수준 이상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지표로 대체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측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이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목표 수준의 도전성의 노력과 성과를 “C”로 평가한다.

## ⑥ 가점 지표

### (1) 혁신성장 가점

- 혁신성장 수요 창출, 혁신 기술 융합,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악취·환경 정보수집·분석 후 농자 및 지자체에 악취정보를 제공하는 악취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악취관리를 통해 지역갈등을 해결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혁신성장 가점을 “0.2점”으로 평가한다.

### (2)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 코로나19 고통분담, 정부정책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대응 노력과 성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사랑 나눔 헌혈 릴레이를 통해 헌혈증을 기부하고 격무에 지친 의료진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장 가점을 “0.3점”으로 평가한다.



---

##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





## IV.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 평가지표 개선 등 각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선사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에 관한 보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경영평가 개선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1) 평가편람 수정 및 보완 필요

- '21년도 경영평가 편람상 일부 계량지표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표준화된 평가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표임에도 산출 방식이 기관 별로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21년도 평가의 경영관리 범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구현'범주 중 일자리 창출 지표 세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장애인 고용실적, 국가유공자 고용실적의 경우 평가 산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관마다 적용 산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편람 상 산식 명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표 산출 방식은 해당지표의 상위 평가기관(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상위 평가와 본 평가 간 평가결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경영관리 지표의 '총 인건비 관리'지표에서는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총인건비 인상률은 모든 기타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므로, 공통으로 매년 100%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공통으로 동일한 득점이 발생하는 바, 지표의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거나 감점 지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경영관리 지표의 '안전 및 환경' 범주의 환경보전 지표의 경우 세부 평가내용은 계량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비계량지표로 표시되어있어 피평가기관에 혼란을 야

기하는 만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지표의 경우 측정하는데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피평가기관에 지표에 대한 자세한 평가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평가항목 간 유사·중복 항목이 존재하여 유사 항목에 대한 중복 평가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21.08.,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적되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21.12.)에 위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21년도 평가편람		'22년도 평가편람
<input type="checkbox"/> 경영전략 및 리더십 (6점)		<input type="checkbox"/> 경영전략 및 리더십 (9.5점)
○ 전략기획	통합	○ 전략기획 및 혁신 (세부평가항목 : 13→4개)
○ 경영개선		
○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혁신과 소통 (3.5점)		
○ 혁신노력 및 성과	-	○ 국민소통
○ 국민소통	-	○ 국민소통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가치 구현 (25점)
○ 일자리 창출	축소	○ 일자리 창출(세부평가항목 : 7→6개)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축소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세부평가항목 : 6→4개)
○ 안전 및 환경	축소	○ 안전 및 환경(세부평가항목 :8→6개)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윤리경영	-	○ 윤리경영
<input type="checkbox"/>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input type="checkbox"/> 조직·인사·재무관리 (7점)
○ 조직·인사 일반	축소	○ 조직·인사일반 (세부평가항목 : 7→6개)
○ 재무예산 운영·성과	-	○ 재무예산 운영·성과 (세부평가항목 : 7→6개)
<input type="checkbox"/>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점)		<input type="checkbox"/>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점)
○ 보수·복리후생	축소	○ 보수·복리후생(세부평가항목 : 4→3개)
○ 총인건비 관리	-	○ 총인건비 관리
○ 노사관계	-	○ 노사관계
<input type="checkbox"/> 업무효율 (5점)		<input type="checkbox"/> 업무효율 (5점)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가점 (3점)	축소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가점 (3점) (세부평가항목 : 3→2개)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가점 (2점)	본지표에 흡수	(세부평가항목 :5→0개)
<input type="checkbox"/> 혁신·협업·시민참여 가점 (1점)	”	(세부평가항목 :1→0개)

-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상 유사·중복 항목으로는 ① 경영 전략 및 리더십 중 경영개선, 혁신과 소통 중 기관의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혁신성장(가점), ② 재무예산 운영 성과 중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 보수 및 복리후생 중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준수, ③ 조직·인사 일반 중 육아휴직 활용,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 일자리 창출 중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 등이 있다.
- 위와 같은 유사·중복항목 제거를 위하여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지표 체계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1년도 평가편람		'22년도 평가편람
<input type="checkbox"/> 경영전략 및 리더십 (-점)		<input type="checkbox"/> 경영전략 및 리더십 (-점)
○ 전략기획	통합	○ 전략기획 및 혁신
○ 경영개선		
○ 리더십		
<input type="checkbox"/> 혁신과 소통 (-점)		
○ 혁신노력 및 성과		
○ 국민소통	-	○ 국민소통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가치 구현 (-점)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가치 구현 (-점)
○ 일자리 창출	축소	○ 일자리 창출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축소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안전 및 환경	축소	○ 안전 및 환경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축소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윤리경영	축소	○ 윤리경영
<input type="checkbox"/> 조직·인사·재무관리 (-점)	통합	<input type="checkbox"/> 조직·인사·재무관리 (-점)
○ 조직·인사 일반		○ 조직·인사일반
○ 재무예산 운영·성과		○ 노사관계
<input type="checkbox"/>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점)		○ 총인건비 관리
○ 보수·복리후생		○ 재무예산 운영·성과
○ 총인건비 관리		
○ 재무예산 운영·성과		
○ 노사관계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가점 (-점)	축소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가점 (-점)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가점 (-점)	본지표에 흡수	(세부평가항목 :5→0개)

## (2) 비계량지표 평점 구간 수정

- '21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상 전체적으로 평가점수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며, 평가점수의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최고득점을 획득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평가점수는 82.19점, 최저득점을 획득한 축산환경관리원의 경우 74.33점으로 최고득점-최저득점 간 편차가 7.8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결과 검토 결과 이는 '20년에 처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축산환경 관리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계량지표에서 비슷한 수준의 득점을 획득하였고, 비계량 지표에서 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구간이 크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 '21년도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상 제시되어 있는 평가등급과 이에 따른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A+	100
A0	90
B+	80
B0	70
C0	60
D+	50
D0	40
E+	30
E0	20

- 실제 평가 시 대부분의 평가위원이 A0에서 D0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시, 현 평가등급 및 평점 체계하에서는 최대 획득가능 득점(54.90점) 및 최소 획득가능 득점(24.40점)의 편차가 30.5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 평가점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등급 및 평점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5) 현재 평가편람 상 비계량지표 만점(61점) 기준으로 계산

1안		2안	
등급	평점	등급	평점
S	100	A+	100
A+	90	A0	87.5
A0	80	B+	75
B+	70	B0	62.5
B0	60	C0	50
C+	50	D+	37.5
C0	40	D0	25
D+	30	E	12.5
D0	20	F	0
E	10		
F	0		

- 1안의 경우 최대 획득가능 득점(48.80점) 및 최소 획득가능 득점(12.20점)의 편차가 36.60점, 2안의 경우 최대 획득가능 득점(53.38점), 최소 획득가능 득점(15.25점)의 편차가 38.13점으로, 현행 평가등급-구간을 활용했을 때보다 평가점수 인플레이션 억제 및 평가 변별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주요사업 계량지표 하향식 설정 필요

- 전년도 지적사항으로 인해 피평가기관이 주요사업 성과지표를 신규 개발·적용 또는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관의 운영 비전 및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기존 지표와 비슷한 지표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사업목표에 부합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축산물위생사업 지표에 대한 적절한 개발 필요성이 작년에도 지적되었으나 지표 변경 없이 '21년도 평가가 진행되었다. 축산물위생사업 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경우,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대표지표인 보험사업 점검 횟수 증가율 지표는 기관의 대표지표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지표로 나타났다. 점검 횟수의 경우 산출단계에는 포함이 되나 결과단계의 지표로 보기 애매하며,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에 있어 기관에서 올릴 수 있는 지표이다. 이에 농업재해보험관리사업 대표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계량지표를 매년 설정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각 기관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및 목표를 피평가기관에 하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표구성의 적정성을 더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하달할 경우, ① 기관 실무와 동떨어진 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고, ② 피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지표를 개발한 후 시범적용을 거쳐 본 평가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평가방식 개선 필요

- 기존 계량지표의 평가방법(목표부여 방식)의 경우,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목표가 설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실적이 특이값을 보이는 경우나 신규지표라 전년도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못한 목표치가 부여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 또한 매년 기준치 대비 일정수준 이상 향상을 이루어야 만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부 정량지표의 경우, 실적이 임계치에 달해 실적향상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고목표치가 과도하게 부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거 실적치 및 지표 특성에 따라 ① 목표달성도 측정방식(A), ② 목표달성도 측정방식(B)의 방법으로 목표달성도 측정을 개선하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구분	산정방법	적용조건	비고
목표 달성도 측정 방식 (A)	과거 실적을 고려한 최고·최저 목표치 부여 및 그에 따른 점수 산정	해당 지표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치가 1년 이상 축적된 경우	임계수준에 따라 최고목표 차등부여 및 임계수준적절성 검증
목표 달성도 측정 방식 (B)	피평가기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로 점수 산정	해당 지표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치가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지표 실적 특성상 목표달성도 측정방식(A)으로 평가할 경우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설정된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단의 검증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A)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표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치가 1년 이상 축적되었으며, 전년대비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 상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목표달성도 측정방법(A)을 사용한다. 목표달성도 측정방법(A)의 평가방법은 전년도 실적의 임계수준<sup>6)</sup>을 고려해서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설정하여 득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일반적 지표일 경우, 임계수준 B를 적용하여 평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실적이 어느 정도 임계수준에 도달하여 S나 A로 적용받아야 하는 지표의 경우에는 피평가기관에서 해당 지표의 임계수준 및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여 평가 시, 평가단에 그 내용을 인정받아야 한다. 평가단에서 해당 근거 및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실적에 대한 임계수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목표달성도(A)의 측정산식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 - \text{최저목표}}{\text{최고목표} - \text{최저목표}} \times 100$			
* 단, 비율지표 중 최저수치가 0% 최고수치가 100%인 지표는 목표의 상·하한을 100과 0으로 설정함(상향지표 기준).			
<b>상향지표 경우</b>	실적 : F년도 실적		
	실적 임계수준	최고목표	최저목표
	S	전년도 실적 * 100%	전년도 실적 * 50%
	A	전년도 실적 * 105%	전년도 실적 * 50%
	B	전년도 실적 * 110%	전년도 실적 * 50%
<b>하향지표 경우</b>	실적 : F년도 실적		
	실적 임계수준	최고목표	최저목표
	S	전년도 실적 * 100%	전년도 실적 * 150%
	A	전년도 실적 * 95%	전년도 실적 * 150%
	B	전년도 실적 * 90%	전년도 실적 * 150%

6) 임계수준은 해당지표의 실적이 최고치에 얼마만큼 도달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계수준이 S일 경우, 해당지표의 실적이 최고치에 가깝게 도달되어 있어 더 이상 올리기 힘든 경우를 의미하며, B일 경우는 아직 해당 실적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B)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표의 평가에 필요한 실적치가 1년 이하이거나, 지표 및 실적 특성상 목표달성도 측정방식(A)로 평가할 경우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할 경우, 목표달성도 측정방식(B)를 사용한다.
- 목표달성도 측정방식(B)를 사용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① 해당 지표가 신규지표거나 측정산식의 변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과거 실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② 기관의 조직 및 사업구조가 변경되어서 과거실적이 불연속성을 보이는 경우, ③ 전년도 실적이 특정 외부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특이치가 발생했을 경우, ④ 그 외 목표달성도 측정방식(A)로 평가할 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목표달성도 측정방법(B)의 평가방법은 피평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 비율로 득점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단, 평가 시 설정된 목표의 적절성 및 도전성 여부에 대해 평가단에서 검증·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적절치 못한(너무 달성하기 쉬운 목표 등)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부여된다.

목표달성도(B)의 측정산식	
상향지표일 경우	$\text{목표달성도} = \frac{\text{실적}}{\text{목표}} \times 100$ <p>*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p>
하향지표일 경우	$\text{목표달성도} = \frac{1}{\text{실적}/\text{목표}} \times 100$ <p>*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함</p>

- 목표달성도 측정방식(B)에서 피평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패널티는 다음과 같다.



구분	판단 기준	페널티
S등급	해당 지표의 과거 실적 추세 및 지표의 특성에 따른 임계치를 고려할 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여기서 ‘충분히 도전적’이란, 해당 지표의 설정 목표가 기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근접함을 의미함	목표달성도 * 1.0
A등급	해당 지표의 과거 실적 추세 및 지표의 특성에 따른 임계치를 고려할 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가 상당히 도전적(또는 전년 대비 현저한 상승)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표달성도 * 0.95
B등급	해당 지표의 과거 실적 추세 및 지표의 특성에 따른 임계치를 고려할 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가 다소 향상된 수준(또는 전년 대비 약간 상승)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표달성도 * 0.90
C등급	해당 지표의 과거 실적 추세 및 지표의 특성에 따른 임계치를 고려할 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가 보통 수준(또는 향상 여지가 상당 부분 있음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표달성도 * 0.85
D등급	해당 지표의 과거 실적 추세 및 지표의 특성에 따른 임계치를 고려할 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가 미흡한 수준(또는 전년 대비 다소 및 현저한 하락)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표달성도 * 0.80
F등급	해당 지표의 과거 실적 추세 및 지표의 특성에 따른 임계치를 고려할 때, 기관에서 제시한 목표가 매우 낮은 수준(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표달성도 * 0.50

(5) 상급기관 점검 결과 지표(감점지표) 도입 검토

- 상급기관과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타공공기관별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이 체감하는 업무처리 수준과 평가결과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위와 같은 평가 결과와 체감 수준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급기관 점검 결과 지표(감점지표)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표를 평가할 시 개인의 주관 이 개입될 시 기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량지표로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정기 제출 문건 및 수시 제출 문건을 분류하여 해당 문건에 대하여 제출기한 준수 여부, 추가 수정 요청 여부 횟수를 점검한다(상급기관). 단, 평가의 형평성을 위하여 평가 대상 문건은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문건에 한한다.

- 제출기한 미준수 여부, 추가 수정 요청 여부 횟수에 대한 벌점을 설정하고, 벌점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벌점항목(예시)		벌점(예시)
제출기한 미준수	1~2일 초과	1점
	3일 이상 초과	2점
추가 수정 요청	1회	1점
	2회 이상	2점

벌점(예시)	감점(예시)
0점	0점
1~5점	-0.5점
6~10점	-1점
11~20점	-1.5점
20점 초과	-2점

## (6) 지표 간 가중치 수정 검토 필요

- 평가 운영 기간 동안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 가중치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기되었다. 차년도 평가편람 작성 시 다음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의 경우, 지표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관의 핵심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목이 적음에도 25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전략기획, 경영개선, 조직·인사·재무관리 지표의 경우 기관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데 반해 각각 2점, 1점, 4점의 가중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특히 일자리창출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농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 50명 내외의 정규직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표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기관이 직면 상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간 격차가 큰 측면이 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험이 있는 행정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배점 관련 설문을 실시 및 AHP 분석 등을 통해서 지표 간 가중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

---

발행일 : 2022년 06월

편집인 :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www.3pe.re.kr](http://www.3pe.re.kr), 02-6925-0460)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

---

---

※ 본 보고서는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무단인용이나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